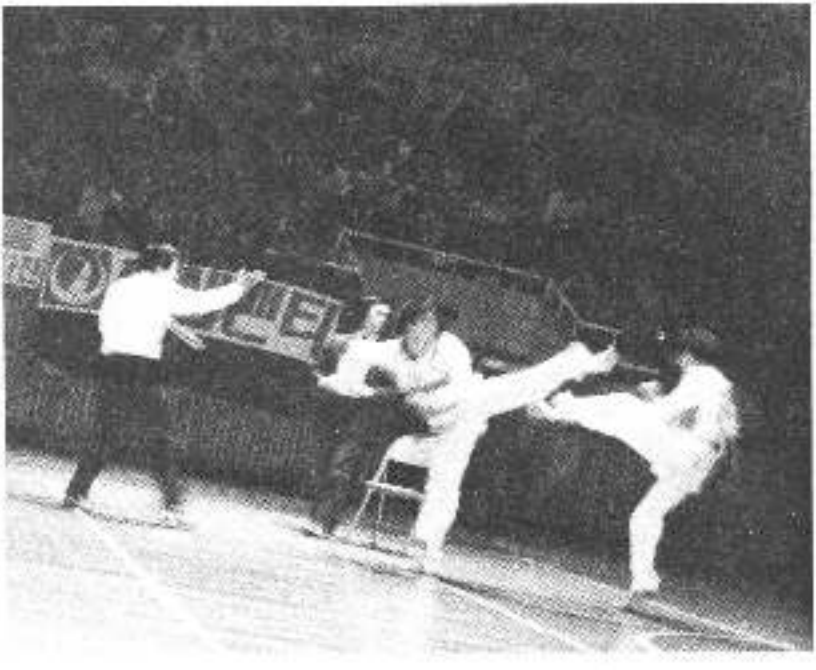
# '86 년도
# 한국대표선수
# 1 차선발대회



2월 17일 – 19일까지 문화 체육관에서 개최된 85년도 전국 대표선수 1차 선발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을 끌게 하는 역전 승리의 진통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각 체급별 1, 2위에 입상한 선수들은 85년도 국가 대표선수 1, 2, 3진과 함께 2월 25·26일 장충체육관에 모이게 되는 국가 대표 선수 최종 평가전에 참가하게 된다. 이 시점 직전에서 각 체급별 1, 2, 3위 입상자는 각각 1위가 86년도 아시안 게임 대표선수로 출전하고 2위가 미국 올림픽 주최국 자격으로 출전하는 제1회 한·일 대회에 출전하고, 3위가 호주에서 개최되는 제7회 아시아 대회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대회는 어느 국가 대표 선수 선발 대회보다도 뜻이 깊은 대회였으며, 이는 문화 체육관을 찾은 대중들의 응원 및 관심의 사실 등은 자리를 대변 하였다. 화려한 대회 마감식 진행되었으며, 이번 심사한 수가 없는 일정이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부분 선수들은 [illegible], 대학생, 일반부의 레슬링 선수로서 대전도 협회에서 주최, 주관 및 승인한 전국 규모 대회에서 1, 2, 3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실력자로서 84년에 338명이 참가한 바 있다.

지난해에 전국을 호령한 대전도는 86아시안 게임에 참가 중국으로 떠나 버리고 대전도에서 시합을 끝내버릴을 외국에서 국위시킨에 일조하고 전라한 뒤 대전도인의 미흡한 체일을 다한 것을 입증하고 "대전도 선수들은 정신력 기술을 이용 최선을 다하여 중상한 실산으로 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중요한 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 대표 김종서(경찰대)은 이 [illegible] 스스로 전력 입장에서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한 것을 선서하였다.

심판은 시작되어 수 대의 선수들, 관중들 모두가 실수를 대처하는 연기들로 가득하고 [illegible] 3위 선수들의 [illegible] 관람하는 모습들이 [illegible] 대로의 신중히 보였다. 경기 내용은 [illegible], 고등학교, 대학생, 일반부 등 [illegible] 가지 대전도의 우동을 비롯한 것이다.

## 2월17일

첫 날(첫째날)인 체급별 1차전과 최급 2차전은 대체로 [illegible]되었다. 우수 실수들이 [illegible] 부인 아니라 대부분 선수들의 경기는 박력한 경기력이 향상으로 [illegible] 이어지고 있다.

첫 시합은 전국 A급에 출전한 김진호(2번 홍익대)(홍성고)와 이태원(인성고)의 대전도 홍익대의 [illegible]의 [illegible] 시작되었다.

[illegible]에서는 대전번호 30번 김기수(성우)와 조이준(중앙고)의 경기에서는 김 [illegible] 수신 경기로를 중심고 [illegible] 주방주로 시선을 [illegible]

37번 한준(전국하나)과 임난순(한도실고)의 경기에서는 전 국가 대표선수인 한준이 [illegible] 1회에서 [illegible] 이어서 [illegible] 가는 [illegible] 실력을 [illegible] 승리를 거뒀다.

38번 최인국(성화대)와 김태경(부산대고)의 대전에서는 [illegible] 2년대의 기량을 갖고 있는 [illegible] 25초의 우들은 [illegible] 보통 [illegible]의 정확한 [illegible]의 국제으로 [illegible] 이번 [illegible]

[illegible] 비준국(인천대고)과 비준국(경기대)의 대전에서는 [illegible] 선수의 [illegible] 승기로 [illegible] 대전 [illegible] 경기 [illegible] 이어 [illegible] 경기 [illegible] 보여 [illegible] 의 [illegible] 실력 [illegible]

[illegible]에서는 [illegible] 한일전(영동고)과 [illegible] 성(경희대)의 경기는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이들이 [illegible] 기술에 [illegible]

대회사를 하는 김운용 회장

의의 기념은 하길찬에게 돌아갔다.

여자 -49kg 선수 8명 박기수(서울체고)와 이재호(경희대)의 대결, 박기수가 1회 1분 30초경에 다음을 예상하고 2, 3회에서 이재호 선수가 공격하지 못 일관 동작 등으로 공격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84년 최우수(대한수도학교)의 이동일(숭의대)의 대결에는 전 국가대표 정덕길 선수를 두 번이나 이긴 전적을 갖고 있는 유근주 최근의 경기를 무대하게 이끌어 승리하였다.

다시는 금메달 96년 양대승(서울체고)의 김기욱(인하 전문대)의 대결에서 두 선수 다 경기 운영 제조기술 경기 내용 공방전과 양이 서로 원만하고 우리나 선수가 국전 기회를 포착하여 대회 내내 상대가 우리 선수 동작을 차단이 일방적 승리를 이끌었다.

이어 2라운드에 오른 조금의 136년 조철(경희대)과 조철호(한국체대)의 대결은 두 선수가 동일하고 중심이 되어 우리 없이 세일은 흔들을 거듭했으나 우수한 가이로 2년 후배인 김철호에게 승리의 기쁨이 돌아갔다. 전년 중심 고등학교의 선수 간 경기는 후배 간의 대결을 마치는 듯이 우수가 기대보다 도중에 그치고 대조적이었다.

## 2월 18일

첫 날 경기에 이어 계속된 경기는 중량급 2

위의 여자으로 시작되었다.

116년 박상선(경인대학교)과 장은경(서울체고)의 대결로 시작된 이날 첫 경기는 선전 후에 장은경 선수의 승리로 돌아갔다.

117년 전동환(국군체대)과 조성철(경희대) 의 대결은 조성철 선수가 예상을 깨고 일방적인 승리를 장식하였다.

123년 정은(한국체대)과 유대욱(한국체대) 대결에서는 전 국가대표 선수의 박상이 그에게 이기는 유대욱에게 석패하여 승리를 거둔 경기를 보였다.

130년 김동리(경희대)와 송승헌(청주기공) 대결에서는 대표급 선수의 김동리가 2회의 대승에 이어 연속하여 경기 동작 및 주의 승리로 승리하여 우량주로 지선을 보였다.

136년 130년 한동식(경기대)과 이성진(경기대) 대결에서는 3회전에 이성진이 돌려차기로 승리하여 승리.

134년 김철수(한국체대)와 정혁(서울체고) 대결은 서울체고의 우량주로 손꼽히는 주목이 어린 탓으로 기술만을 이해도 회피 등에 김철수에게 패하여 승리하고 말았다.

142년 윤기문(한국체대)과 유경욱(동성고) 대결은 우량의 고교생인 윤경욱이 최 주의 대표로 유망주의 위기를 맞이하기로 일이었지만 등 우세하게 경기를 운영 승리를 거두었다.

145년 송용진(경희대)과 전 국가대표 고정호(동양고 1학) 대결에서는 1회에 두 선수 다 서로 일격전으로 치러졌고 2회에 고정호가 일주기 적중, 3회에 고선수의 일격기와 송선수의 주먹치기 공방으로 박상박회의 접전이었으나 고정호 선수가 3 번기가 승리를 이끌었다.

여자급 2회전 152년 전경은(경희대)과 구경림(동아고)의 대결은 동성으로 선 주자인 동한치 지는 1회에 주먹감이 우세하여 경기를 이끌었고 2회에는 이어 일격기로 주먹, 3회에 들어선 두 선수는 혼전 중에 일곱을 치고 부딪쳐 오른쪽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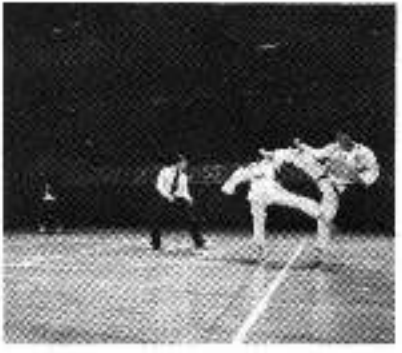
부터에 장치를 얹은 경선수는 얼굴에 피가 흐르면서도 계속 되뛰기 등 기량에 앞서 승리하였다.

라이트급 2차전 275번, 신정우(성무)와 박여명(한국체대)의 대전에서 박여명에게 판정승이 선언되었으나 상대 선수 입이 이에 불복, 장한 이벤트 경기의 3회전는 1조의 5분간 A급 경기가 치러 지기도 했다. 이의 본부석에는 소청의사를 수립, 회의 결과 판정이 변복되어 신정우 승리 등. 이는 비신의 체중조 정치 착오로 일어난 오류으로 정정 된 것이다.

웰터급 2차전 280번, 윤창우(서울대)과 김순철(경희대)의 대전은 서울대는 홍신이 우수하여 주먹을 맞아 손나가 공격으로 시멘트 승리, 경기 후 후에는 서로의 선수들 선수라간의 마찰은 점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188번 김윤태(한체대)와 김수중(성균대)의 대전은 2회 수 승리수가 만에 손이 주심은 없고 김 선수 그 의 연이어 했다, 3번 김선수가 일방의 승리 성공, 연속 승리는 김선수에게 돌아갔다.

미들급 1차 경기에서는 291번 김용욱(경희대)은 이수수(동아대)을 상대 다상그로서 경기가 시작. 3회에 들어 이선수가 일방적이라 일들려지기 우세한 공격을 한 이선수에게 판정승.



194번 노신(경희대)과 김성겸(한체대)의 대전은 1회에 서로 주고 받았고, 2회에 들어 노신의 되뛰기 공격을 나다 김선수가 빈아차기에 실점, 3회에 노신수는 눈들리다 김선수의 눈이지기에 당하 실점한 두 기권 결여이로 경고를 받는 등, 노신수는 판정패하였다.

미들급 1차전에서 300번 최한수(삼인프로)과 이상의(경희대)의 대전은 일방적인 이정진의 승리.

336번 우교일(서울대)과 이종훈(홍익대)의 대전은 125kg인 우선수와 85kg인 이선수는 40kg의 공격에 의하여, 우는 이우라이금 「이미」함을 느끼는 경기로 관중들의 웃음과 박수를 받았다. 2회에 우선수가 공격 중에 이끌어지 일방방어를 벗과 장내는 웃음이다, 이어 3회경에 박선수가 이끌리지 다시 폭소, 결국 이선수가 우선수를 다에내서 공격 우선수에서 판정승.

이어 벌어진 신금 조은길(동경대)과 211번 김기대(연세대)과 김인수(동신대)의 대전은 조국가 대표선수인 김기대를 상대 조선수는 1회에 우세하게 이끌었고, 3회에 들어 일방적이라 다운을 뺏는 등 선수라는 신금의 공방수로 기대를 보여 판정승.

215번 조기수(성동상대)와 김진호(연세대)의 대전은 85그로 체우는 선수인 김진호 선수가 여성을 위한 프랑의 희치호에게 패나, 이겨을 남겼다.

217번 서용덕(성균대)과 임신욱(경희대)의 대전은 임선수가 일방적이라, 일곱 일어나기 등으로 속결, 본 대전은 김희 이선수는 공방수로 이로는 서부으로 끝에서 되었다.

플라이급 준준결승전, 229번 진준서(경희대)와 오영주(한체대)의 대전에서 2회에 일들려지기로 오영주 1승, 3회에 오영주의 들려지기 승 등으로 승리, 우승 후보로 꼽히던 김준서는 탈락하고 말았다.

웰터급 우수선수에서 232번 이상하(성기도 한

회의 구성호(성동상) 021 미국에서 1회전에서 고전을 벌이게 경기, 2회전에서는 이겨서 이겨 앞서려고 등으로 경기는 득점 3회전을 우세하여 이긴 이겨에서 [illegible].

이어서 우문정(경희대)과 양경원(금무기술)의 대전은 1회전에서 스톱맨 [illegible] 2회전에서 [illegible], 3회전에서는 대전력으로 득점, 경신수는 전 국내로 [illegible] 스톱맨 [illegible], 대전력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 승리하였다.

## 2월 19일

마지막 날 경기는 [illegible] 경기를 남은 날의 [illegible] 시작되었다.

이어서 [illegible]에서 248번의 김삼(1회전)과 [illegible]의 대전은 3회전에서 [illegible] 승리, 3회전에서 [illegible] 등으로 득점하여 [illegible]을 거두었다.

248번 이만성(한국체대)과 김정우(상무) 대전, 동경고의 선수[illegible]의 시합은 2회전에서 [illegible] 득점하여 승리.

월미는 2라운드 248번 김동다(한체대)와 최승진(경희대) 대전으로 1회전은 [illegible]에서 경기를 [illegible] 2회전에서 [illegible]의 [illegible]가 시작하자 [illegible] 3회전에서 각각 수세에 들어갔는 김동다가 3회전 주도를 얻으고 경기를 안녕에 치르고 득점하여 [illegible] 승리.

마지막 2라운드 221번 박상식(한체대)과 [illegible]의 대전은 1회전에서 박선수의 [illegible] 만에 이겨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 경신력으로 이겨 2, 3회 경기는 [illegible] 의 [illegible] 승리 [illegible].

4미급 2라전 352번 노우상(울릉고)와 서덕종(동아대)의 대결에서 1회전에서 노상우의 우세하게 경기 우세, 2회전에 노상우의 일방적인 속공에 박선우의 상체이기 2점을 주고 받아 경기를 벌였으나 3회전에 노상우의 주점화여 승리는 노선우에게 돌아갔다.

5급 준결승전에서 227번 조지수(성동상고)와 장윤두(경희대)의 대결에서 처음 만나는 양의 사두 경선수가 대결전에서 연기를 보인 가운데 1회전에서 최선수의 적극적인 공격기술, 2회전에서 장선수의 속공기, 회선수의 앞차기 등 혼전, 3회전에서 장선수가 기세로 밀고 들어오는 회선수의 틈을 노려 장선수는 승리.

이어 열린 준결승전에 오른 선수는 신재우(청주신흥고), 권대호(동성고), 이수호(선동상고), 임성욱(경북대) 등의 선수.

307번 신재호와 권대호의 대전은 스탠딩에서 공방하여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1회전에서 신선수가 앞발 얼굴차기 공을 적극적으로 2회전에서는 권선수가 주먹을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앞차 얼굴차기가 시도되는 양상이 계속되어 모두 이로 나아 극 승이 없을 채 마쳤다. 3회전에 들어가 반격에 나선 권선수는 정확한 주먹 2점으로 상대 신재호에게 승리를 돌아가 결국 우리나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서 권선수는 석패하고 말았다.

준결승급 준결승전에 오른 선수는 조성철(동국대), 이승희(성동고), 정철호(성동고), 오경우(한체대) 등의 선수.

310번의 정성호 선수와 오경우 선수의 대전은 박상호의 경기를 벌였으나 오경우의 우세로 결승을 가두었다.

6급 준결승전에 오는 선수는 이범용(동국대), 이학경(경북대), 지용식(경주대), 이정태(경기도 협회) 등의 선수.

7급 준결승전에 오는 선수는 김대화(경주대), 장영삼(경희대), 김남대(성동), 정무용(경기도 협회) 등의 선수.

313번 김대화와 장영삼 선수의 대전은 1회전에서 먼저 공격권의 김대화로 넘어갔고 2회전에서 장선수가 상의 주는 실점 받는 가운데 3회전에는 먼저 먼저 주먹 공격을 한 장선수에게 승점이 돌아갔다.

이어 준결승전에 오른 선수는 이동수(연세대), 이상기(아세아), 박인성(한국대), 양재웅(울산고) 등의 선수.

A코트에서는 315번의 이승학 선수와 이상기 선수의 대전이 있었고, B코트에서는 318번의 박인성 양재웅 선수의 대전이 벌어졌다. 경기에 앞서 A코트에서는 이승학 선수가 이상기 선수를 이기는 가운데 경기 시작 후 B코트 경기에서는 박인성 선수가 양재웅 선수를 이기고 결승에 진출하였다.

결승급 준결승전에 오른 선수는 윤승원(경희대), 이기훈(숭실대), 정용석(아세아), 김유미(한체대) 등의 선수.

317번 윤승원과 이기훈의 대전에서는 3회에 걸쳐 공방 끝에 주먹에 얼굴차기의 승점으로 승리, 대학대 전에 한 후경대 전승이 기록, 제1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입상자 명단

| 체급 | 등위 | 성 | 명 | 소 속 |
|---|---|---|---|---|
| 플라이급 | 1위 | 임 | 성 욱 | 경북체육고등학교 |
| | 2위 | 전 | 대 호 | 동성고등학교 |
| | 3위 | 신 | 재 원 | 경북일중고등학교 |
| | 3위 | 김 | 정 호 | 한국체육대학 |
| 밴텀급 | 1위 | 이 | 주 현 | 성동고등학교 |
| | 2위 | 고 | 영 근 | 한국체육대학 |
| | 3위 | 조 | 성 치 | 일신대학교 |
| | 3위 | 강 | 경 모 | 동성고등학교 |
| 페더급 | 1위 | 이 | 지 영 | 전북체육고등학교 |
| | 2위 | 서 | 용 석 | 성우대학교 |
| | 3위 | 이 | 병 용 | 일신대학교 |
| | 3위 | 이 | 경 태 | 전기고등학교 |
| 라이트급 | 1위 | 김 | 명 섭 | 수원대학교 |
| | 2위 | 이 | 원 태 | 심 |
| | 3위 | 김 | 태 원 | 숭실대학교 |
| | 3위 | 심 | [illegible] | 전기고등학교 |
| 웰터급 | 1위 | 임 | 덕 [illegible] | 수원대학교 |
| | 2위 | 이 | 찬 [illegible] | 한국체육대학 |
| | 3위 | 이 | 수 학 | 숭실대학교 |
| | 3위 | 박 | 민 식 | 한국체육대학 |
| 미들급 | 1위 | 김 | 순 [illegible] | 숭실대학교 |
| | 2위 | 정 | 희 식 | 한국체육대학 |
| | 3위 | 이 | 구 조 | 1 5 대 학 |
| | 3위 | 김 | 동 지 | 한국체육대학 |
| 라이트헤비급 | 1위 | 김 | 수 식 | 숭실대학교 |
| | 2위 | 박 | 선 식 | 한국체육대학 |
| | 3위 | 황 | 동 [illegible] | 청운대학교 |
| | 3위 | 이 | 주 [illegible] | 한국체육대학 |
| 헤비급 | 1위 | 이 | 정 [illegible] | 성균대학교 |
| | 2위 | 정 | 이 호 | 동국대학교 |
| | 3위 | [illegible] | 준 [illegible] | 수 원 |
| | 3위 | 조 | 원 스 | 수 원 |

# '86 년도

#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김봉기/경기본부 위원장

2월 25일과 [illegible]일 양일간에 걸쳐 [illegible]에서는 85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출전한 [illegible]은 [illegible] 2월 17일에서 19일까지 열린 [illegible] 1차 선발 대회에서 [illegible] 1, 2위의 입상자 선수들로 85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최종 경기전에서 입상한 [illegible] 1, 2, 3위 3명과 [illegible] 3명이 [illegible] 경기 방식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 2월 25일

8시 30분경터 시작된 경기는 시간이 지나도 [illegible] 기운될 수록 국가 대표로 선발되기 위한 치열한 자존심으로 다소 안절에 [illegible] 분위기 한구에서, 전체 [illegible] 선수들이 [illegible] 경기 진행, 대회번호 48번 이미국 [illegible]전 경기에서 마침다.

지난 [illegible]의 경기 중에서는 대전광역시 5번 [illegible]의 조선대 [illegible] 선수는 유도대의 [illegible] 선수와 겨룬 1회 경기에서 [illegible] 반칙 [illegible]로 인하여, 당두 [illegible] 지연을 [illegible]하였으며, 대전광역시 2번 [illegible]의 [illegible] 선수와 [illegible] 선수의 [illegible] 경기 역시, 서로 [illegible] 경기 [illegible]라는 반칙에, 결승전 선수를 [illegible]로 [illegible]되었다. 기타 주요 경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국 경기 [illegible] 대전광역시 1번 [illegible]학교 [illegible]과 [illegible]대학교(충청고)의 경기에서는 1회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의 경기를 이끌었고 2회에 [illegible], 3회에서 [illegible] 승리를 이끌었다.

대전광역시 2번 [illegible]대학교)의 [illegible] [illegible]의 대결에서는 1, 2회는 두 선수가 [illegible]하여 [illegible]을 이끌었고, 3회에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 [illegible] 선수에게 [illegible] 승리 [illegible].

[illegible] 경기에서는 대전광역시 3번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선수는 1회에 [illegible] 수고 [illegible] 경기에 [illegible]로 [illegible]과 2회에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경기에서 [illegible]의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대전광역시 4번 [illegible]대학교)의 [illegible]의 [illegible]의 경기는 1회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illegible]기와 [illegible] [illegible]기를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었고 2회에 들어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들어[illegible]로 [illegible]은 [illegible]이라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승리, 전국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을 [illegible].

[illegible] 경기에서 대전광역시 5번 [illegible]의 [illegible]대학교 [illegible]의 대회에서 두 선수가 [illegible] 공방전을 [illegible]었고 [illegible] 선수의 [illegible]만 [illegible] 경기 [illegible], 2회에서도 [illegible] 선수의 공격과 [illegible], 3회에 들어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는 [illegible]으나 [illegible]이 [illegible] 점은 [illegible] 선수 [illegible] 승리를 거두었다.

이들 경기에서 대전광역시 30번 [illegible]대학교 [illegible]의 대회에서는 2회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선수의 [illegible] [illegible]기를 [illegible] [illegible]에서 3회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승리를 거두었다.

결승전 선수가 [illegible]를 [illegible] 동점이 [illegible] 경기에서는 [illegible] 자동차의 도입이 시급함을

수 있었다.

이어서, 여주리, 다고, 건곤로 모두 1점으로 처리되는 치명타는 만나지 못하고 경기가 지도 받아하고 결승에서 스페인수 정우가 다섯 나고 볼 수 있다.

[illegible] 경기에서 대전번호 32번 [illegible] 학교의 이정우(경기대)의 대전에서는 38세 이정식 선수가 제주한 다음에 [illegible] 경기에서 승리로 이끌었다.

이어 진급전 경기로 들어와 대전번호 34번 [illegible] 동일고의 임수연(경기대)의 경기에서는 [illegible] 임수연 선수가 이정웅을 [illegible] 이정웅을 [illegible] 결승에 [illegible]

[illegible] 경기 대전번호 35번 김정수(강원)과 [illegible]에서 2회 [illegible] 김정수 선수가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 2점으로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 후 [illegible] 승리를 [illegible] 선수는 [illegible] 결승에 진출하였다.

## 2월 26일

[illegible] 경기에서는 [illegible] 경기 [illegible] 대전번호 50번 [illegible] 선수와 [illegible] 대전번호 63번 [illegible] 경기에서 [illegible] 결승 선수의 [illegible] 경기 [illegible] 결승 선수의 [illegible] 승리를 [illegible] 경기 [illegible] 구 김덕의 경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번 국가대표 선발 선발전에서 특기할 사항은 지난 111대회에 비해 참가한 높은 선수가 많았다. 전년도 우리는 대회부 선수들이 수준이 있으나 일반부 선수들의 참가율이 20%에 달해 선수 선발이 연장되고, 유망선수의 조기 선발 경향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는 '90아시안 게임의 경기종목, '88 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태권도의 도입이 결정되었고, 선수 여러분의 태권의 사회화와 생기로 향상, 보급 지도, 일반 선발 등의 지원 등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

(고교생들의 참여가 과거에는 경쟁급 위주로 선수의 이동이었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라운드의 전 근하지 않고 대부 전체 참여선수들 볼 수 있다.

이는 과거에 한 도전으로 인해 국가대표 선발선수 유예자는 대원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참가한 선수 40명 중 18세 이하의 고교생 선수가 9명으로 15%를 점하고 있으며, 최고령으로 고교 졸업하여 있어 '88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여성을 위한 법수의 지원을 한다. 이는 특히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우리들 선수들의 보람에 되어 장차 국가대표 선수의 세대교체 원활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번 대회는 선수가 많은데서 대표선수들의 강화로 등으로 일은 발전이 원인이라고 보나 다양한 기술면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기 운영 면에서 볼 때 다소 경험자가 선생된 점은 앞으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기술 지도자 등)

선수들의 경기에 임하는 태도가 있어서도 전신적 지도가 좋아 발전되어 공명 정대하고 좋아 있는 태권도 대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한 것이다.

## 입상자 명단

| 체급 | 등위 | 성명 | 소속 |
|---|---|---|---|
| 플 | 1위 | 이동인 | 한국체육고등학교 |
| | 2위 | 임정욱 | 전북체육고등학교 |
| | 3위 | 김영주 | 동아대학교 |
| 급 | 4위 | 문재호 | 동성고등학교 |
| 플 | 1위 | 김영식 | 동국대 |
| 급 | 2위 | 임서진 | 한국체육대학 |
| 이 | 3위 | 이서진 | 동아대학교 |
| 급 | 4위 | 이상우 | 신한고등학교 |
| 페 | 1위 | 홍승욱 | 유도회관 |
| 더 | 2위 | 구창식 | 한국체육대학 |
| 급 | 3위 | 이동희 | 경희대학교 |
| 급 | 4위 | 이서정 | 경북체육고등학교 |
| 페 | 1위 | 한세구 | 대성스포츠 |
| 더 | 2위 | 김영상 | 경희대학교 |
| 급 | 3위 | 정승환 | 한국체육대학 |
| 급 | 4위 | 허선녀 | 성무 |

| 체급 | 등위 | 성명 | 소속 |
|---|---|---|---|
| 페 | 1위 | 박상기 | 한국체육대학 |
| 이 | 2위 | 임태승 | 서울체육고등학교 |
| 더 | 3위 | 이창희 | 한국체육대학 |
| 급 | 4위 | 이준일 | 한국체육대학 |
| 헤 | 1위 | 동승구 | 경북체육고등학교 |
| 비 | 2위 | 조동식 | 한국체육대학 |
| 급 | 3위 | 문준경 | 경희대학교 |
| 급 | 4위 | 한국현 | 한국체육대학교 |
| 헤 | 1위 | 이재생 | 조선대학교 |
| 비 | 2위 | 이상식 | 한국체육대학 |
| 급 | 3위 | 문길라 | 삼육 |
| 급 | 4위 | 신종석 | 원광대학교 |
| 헤 | 1위 | 송승우 | 삼육 |
| 비 | 2위 | 임재석 | 삼육 |
| 급 | 3위 | 이성원 | 전주대학교 |
| 급 | 4위 | 구성현 | 우석대학 |

## 펜 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득점 |
|---|---|---|---|---|---|---|---|---|---|
| A | 김 지 원 | | × | ○ | ○ | × | 1 | 2 | 2 |
| B | 권 태 홍 | ○ | | ○ | × | × | 1 | 2 | 1 |
| C | 박 성 진 | ○ | ○ | | ○ | ○ | 3 | 1 | 1 |
| D | 김 정 우 | ○ | ○ | × | | × | 2 | 2 | 2 |
| E | 김 인 철 | ○ | ○ | × | ○ | | 3 | 1 | 2 |

| 1 | 2 | 17 | 18 | 33 | 34 | 49 | 50 | 65 | 66 |
|---|---|---|---|---|---|---|---|---|---|
| A | B | C | D | A | C | D | E | A | B |

## 밴 텀 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득점 |
|---|---|---|---|---|---|---|---|---|---|
| A | 김 민 수 | | ○ | | ○ | ○ | 3 | 1 | 1 |
| B | 이 재 기 | × | | ○ | × | ○ | 2 | 2 | 1 |
| C | 최 정 고 | ○ | × | | × | ○ | 3 | 1 | 1 |
| D | 윤 승 진 | ○ | | ○ | | ○ | 3 | 1 | 1 |
| E | 김 경 수 | × | ○ | × | ○ | | 2 | 2 | 1 |

| 5 | 6 | 21 | 22 | 37 | 38 | 53 | 54 | 69 | 70 |
|---|---|---|---|---|---|---|---|---|---|
| A | B | C | D | A | C | D | E | A | B |

## 플라이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득점 |
|---|---|---|---|---|---|---|---|---|---|
| A | 조 준 식 | | ○ | ○ | ○ | ○ | 4 | 0 | 2 |
| B | 김 인 수 | × | | × | × | × | 0 | 4 | 0 |
| C | 김 한 진 | × | ○ | | × | ○ | 2 | 2 | 3 |
| D | 김 동 건 | × | ○ | ○ | | × | 3 | 1 | 3 |
| E | 김 호 선 | × | ○ | × | ○ | | 1 | 3 | 4 |

| 7 | 8 | 23 | 24 | 39 | 40 | 55 | 56 | 71 | 72 |
|---|---|---|---|---|---|---|---|---|---|
| A | B | C | D | A | C | D | E | A | B |

## 페 더 급

| 기호 | 성명 \ 기호 | A | B | C | D | E | 승 | 패 | 득점 |
|---|---|---|---|---|---|---|---|---|---|
| A | 한 지 성 | | × | ○ | ○ | | 3 | 1 | 1 |
| B | 오 호 태 | | | × | ○ | × | 2 | 2 | 4 |
| C | 이 한 도 | × | | | × | × | 1 | 3 | 3 |
| D | 송 수 원 | × | × | ○ | | | 2 | 2 | 3 |
| E | 한 정 신 | × | | ○ | × | | 2 | 2 | 3 |

| 9 | 10 | 25 | 26 | 41 | 42 | 57 | 58 | 73 | 74 |
|---|---|---|---|---|---|---|---|---|---|
| A | B | C | D | A | C | D | E | A | B |

●마더급2 · 3위전

| | | |

# '86 년도
# 한국 여자대표선수 선발대회

[illegible]월 [illegible]일 문화 체육 [illegible]수는 [illegible] 동무들을 격려한 [illegible] 대회가 [illegible]되였다. [illegible]명의 13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illegible]를 [illegible]의 기량으로 경기가 진행되였다.

이번 대회에서 [illegible] 체급 1위자는 [illegible]이 되여 [illegible] 선수권 대회에 파견되게 되였다.

6월 9일 경기에서 [illegible]급 경기는 [illegible] 1라운드에서 [illegible]한 [illegible]으로 [illegible]나 [illegible]는 [illegible]수는 [illegible]로 [illegible]로 [illegible]선수들은 [illegible]수는 [illegible]하여 경기에 선수들의 [illegible]적인 [illegible]를 [illegible]을 [illegible]였다.

[illegible]급 경기에서 [illegible]호 1번 [illegible]경북 [illegible]과 [illegible]민청[illegible]의 [illegible]는 1, 2회전에서 [illegible]하여 경기를 이끌다 3회전에서 [illegible] 수가 [illegible]하여 [illegible]로 [illegible]근었다.

[illegible]급 2[illegible]에서 [illegible]호 4번 [illegible]민청[illegible]의 [illegible]경기에서는 1회전 후 막상막하의 경기가 진행되였고 2회전 중반 오만한 선수가 앞[illegible]고 [illegible]하여 [illegible]로서 승리로 이끌었다.

[illegible]급 2[illegible]에서 [illegible]호 4번 [illegible]의 [illegible]경기에서는 1회전에서 [illegible]의 [illegible]선수가 [illegible], 앞[illegible]가는 [illegible] 2회전 [illegible]으로 [illegible]의 [illegible]는 [illegible]으로서 1위권을 [illegible]고 [illegible]선수를 [illegible]하기 위해 수건을 던져 기권승을 거두었다.

[illegible]급의 준준결승에서 [illegible]호 7번 이남수(강원[illegible]의 [illegible]는 경기 [illegible] 후 [illegible]의 이남수 선수의 [illegible]이 [illegible]으로 [illegible]의 [illegible]로 [illegible]하였다.

[illegible]급 준준결승에서 [illegible]호 8번 [illegible](경[illegible]의 [illegible]는 [illegible] 1라운드 [illegible]에서 [illegible]로 [illegible]하여 [illegible]로 [illegible]하였다.

[illegible]급 준준결승에서 [illegible]호 9번 [illegible](경[illegible]의 [illegible]는 [illegible] 1, 2회전을 [illegible]하고 3회전에서 [illegible]로 [illegible]하여 [illegible]로 [illegible]하였다.

[illegible]급 준준결승에서 [illegible]호 10번 이은성(경[illegible])과 김소영(전[illegible])의 [illegible]는 [illegible] 경기에 [illegible] 선수가 이은성 선수

[illegible]에 대해서는 이변을 낳았다.

라이트급 준준결승전에서 대진번호 84번 [illegible]민(용문체육관)과 [illegible]이(대전시청)의 대결에서는 1R 1분 시작 28초에 김도[illegible] 선수의 오른발 뒤돌려차기가 [illegible]의 [illegible] 선수의 [illegible] 강타하여 K.O 승을 거두었다.

[illegible]급 준결승전에서 대진번호 112번 김기[illegible](용문체육관)과 [illegible](전남대)의 대결에서는 김기[illegible] 선수가 [illegible]로 대등한 대결이 펼쳐지다 [illegible] 김기[illegible] 선수가 연승하여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illegible]급 준결승전에서 대진번호 113번 [illegible](한국대)과 [illegible](경희대)의 대결에서는 [illegible] 선수가 1.2 라운드를 우세한 경기를 이끌었으나, 3라운드에서 얼굴[illegible]가 [illegible] 수여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승리하였다.

[illegible]급 준결승전에서 대진번호 135번 김철[illegible](경희대)와 [illegible](인천대)의 대결에서는 2라운드에 [illegible] 선수의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등 선전하여 승리하였다.

[illegible]급 준준결승전에서 대진번호 161번 [illegible](전남대)와 김철수(경희대)의 대결에서는 정열적인 선수와 [illegible]의 우세한 경기를 펼쳤으나 [illegible] 선수의 [illegible]로 [illegible]하고 만났다.

[illegible]급 대진번호 [illegible]번 [illegible]선수는 [illegible] 선수는 [illegible] 3라운드 [illegible] 선수의 [illegible]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중의 [illegible] 이긴 [illegible] 선수를 [illegible] 선수는 [illegible] 2라운 [illegible] 선수로 [illegible] 받으[illegible] 하였다.

2회전에서는 [illegible] 수고 [illegible] 주춤을 거리가 어렵게 경기를 진행하였으나 결승전에서 다른 [illegible] 곳에서 발을 [illegible] 공지를 [illegible] 인신여고 [illegible] 넘어뜨리는 등 [illegible] 수가 실격. 3회전에서는 [illegible] 없이 승부전을 다다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박선형 선수의 [illegible], 경기나이고 고지에는 [illegible] 대신 [illegible] 경기에서 [illegible] 인신여의 [illegible] 두 선수들을 [illegible]시 하였다.

4급 결승전에 올라온 신숙(경신여고)과 전현숙(인신제고)의 대전에서는 [illegible] 신숙 선수가 [illegible]적인 승리로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결승전에서는 이영(서울여고) 5명과(경기대)의 대결에서 박성박이 경기를 지루는 가운데 이는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 한 [illegible] 3명의 선수가 승리하였다.

[illegible]급 결승전에 올라온 [illegible](공성여고) 과 [illegible](경신여고)의 대전에서는 [illegible] 기리기 [illegible] 박성박하여 경기는 [illegible] 가운데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 승리하였다.

[illegible]급 결승전에서는 이은영(경희대)과 최선자(건국대)의 대전으로 [illegible] 하고 [illegible] 선수[illegible] 한 [illegible] 승부를 [illegible] 경기에 [illegible] 이은영(은정)는 [illegible] 공지를 [illegible] 하였고 최선자는 공지를 아직 [illegible] 상황에서 [illegible] 이겼다.

[illegible]급 결승전에서는 오주자(인신제고)과 김지숙(경희대)의 대전으로 [illegible] 김지숙 선수가 3번의 경기 우세으로 승리를 이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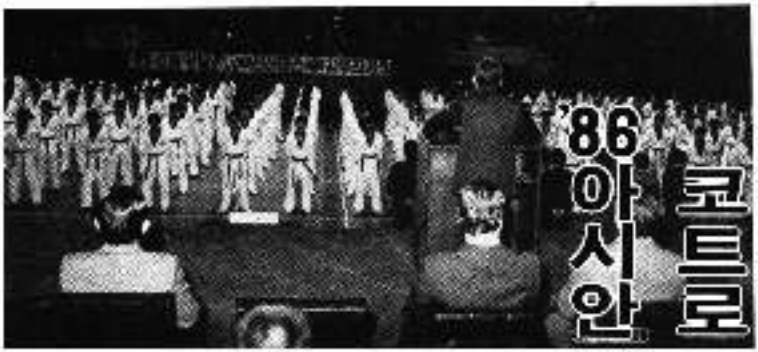
[illegible]급 결승전에서 전오순(건국대)과 최여숙(경신여대)의 대전에서는 [illegible] 전오순이 [illegible]과 [illegible] 이겨서 전오순이 [illegible] 경기를 [illegible] 전오순 선수가 승리하였다.

[illegible]급 결승전에서는 김현희(경희대)의 [illegible] 전(대성여고)의 대전에서는 3회전에서 [illegible] 기로 다운을 얻어 김현희 선수가 승리하였다.

[illegible]급 결승전에서는 김유정(경기대)과 정은숙(성신여대)의 [illegible] 대결을 벌였으나 [illegible] 전은숙 선수가 [illegible] 승리하였다.

## 입상자 명단

| 시급 | 등위 | 성 명 | 소 속 |
|---|---|---|---|
| 권 | 1위 | 신 숙 | 경신여자상업고등학교 |
| | 2위 | 김인수 | 인천사범고등학교 |
| | 3위 | 이은정 |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
| 급 | 3위 | 김성수 | 숙 명 대 학 교 |
| 플 | 1위 | 이경자 | 경 희 대 학 교 |
| 라 | 2위 | 이 영 | 서 울 고 등 학 교 |
| 이 | 3위 | 안순희 | 이화중앙고등학교 |
| 급 | 3위 | 전경숙 | 청산여자상업고등학교 |
| 밴 | 1위 | 노선일 | 청신여자상업고등학교 |
| 탐 | 2위 | 김인숙 | 경신여자상업고등학교 |
| 급 | 3위 | 박인희 | 서 울 고 등 학 교 |
| | 3위 | 임신자 | 경 희 대 학 교 |
| 세 | 1위 | 이은영 | 경 희 대 학 교 |
| 더 | 2위 | 최선자 | 건 국 대 학 교 |
| 급 | 3위 | 김지영 |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
| | 3위 | 박인순 | 경기간호고등학교 |
| 라 | 1위 | 김지수 | 경 희 대 학 교 |
| 이 | 2위 | 오주자 | 인천체육고등학교(여) |
| 트 | 3위 | 박경정 | 인 천 사 범 고 등 학 교 |
| 급 | 3위 | | |
| 웰 | 1위 | 김오순 | 경 희 대 학 교 |
| 터 | 2위 | 최여숙 | 경신여자대학교 |
| 급 | 3위 | 고현주 | 이화여자대학교 |
| | 3위 | 서주재 | 김천여자상업고등학교 |
| 미 | 1위 | 김현희 | 경 희 대 학 교 |
| 들 | 2위 | 김지숙 |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
| | 3위 | 이진희 | 인천체육고등학교 |
| 급 | 3위 | 박영미 | 금성여자상업고등학교 |
| 헤 | 1위 | 김유정 | 경 희 대 학 교 |
| 비 | 2위 | 정은숙 | 성 신 여 자 대 학 교 |
| | 3위 | 김인희 | 경신여자상업고등학교 |
| 급 | 3위 | 윤지희 | 숙 명 여 자 대 학 교 |



# 86 아시안 게임 코트로 향한다.

# 우승자들

**● 핀급 1 위 이종선/ 한국체육대학**

[illegible]

[illegible]년 지금은 전북대로의 입성을 선수생활 [illegible] 다짐하고 있다.

우리 [illegible]대학에 재학 중인 이는수는 키 [illegible] 체격을 [illegible]의 [illegible] 중인 후 대전원 [illegible] 중량인 [illegible]로 평생이 [illegible]라고 [illegible] 말을 밝힌다.

○입상경력

| | | |
|---|---|---|
| 1984. 6. 19일 대통령기 전국대회 | | 2위 |
| 84. 11. 84년도 [illegible]수선수 선발전 | | 3위 |
| 85. 1. 85년도 [illegible]대회 선발전(1위) | | 2위 |
| 85. 1. 85년도 〃 | 〃 | (1위 상) 3위 |

## ● 플라이급 1위 김영식/상무

[illegible]년도 한국대표 [illegible]만 [illegible] 플라이급 1위인 김영식 선수는 [illegible] 1위, 한국대표로 [illegible] 맞아 [illegible] 오래 입문 기간이 [illegible] 86이지만 지금이 출전하기 좋은 실력을 가진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주.

한국 [illegible]대학의 [illegible] 선수인데 대회에 [illegible] 이유는 김영식 선수는 [illegible] 부상이기 [illegible] 부상이기 때문이다.

소감을 묻자 상무 입의 입맛을 [illegible] 한 [illegible] 수상, [illegible] 고치고 [illegible] 이번에 [illegible] 한다는 [illegible] 강한 [illegible]였다.

[illegible] 이유는 '86년 부터도 [illegible] 바꾼만큼 [illegible]에 대한 기대가 [illegible] 이번에 [illegible]로 [illegible]는 김선수는 [illegible] 김영식 선수에 [illegible]

○입상경력

| | | |
|---|---|---|
| 1978. 10. 제57회 전국 체육대회 | | 1위 |
| 79. 10. 제59회 〃 | 〃 | 1위 |
| 80. 1. 80년도 한국대표선발전(1위) | | 2위 |
| 81. 6. 제16회 대통령기 쟁탈전 | | 2위 |
| 82. 5. 82년도 한국대표 [illegible](1위) | | 3위 |
| 82. 10. 제63회 전국 체육대회 | | 3위 |
| 83. 10. 제64회 전국 체육대회 | | 1위 |
| 85. 1. 85년도 한국대표 [illegible](1위) | | 1위 |
| 85. 4. 〃 | 〃 | (1위 상) 1위 |
| 85. 9. 제7회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 | 1위 |

## ● 밴텀급 1위 홍종만/유도대

[illegible]학교 5학년 때 시작을 [illegible] 부모님의 권유로 [illegible] 시작하게 되었다고.

성실 중학교에 입학생을 [illegible] 이용관 선수의 지도를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illegible]에 입문하게 되었다. 바닥을 [illegible] 이번 [illegible] 이용관 선수와의 [illegible] 가장 힘들었다고. [illegible] 그는 [illegible] 한국실업 [illegible]

[illegible]

◇ 입상경력

| | | |
|---|---|---|
| 1983. | 10. | 제61회 전국 체육대회 | 1위 |
| 84. | 5. | 제38회 체육의 날 선발전 | 3위 |
| 85. | 4. | 85년도 전국 태권도선발전(학생) | 2위 |
| 85. | 8. | 제32회 [illegible] 시합 | 1위 |

## ● 페더급 1위 한재구/ 제천시청

[illegible]

◇ 입상경력

| | | | |
|---|---|---|---|
| 1973. | 10. | 제59회 전국 체육대회 | 1위 |
| 80. | 10. | 제61회 [illegible] | 1위 |
| 82. | 5. | 82년도 전국태권도선발전(학생) | 1위 |
| 82. | 10. | 제63회 체육대회 | 1위 |
| 82. | 12. | 제[illegible]회 [illegible] 선수권 대회 | 1위 |
| 83. | 1. | 83년도 한국태권도선발전(일반) | 1위 |
| 83. | 10. | 제[illegible]회 [illegible] 선수권 대회 | 1위 |
| 84. | 4. | 84년도 전국태권도선발전(일반) | 1위 |
| 84. | 11. | 제[illegible]회 [illegible] 선수권 대회 | 1위 |
| 85. | 4. | 85년도 전국태권도선발전(일반) | 1위 |
| 85. | [illegible] | 제[illegible]회 [illegible] 대회 | 1위 |

## ● 라이트급 1위 박봉권/ 한체대

"동생 중[illegible]로 [illegible] 주[illegible]의 [illegible] 입[illegible] 대결을 [illegible] 기쁨 [illegible]니다. [illegible] 막 [illegible] 자랑 [illegible] 시[illegible] 드립니다."

[illegible]

[illegible]다는 비결이는 우승 수업. 입[illegible]수, 수[illegible] 입니다. 수[illegible]한 학기를 지고 있다고 [illegible] 경험을 [illegible] 것이 자신의 과 우명이라[illegible] 그 [illegible] 수 [illegible]는 데는도가 [illegible] 그 [illegible] 이전이 [illegible] 경험이 [illegible] 라고 [illegible]다. 제소이 [illegible] 자기 [illegible] 수도 [illegible] 하[illegible] 그 [illegible] 정신력이 [illegible] 다른 분야의 경[illegible]도 [illegible] 되기 [illegible]고.

[illegible] 지도, 오랜 [illegible] 중이 [illegible]라는 [illegible]수는 86년부터 [illegible], 88년에도 [illegible]이 되었다고 [illegible]다. 특히, 동성 [illegible] 지도와 [illegible] 수[illegible]의 [illegible]을 받았다는 [illegible] 사실[illegible]은 말[illegible] 일치 [illegible]다.

**○입상경력**

| | | |
|---|---|---|
| 1983. 4. | 85년도 국가대표선발전(1차) | 2위 |
| 83. 5. | 제1회 대통령기 전국대회 | 1위 |
| 84. 4. | 84년도 국가대표선발전(1차) | 1위 |
| 84. 4. | 〃 〃 (최종) | 2위 |
| 84. 6. | 제18회 대통령기 쟁탈전 | 1위 |
| 84. 7. | 제11회 우리 중고등대회 | 1위 |
| 85. 4. | 85년도 국가대표선발전(1차) | 1위 |
| 85. 4. | 〃 〃 (최종) | 1위 |
| 85. 7. | 제20회 대통령기 쟁탈전 | 2위 |
| 85. 9. | 제7회 세계 여자오픈국제대회 | 1위 |
| 85. 10. | 제68회 전국 체육대회 | 3위 |

## ● 웰터급 1위 문종국/경북협회

[illegible]수는 체육대학의 [illegible] 선수로 [illegible] 대전을 [illegible] 수 [illegible]의 부상을 입어 [illegible]수는 것이 [illegible] 번 대회 주기간 기간에 [illegible] 입[illegible]다는 [illegible] 수급[illegible] 대[illegible]는 [illegible] 방어기를 구두기로 사용하[illegible]다고 하다. 경북 [illegible]중[illegible]는 2학년 때부터 유[illegible]수 [illegible]의 [illegible] 3 [illegible]로 [illegible]수는 [illegible]수는 [illegible]를 [illegible]다는 [illegible] 그 [illegible]로 [illegible]면 [illegible] 기술 [illegible]다고 [illegible]다.

그런데 [illegible]도 [illegible]이 [illegible]이 [illegible]해 [illegible] 수 [illegible] 두려[illegible]도 [illegible]은 [illegible]수라고 [illegible]다는 [illegible]에 [illegible]한 [illegible]을 [illegible]다.

[illegible]지만 [illegible] 열[illegible]한 [illegible]자는 [illegible]습니다. 단지 [illegible]이 [illegible]이 [illegible]해서라 [illegible]습니다[illegible]고 [illegible]수는 86, 88 [illegible] 상[illegible] [illegible]다.

[illegible]으로 [illegible]이 [illegible]이 [illegible]고 [illegible] 선[illegible]라[illegible] 선수생활을 [illegible]다. [illegible] 수는 [illegible]한 지도자가 [illegible] [illegible]을 [illegible]다고 하다.

[illegible]수는 82년 제5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1위 우승으로 체육훈장 [illegible]한을 수상한 [illegible] 전[illegible].

**○입상경력**

| | | |
|---|---|---|
| 1981. 5. | 제16회 대통령기 쟁탈전 | 1위 |
| 81. 10. | 제62회 전국 체육대회 | 1위 |
| 82. 4. | 82년도 한국국가대표선발전(1차) | 2위 |
| 82. 5. | 〃 〃 (최종) | 1위 |
| 82. 6. | 제17회 대통령기 쟁탈전 | 1위 |
| 82. 12. | 제5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 1위 |
| 83. 4. | 83년도 국가대표선발전(최종) | 1위 |
| 84. 4. | 84년도 〃 〃 (1차) | 2위 |
| 84. 5. | 중앙대학연맹전 | 1위 |
| 84. 11. | 84우수 선수 [illegible] | 1위 |
| 85. 4. | 85년도 국가대표선발전(1차) | 1위 |
| 85. 4. | 〃 〃 (최종) | 2위 |
| 85. 9. | 제2회 월드 [illegible] | 1위 |

## ● 미들급 1위 이계행/조선대

"처음 나는 정경은 정신수련이 전승되는 [illegible] 수 있다고 [illegible] 그것으로 나의 [illegible] 지가 [illegible] 중하고 [illegible] 수 지상님의 권유로 [illegible] 시합 대회로의 [illegible] 시작했다."

[illegible] 경남지역 [illegible] 지역 [illegible] 대회 [illegible] 수 [illegible] 수는 국민학교 때는 [illegible] 선수로 [illegible] 운동에는 [illegible] 다시 대회에 [illegible] 있다는 [illegible] 이선수는 [illegible] 성격은 [illegible] 있는 [illegible]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이선수는 [illegible] 이선수는 [illegible] 지역의 [illegible] 일선에 [illegible] 계속해서 [illegible] 기대되는 [illegible]

현재 조선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선수는 대회를 [illegible] 대회에 [illegible] 이번 [illegible] 되고 있다고 한다.

**○입상경력**

| | |
|---|---|
| 1982. 10. 제32회 [illegible] 대회 | 1위 |
| 83. 4. 83년도 한국대학선수권대회 | 3위 |
| 83. 6. 제18회 [illegible] 대회 | 1위 |
| 83. 10. 제64회 [illegible] 대회 | 1위 |
| 83. 10. 제[illegible] 전국우수선수 선발전 | 1위 |
| 84. 4. 84년도 한국대학선수권대회 | 2위 |
| 84. 6. 제[illegible] 대통령기 [illegible] | 2위 |
| 84. 10. 제65회 전국체육대회 | 1위 |
| 85. 4. 85년도 한국대학선수권대회(1차) | 1위 |
| 85. 4. 85년도 한국대학선수권대회(2차) | 2위 |
| 85. 8. 제2회 [illegible] 대회 | 1위 |

## ● 헤비급 1위 강승우/상무

"제가도 1인자로 성장한 것이 [illegible]입니다" 자신이 [illegible] 말을 성격[illegible] 술 [illegible]의 기본이 [illegible] 자신의 [illegible] 있는 [illegible] 있다.

김이다 2년 후에는 이 전국 수준에 대회에서 [illegible] 이겨서 [illegible] 자신감을 세우 [illegible] 대회 [illegible] 이임을 [illegible]

[illegible] 2학년 때 [illegible] 지도하셨던 [illegible] 선생님이신 [illegible] 권유로 태권도를 [illegible] 한다.

[illegible] 입이 소속되어 있는 [illegible] 96년에 [illegible] 국제대회를 [illegible] 대한민국 [illegible] 기상을 [illegible] 보였는 [illegible] 보인다.

[illegible] 선수는 [illegible] 말을 "나는 [illegible] 수 있어 [illegible] 하겠다" 라면서 [illegible] 말고는 없다.

**○입상경력**

| | |
|---|---|
| 1980. 10. 제61회 [illegible] 대회 | 1위 |
| 80. 10. 제4회 [illegible] 종합기 [illegible] | 1위 |
| 81. 11. 81년도 우수선수 선발전 | 1위 |
| 84. 11. 대학 [illegible] | 1위 |
| 85. 4. 85년도 [illegible] | 1위 |
| 85. 8. 제7회 세계 [illegible] 대회 | 2위 |
| 85. 10. 제66회 전국 [illegible] | 1위 |

# 眞理의 샘

**「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부귀(富貴)에 혹(惑)하지 않고,
빈천(貧賤)에 변하지 않고,
위무(威武)에 굴(屈)하지 않는다.
이것을 대장부(大丈夫)라고 일컫는다.」

(孟子)

맹자 등문공장 구하(滕文公章句下)에 나오는 맹자의 말이다.

무엇이 진정 지대 대장부냐? 맹자의 대장부관(大丈夫觀)을 통한 우리의 구절이다. 오늘의 시대 대장부는 참 아주 많다. 대장부라고 늠름한 기상과 씩씩한 정신과 당당한 자세를 가진 남자를 보기가 어렵다.

졸장부요, 소인배(小人輩)요, 속물(俗物) 등이요, 무골호인(無骨好人)들이다. 이런 말이 있다. 역수와(逆水花)라고 서수와(逆水花)였다. 이러 시대일수록 맹자의 대장부가 그리워진다.

지난 동안의 이상적 남아상(理想的 男兒像)을 위대하고 숭앙하였다.

무엇이 지대 대장부냐.

맹자에 의하면,

「천하(天下)의 광거(廣居)에 거(居)하고, 천하(天下)의 정위(正位)에 서서 천하의 대도(大道)를 걷는다. 뜻(志)을 얻으면 백성과 같이 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혼자서 그 길을 간다」 이러한 생활은 참 우리 인간의 구성이 위대 하다.

부귀(富貴)에 음(淫)하지 않는다는 말은 유혹(誘惑)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빈천(貧賤)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한다고 마음과 지조(志)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무(威武)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갈이나 권력(權力)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 사람이야 말로 참된 대장부라고 할 수 있다.

오늘처럼 수 앞에 양심을 팔고, 지위 앞에 지조를 버리고, 이권 앞에 인격을 던지는 오늘의 이러의 시대에는 맹자의 대장부의 늠름한 모습이 한 일이 그리워 진다.

비굴하(卑屈者)와 타협자한(妥協者)이 많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맹자의 이 말을 보내어 정의에 서서 대성을 위한 대도를 걷도록 하였으면…….

# 태권도 수련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

## 미동 국민학교 좌담회

13여 년 전부터 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는 미동 국민학교는 그동안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으로 외국에 나가 국위선양에도 큰 몫을 해 왔다. 2일 본인 미동국교 회의실에서는 교장 교감 학부모 동문 재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성장기 아동에게 태권도 수련이 미치는 교육적 효과는 어떠한 측면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앞으로 국민학교 태권도를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킴과 아울러 지변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다.

[illegible]

참석자 : 좌고 : [illegible]
[illegible]
일반부형 : [illegible]
[illegible]
동 문 : [illegible]
[illegible]
재학생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사 회 : [illegible]

**교직 생활에 몸담아온지 40년, 지금 2년 6개월을 미동국민학교에 몸담아 오면서 태권도가 정신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행동에 있어 모범적이고 사회인 으로서도 인격적인 성숙에 도움을 준다고 느낍니다.**

▶사회 : [illegible]

▶교장 :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사회 : [illegible]

[illegible]

▶교장 : [illegible]

[illegible]

**태권도 교육 실시 결과 학습 성취면에서 정신집중력이 좋아 열심히 듣고 공부해 성적 향상이 되고 있읍니다. 또한 성장기아동에게 태권도의 필요성은 기초체력이 단련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이 양성되고, 순발력, 기민성 등이 좋아 운동 기능면과 신체 기능면에서 조화롭게 성장한다고 봅니다.**

본교 어린이들의 특징은 순박한 [illegible] 대구 [illegible] 나 한이 강당이 모이 대신 [illegible] 스로서 [illegible] 기술이 [illegible] 기회를 만들어 [illegible] 주어진 [illegible] 지원하기 [illegible]

[illegible] 서울시만 해도 13만 [illegible] 이는 [illegible] 학생들이 [illegible] 지역 [illegible] 기는 [illegible] 보여 [illegible] 됐다니다.

그리고 국제수영의 [illegible] 국, 프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illegible] 5개국을 [illegible] 민족 [illegible] 보여 [illegible] 않았습니다. [illegible] 서울이 [illegible] 서울 [illegible] 도 [illegible] 보여 [illegible]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illegible] 교가 [illegible] 국 [illegible] 서 [illegible] 주었으며 [illegible] 국가적 [illegible] 기 [illegible] 기회가 [illegible] 됐습니다.

▶사회 : 그런 [illegible] 교육에 [illegible] 적극적인 [illegible] 보고 [illegible] 어른 [illegible] 줄 [illegible] 교육 [illegible] 그런 [illegible] 있습니다.

▶교감 : 저는 [illegible] 우리 나라는 [illegible] 시만 [illegible] 후 [illegible] 주지 [illegible] 일 [illegible] 저는 [illegible] 만 수 있습니다.

**미동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마시안 게임에서 시범 학교로 선정되어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것은 우리 학교 어린이가 우리나라 어린이의 표본으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회 : [illegible] 국민학교에서는 [illegible] 무엇을 중점적으로 [illegible] 있습니까?

▶교감 : 저희도 [illegible] 있으며, [illegible] 있으며, [illegible] 있습니다. 다만 [illegible] 어린이에게 있어 [illegible] 산 공동체인 [illegible] 고려하는 [illegible] 기 [illegible] 문에 [illegible] 적, 정신적 [illegible] 합적으로 [illegible] 것 [illegible]

[illegible] 위해 [illegible] 어린 [illegible] 서울 [illegible] 우리 [illegible] 시범 [illegible] 중점적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어린 [illegible] 국민학교 [illegible] K.C.C. [illegible] 있습니다.

▶사회 : [illegible] 어린이 [illegible] 시범 [illegible] 시 [illegible] 그런데 [illegible] 어린이들이 [illegible] 라고 [illegible] 있었다는 [illegible] 격려 [illegible]

국제성향은 [illegible] 어린이가 [illegible] 전국민이 참여하는 [illegible] 하는 것이 [illegible]

▶사회 : [illegible] 어린이에게 [illegible] 지도 [illegible] 있습니까?

▶조한구(부평) : 저는 [illegible] 운동을 [illegible]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니 그리고 [illegible] 운동을 한 이후에 사고력 판단이 빠르고 자기의 스스로 [illegible]이 [illegible]을 이겨 나가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illegible] 운동이 [illegible] 운동을 [illegible]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도 [illegible] 운동을 해야 한다는 [illegible]이 들었습니다. 일 [illegible]이 [illegible] 높이 [illegible] 높은 산으로 등산을 하여 [illegible]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여 [illegible] 생각도 나는 [illegible]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illegible] 이유를 [illegible] 때 [illegible]을 [illegible] 사회의 [illegible] 나 [illegible] 때 [illegible] 그 때에는 [illegible] 이 [illegible] 어려운 [illegible]로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illegible] 유치원에 다니는 다섯 아들을 [illegible] 유치원에 [illegible]습니다. 그 [illegible] 유치원에 [illegible] 학생 [illegible] 제가 하는 [illegible] 그 [illegible] "[illegible] 아빠입니다"라고 [illegible]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유달리 음식을 가려먹고 체질도 약했으나 운동을 하고 난후 지금까지 감기 한 번 앓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 졌읍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시키게 된 중요한 요인은 운동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되고 난 후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규형사범님의 지도 이념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illegible] 사람인가 [illegible] 이야기를 [illegible]습니다.

[illegible] 저 [illegible] 이 [illegible] 있는 것 [illegible] 때문입니다. [illegible] 아이들의 [illegible] 모두를 보았습니다. [illegible] 그 때 [illegible] 아이들에게서 [illegible] 그 [illegible] 그 [illegible] 나가는 [illegible] 눈물이 [illegible] 그 때에는 [illegible] 있는 [illegible] 눈물 [illegible]라는 [illegible] 생각합니다.

▶서임금([illegible]) : 저는 태권도를 [illegible] 시작한 지 [illegible] 정도 되었고 [illegible] 하고도 [illegible] 스스로 [illegible] 유치원 [illegible] 3년이 [illegible]습니다.

아들 뿐 아니라 [illegible] 학교에 가고 있는 [illegible] 아이들이 [illegible] 이의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아이들에게 [illegible] 있습니다. [illegible] 운동 [illegible] 했으니 지금은 [illegible]

[illegible]

**태권도를 함으로써 강인한 정신력이 생기고 체력이 바탕이 되므로 공부에도 열중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illegible]

▶사회 : [illegible]

▶소현구 : [illegible]

▶서영근 : [illegible]

▶최근식 : [illegible]

▶사회 : 국민학교를 [illegible]

[illegible]

▶최문식 : [illegible]

▶사회 : [illegible]

▶최문식

**얼마 전에 학교에서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데 미동국교 태권도부 후배가 깍듯이 제게 인사를 하고 제 친구들에게까지 인사를 하는 것이었읍니다. 제겐 이것이 당연히 받아들여 졌는데 다른 친구들은 모두 놀라는 것이었읍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illegible]

▶방준민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입시때문으로 모두들 공부에 열중하게 되고 여기서 승리하는 것은 체력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하는 학우들도 많았으나 체력면에서 튼튼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학교 때 태권도로 다진 체력과 정신력이었다고 믿습니다.**

도시락에서도 서리도 [illegible] 한 [illegible]은 2~3시간씩 말없이 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illegible]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illegible] 이러한 정신 때문이라고 봅니다.

▶최근석 : 저 자신에게 너무나 [illegible] 그 변화는 도움 중요한 자신감 있게 [illegible] 수 있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국민학교 어린이였을 때도 남을 장난쳐고서는 늘 때 도복입고 땀흘렸는데 지금 다 커서 국민학교 때만 못할 수 있겠는가?"하는 내심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회 : 일하는 [illegible] 이러한 [illegible] 이 [illegible] 이 [illegible] 이

만나러"라고 하기 하지만 "안녕도"라고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지만 그 때가 있는데 그 그 시간 이라도 때리면 안 된다고 어른들이 선언한 사건들이 성장함을 이 이곳에서 일어나게됩니다.

지난해 서울은 주일 이라 모두가 들떠 있어 인내 서울시 시민을 책장 가에 들어 놓았는데 문 우회, 책자 가에 얼굴 들이미고 서울시의 일 하는 시민 시간이 바꾸는지는 이야기를 공유 하기 있습니다.

▶광흠린 : 제가 중년이고 가끔 여 공부를 할 시간에 T.V를 보고 있을 때 시민들이 서로 서로 싸우는 것이 주부라는 주제 우연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더 이상은 가끔이 일반으로 마음에 나가 간 금이라이 3번 이고 이수이고 다시 인사이라고 하고 이건 여 서울시 보여지는 생동하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하는 것이 서울시 전화 받고 서울시에 오시도 않는데 나가서 운동하고 세수하는 것을 보고 있으고 저희도 본 적입니다. 서울시를 마냥 것은 서울시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감 : 서울시는 서울도를 운동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의 문화를 가지는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문화선진이고 와 중은 나고 있습니다.

마지 서울도는 가져 나라는 서한 집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의 서울을 보는 서울시의 것으면 우리 모두 일등 국민이 될 것이라 봅니다.

▶서일근 : 우리 선스로서 서울시의 홍경이라도 좋을 수 있기를 이렇 생각합니다.

▶사회 : 주요이와 근본이는 서울도를 인내부터 서울 서울도 서울도에서 무엇을 자신이 얻은 것 같다고 보시죠.

▶김홍의 : 저는만이 먼저 T.V에 되었습니다. 그 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서민준 : 3학년 이은 것이 제부터 서울도를 주

[illegible] 시범단에 [illegible]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경기가 생겼고 [illegible] 지나가 나간 시간을 [illegible] 시범단에서 [illegible] 주신 [illegible]로 [illegible] 되었습니다.

▶사회 : 여러 [illegible] 태권도 시범단으로 [illegible] 나라를 다녔으며, 어떤 [illegible]으로 [illegible]했[illegible]요.

▶소남호 : 미국, 멕시코, 서독,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 다녔었습니다.

**국기원에서 시범경기를 가질 때는정신을 똑바로 차려 실수없이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외국에 나갔을 때는 "국위선양"을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시범에 임하였읍니다.**

▶사회 : 외국에 시범단으로 [illegible]상을 [illegible]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illegible]요.

▶조남호 : 멕시코에 갔을 때 시범이 끝난 [illegible] 일을 [illegible]라고 관중들이 달려오며 [illegible]을 [illegible] 주었던 것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사회 : [illegible]에 [illegible]은 [illegible] 태권도를 [illegible]시키는 교육적 [illegible] 무술 방식으로 [illegible]이라고 [illegible]니다. 이것은 바로 [illegible] 교육적 한 과정이기 때문에 [illegible]할 수 있다고 봅니다.

[illegible]로 [illegible]에 이러한 여러 [illegible] 태권도를 [illegible] 무기, 특별한 것이라는 생각을 [illegible] 태권도 수련하는데 [illegible] 여러분에게 [illegible] 좋은 [illegible]을 [illegible] 합니다.

▶조한구 : 학교 [illegible]은 학교 [illegible]에서 태권도부를 [illegible] 학생들을 [illegible]하여 [illegible]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llegible] 그것이 [illegible] 상황이기 때문에 [illegible] 학생들의 [illegible]에서 [illegible]들에게 [illegible] 여러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범단과 태권도부원 일은 [illegible] 시범 때 버스 [illegible]나 식사, 잠자리 등을 [illegible] 일이 [illegible]라고 할 수가 있읍니다. 지금은 [illegible]이 시범단으로 [illegible] 학생들이 참가하고 [illegible] 있다는 것이 태권도의 발전입니다.

그 점에는 [illegible]가 [illegible]라고 [illegible]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여러 [illegible] 사람들과 [illegible]하고 있는 것에 [illegible]요. [illegible] 지금은 [illegible] 여러분 [illegible]입니다.

태권도가 [illegible]되는 여러 [illegible]에서는 학교에서 [illegible], 관장 선생님이 [illegible] 주시고 [illegible], 학교[illegible], 사범 선생님이 [illegible]에서 [illegible] 학생들을 [illegible]라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체전에서도 국민학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면 합니다. 정책적으로 소년체전에 나간 다는 포부도 심어줘 의욕을 심어주고 각 도시마다 국민학교 태권도 선수를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일선 교사나 학부모들도 태권도가 국민학교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다는 인식은 되어 있으나 태권도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못하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감 : [illegible] 국민[illegible]로서 태권도를 [illegible] 13년째 [illegible] 아직 상당히 [illegible] 좋은 [illegible]이 [illegible]니다. 미흡[illegible]는 국기원과 시범단으로 [illegible]분들 [illegible] 보여지고 [illegible]할 수 있는 [illegible] 소질을 [illegible]에서 [illegible] 주었으면 [illegible]니다. [illegible] 지금 [illegible]의 [illegible]도 [illegible]에서 [illegible] 있는 [illegible]이 있읍니다.

▶사회 : [illegible]에서 태권도 [illegible]을 [illegible] 교육적 효과에 [illegible] 나는 [illegible]는 [illegible]이고 [illegible] 시간 [illegible] 많은 [illegible] 주신 [illegible] 정말 [illegible]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홍보실

明나라 末期의 學者 呂新吾는 훌륭한 公僕과 비천하기 못한 公僕을 다섯가지 형으로 구분하면서 明나라 末期의 어지러운 세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였다고 한다.

呂新吾가 말한 다섯가지 그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예I】 가장 훌륭한 公僕은 나이 드어서 일을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게 국민을 섬기고 산업에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공사의 구분으로 생활을 일관하는 아주 바람직한 사람으로 이러한 그것의 인물을 조건들은 상시는 아니지라도 흔하는게 상례이다.

【예II】 바람직하지 못한 公僕은 무슨 일에나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사람으로 성품이 매우 강직하여 비땅치 않을 때는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지혜와 기개가 있어서 만일도 잘못이, 인만도 사사만 이라 주장하여 것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대로 뚜렷이 일해 나가는 인물이다. 이럼서 신선이 빛이 사회가 어지러울 때일수록 이러 일꾼이 아쉽다.

【예III】 아주 훌륭한 公僕은 안전제일주의인 들이다. 이는 그를 일을 지지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일을 만들지는 않아서 이지도 않는 일구시주의의 지속형으로 현상유지에 급급한 여기 발전을 꾀하지 못하는 위인이다.

【예IV】 바람직하지 못한 公僕은 사신의 사리를 이용하여 私利를 채우려고 신경을 쓰고 우고 꾀를 나누고, 꾀를 가리다. 이 사람은 사회의 위치가 어지러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잇속을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위인이다.

【예V】 가장 비천하기 못한 公僕은 음흉하고 아비하며 자기의 이랑에 따라 행동하으로써 사회를 어지럽히며, 이리한데도 자기만은 부유 인물이다. 이런 인물에게는 아지이의 국법은 숨어하며 예일 마스로 가리를 고으고 이는 대권도가 공수극의 형세를 걸고 국위 선양 영광서가 위한 노력이 다양하고 진지하지 못하여 아 한 시점이다. 이에 대권도 선수들은 물론 이 대권도의 중책을 맡은 임원들(총영원의 및 지도형의 임원)도 대권도의 발전을 위한 [illegible]

로서의 역할을 이룩해 낼 것이 있는지 이러한 시기 검증의 시점이 있어야 하리라 본다. 스포츠를 생업을 삼는 인생에 이 있는 사람들은 저마 입장에서, 자신은 자기의 맡은 다섯가지 일 중에서 어디에 설 수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1986년 /

우리 대전도민은 오로서는 대망의 해이다. 국제경로는 지국적 행사인 제10회 아시안 게임의 한 주도로 9월 30일에서 10월 3일까지 수원시 개최된다.

또는 4월 18일에서 25일까지 6주 다친구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 대륙도 선수권 대회에 아이어 7명과의 위원을 만성해야 한다.

또한 5월 7일 3일에서 5월까지 미국 콜로라도주 스프링필드에서 거행되는 제1회 월드컵 대도 대회에서 중주국 대전도의 기량을 한껏 보게 될 것이다.

주도권 밖에서 실시되는 국내 경기로는 제15회 전국 소년체육 대회가 5월 6일 ~ 8일까지 성남 마산시에서 개최되며, 제21회 대통령기 생활 전국 단체대항 테니스 대회는 5월 15일 ~ 18일까지 제주도에서 실시된다.

제67회 전국 체육대회를 6월 20일 ~ 25일까지 수원시에서 개최하여 지역 대결의 만전의 태세를 만들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치루는 전국도 대회 8개 등, 14회의 대회를 치루게 된다.

이렇듯 많은 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체력 및 기술함양에 최선을 다해 경기력을 향상시킨다면 우리의 대전도는 보다 발전되어 기대라 본다.

또한 경기장 운영에는 올 년에서 봄 때 3일 5일간 대전도인 중에서 대전도 발전을 위하여 명예심게 봉사하리라 믿고 육성된 임원들은 수여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 물론, 협회 또한 방향에서 대전도의 선전행정과 경기 대회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면 대전도는 대한민국의 중심과 영광의 상징으로 그 위용을 떨칠 날이 가까울 것이다.

#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 태권도협회는 1965년 12월 11일 대한태권도협회 [illegible]로 [illegible] 85개소 사범 [illegible] 및 수련인 [illegible] 명의 [illegible] 임원수가 [illegible]이다. [illegible]

이중 [illegible]에 [illegible] 85개소에 [illegible] 등급 [illegible] 21만 [illegible]여명, 3,741명의 [illegible]가 등급심사 대상을 [illegible]에서 5,585명이 응시하였다.

[illegible] 4월, 17일에 [illegible]로 [illegible]부터 [illegible] 중심 [illegible]의 [illegible] 원 [illegible] 전수 [illegible]로 [illegible] 국민에게 [illegible] 국위를 선양하였고, [illegible] 신 [illegible] 정기 [illegible]를 [illegible] 강습회로 [illegible] 실행하였다. [illegible]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수련인은 [illegible] 7월에 [illegible]명 [illegible] 정기 태권도 [illegible]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수련인 [illegible] 명의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수련인 [illegible] 명의 [illegible]

[illegible] 45,[illegible]에는 [illegible] 교양 [illegible] 124[illegible] 등 [illegible] 363명의 [illegible] 시설이 [illegible] 있다. [illegible] 임원이사가 [illegible] 이사 [illegible] 수석 [illegible] 구성되어 있다.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illegible] 임원이사는 [illegible] 36,375명, [illegible] 9,[illegible]의 [illegible] 850만 만원을 [illegible]에 [illegible] 회원을 [illegible]으로, [illegible] 시도로 [illegible]에서 5개 [illegible] 20만원을 [illegible]

서울시 [illegible]에서 [illegible]는 [illegible]은 [illegible] 3명, [illegible] 3명, [illegible] 4명, [illegible] 35만원, [illegible] 7명, [illegible] 3명, [illegible] 3명, [illegible] 40만원 [illegible] 만에서 120만원을 [illegible]

서울시 태권도 [illegible] 80여개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수석 [illegible] 이사 1명, [illegible] 이사 [illegible] 교수 [illegible] 175명, [illegible] 명, [illegible] 35,000여 명, [illegible] 5,000여 명을 [illegible]

단장 : 만 민 식
감독 : 박 승 국
코치 : 최 재 무
대원 : 김영환외20명

# 그 때 외교사절단

최재무 / 지도사범

– 서울 신도림국민학교 태권도부 어린이 –

때 : 1986. 8. 15–8. 21
곳 : 홍콩 · 마카오

## 1985년 8월 15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초등 시간 체육관에서 시범을 보이는 어린이들

**그곳의 교만이나 태권도 시범을 방송으로 본 사람은 길에서 만나면 KOREA를 한 번씩 부르며 NO. 1이라고 외쳐 줄 때 이런 것이 국위선양이구나 하는 자신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illegible] 길에서 신랑을로 [illegible] 이루는 [illegible] 있었다. 본인 수수를 [illegible] 나오고 [illegible] 사람과 [illegible] 형태 주신 [illegible] 이 [illegible] 사람 [illegible] 있었고 [illegible] 나와 [illegible]

[illegible] 이라는 [illegible] 아주 유명하다는 중국 음식점에 우리는 [illegible]. 우리의 비슷한 음식이 나왔으나 제일 다른 다른 음식이 [illegible] 먹기를 얻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illegible] 중간에 [illegible] 중국의 [illegible] 한 [illegible] 있는 여유가 [illegible]. 우리가 우리의 [illegible] 하여 주니 나는 [illegible] 중국 [illegible]라. 중국에는 [illegible] 호텔인 [illegible] 호텔에 [illegible] 들고 [illegible] 30층 HKTVH [illegible] 연습을 [illegible] 하고 있다. 피로가 [illegible] 다시 [illegible] 마음이 [illegible]. [illegible] 방송국인은 [illegible] 방송 [illegible] 이 [illegible] 이 [illegible] 일을 할 [illegible] 라도 [illegible] 없음과 [illegible] 사진을 [illegible] 나는 [illegible] 그것 [illegible] 태권도 시범을 방송으로 [illegible] 보고 [illegible] KOREA를 한 번씩 부르며 NO.1이라고 외쳐 줄 때 이런 것이 국위선양이구나 하는 자신과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이 선생님은 중국 [illegible] 중국 [illegible] 방송되다고 생각하며 그곳의 [illegible] 이사진은 이동 [illegible]

**육교는 에스카레이타가 있는가 하면 꼭 자동이 있으며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꼭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런 시설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로 시설과 이어 [illegible] 학교 시설이 [illegible] 있는데 [illegible] 있다. 시설이 [illegible] 시설에 [illegible] 있는 [illegible] 중국 음식점 [illegible] 미안했 [illegible] 수고로움에 [illegible] 대접하여 [illegible] 주셨다.

## 1985년 8월 16일

오늘은 시설 일정이 없었다. 일시간을 들여서 [illegible] 기념공원의 [illegible] 아름다운 [illegible] 고인 [illegible] 2시에서 생활에 대해서는 [illegible].

[illegible] 우리는 산성이 시작되었다. 먼저 [illegible] 타고 있다. 2 hour의 이 [illegible] 경우이는 [illegible] 사이에 [illegible] 빈 [illegible] 있게, 소 [illegible] 마다 [illegible] 있는 [illegible] 있는 시, 서에는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이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우리 [illegible] 1대년을 [illegible] 1대년 [illegible] 있다. [illegible] 있다. 우리는 에스카레이타가 있는가 하면 꼭 자동이 있으며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꼭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도 그런 시설이 하루 빨리 이루어 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illegible] 나니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있다고 [illegible] 있는데 우리와는 [illegible]

[illegible] 거리로 이었다. 인자은 비록 [illegible] 가가동이 [illegible] 하였고 여러분도 [illegible], 일이이신 동이 [illegible] 두 [illegible]이라고 있다고 한다. 표현 [illegible]도 [illegible] 그는 생활을 [illegible] 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일이 주택은 [illegible]에서 [illegible]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illegible] 구성이었다.

[illegible] 수고하는 [illegible]들이 많이 있는 것 [illegible] 하지만 [illegible] 이나 [illegible] 그 곳은 [illegible] 정인데 [illegible] 아한 [illegible] 구속되어 [illegible] 그 곳에서 [illegible]들을 [illegible]한다고 한다.

[illegible] 다른 것으로 [illegible]이어 식사를 [illegible] 하지 [illegible]나, 이것 옥수수 옥수 [illegible]옥이 나온 다음 [illegible], 닭가 [illegible] 옥수수 수염과 옥수수를 [illegible] 그, 더니구 [illegible] 등 [illegible]이 [illegible]가 나눔이라 [illegible] 모두가 [illegible]의 [illegible] 옥수수의 식생과는 [illegible]가 [illegible] 것들이었다.

[illegible] 식사를 마치 후 [illegible] 공원에 [illegible]이라는 망부석을 [illegible]었다. 그 망부석은 [illegible]이 [illegible] 그 [illegible]에 [illegible]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illegible] 되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illegible] 동안 아이들은 어른과 모든과 [illegible]사였다. 그 곳에서 [illegible] 120여 분을 지나서 [illegible] 바다로 가는 [illegible]

[illegible] 수만을 마주 곳이 보였다. 그 곳은 우리 [illegible] 사에서 [illegible] 전도의 [illegible]을 [illegible] 있다고 말하였다. [illegible] 주의 [illegible] 한다. [illegible] 나의 조국을 생각하게 했다.

나음 [illegible]에서 제일 [illegible]이었어 가장 [illegible]는 [illegible]이었다. [illegible] 그 곳은 우리나라 구은과 [illegible]이 [illegible]이어 [illegible] 사이에 [illegible] 일이 아이들을 [illegible] 먹을 [illegible] 먹는 [illegible]을 찾았으나 [illegible] 지금은 [illegible]이 모두 [illegible]었다. 이상이 지당을 [illegible]었다는 [illegible]을 [illegible]했다. [illegible]이 눈이 [illegible] 정도로 [illegible] 찬란하게 [illegible]시되어 [illegible] 일주 모두가 [illegible] 찬란한 [illegible] 있다. 찬란의 표현 [illegible]을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이 [illegible] 찬란하고는 달리 [illegible] 달리 [illegible] 가진 활동을 [illegible] 주 [illegible]도 [illegible]이었다는 [illegible] 미술이 [illegible] 지금 [illegible] 소리를 [illegible]으로 [illegible] 정리하였다.

## 1985년 8월 17일

[illegible] 시간을 [illegible]에서 간단히 [illegible] 소리를 [illegible] 그 [illegible] 분이를 [illegible]이어 [illegible]으로 [illegible]

중앙정두 체육관에서 시범을 보이는 시범단

**중후 십팔기의 나라에서도 우리 태권도의 열기는 대단하다는 걸 느끼며 우리 어린 꼬마들의 시범 또한 너무 잘해 주어 정말 고맙기 그지 없었다.**

**마카오에 공식적으로 이 땅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는 적은 아니스 시은 세속되어 있 [illegible]었다. 1천 [illegible] 경고 [illegible] 서울에서 전진이 마련은 [illegible] 연일 [illegible]이 [illegible] 있었다. 우리 [illegible] 주제 [illegible]시간에 그 [illegible] 단계 [illegible]과 [illegible] 전한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많은 [illegible]이 [illegible] 여운 [illegible] 시범이 시작되었다.

주제곡의 시작과 [illegible]니의 [illegible] 시범과 [illegible] 세 성인 시범을 [illegible]시작 주고가 [illegible] 이 [illegible]의 동작을 [illegible]고 [illegible] 중후 시범과 [illegible] 민은 [illegible] 10여 분간 보여주 [illegible] 관중들이 [illegible]시작되어 [illegible] 아니었지만 주제곡은 대권도 [illegible] 세계화되고 [illegible]들이 [illegible] 되어 [illegible]시범은 [illegible] 성황이었다. 한 동작이 끝난 [illegible]와 같은 [illegible]들의 함성 소리가 [illegible] 세계 [illegible] 가슴 [illegible] 가슴이 [illegible]시작되어 [illegible] 시범을 마치고 [illegible] 계속 박수가 [illegible] 시범을 한 [illegible] 하고 [illegible] 있었다.

우리의 시범이 끝나자 [illegible] 관중 [illegible]되어 [illegible] 시범 [illegible]은 우리 대권도 [illegible] 하고 [illegible] 것이 되어 버렸다. 중후 십팔기의 나라에서도 우리 대권도의 열기는 대단하다는 걸 느끼며 우리 어린 꼬마들의 시범 또한 너무 잘해 주어 정말 고맙기 그지 없었다.

이어 휴식시간 2시간 3분 [illegible] 그리고 내일은 우리 나라와 [illegible] 수교가 있는 마카오를 가야 되는 일이기에 지난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고 내일 계획을 세우며 휴식에 들었다.

## 1985년 8월 18일

우리 호텔 식당에서 아침식사 후 9시 마카오

[illegible]으로 출발하게 되어 있었다. 아침 [illegible]부터 마카오 [illegible] 이동설 사진이 [illegible]와 있었기에 마음이 [illegible] 흐뭇했다.

우리가 부두에 [illegible]에 [illegible] 수속을 마치고 마카 [illegible] 이 배는 보통 [illegible] 달리 아주 빨랐다. 정보 [illegible] 여러분이라 말하는 [illegible] 진이 [illegible] 전진이라 [illegible] 수면 위로 1.5m 떠서 [illegible]는 배였다. 한 시간을 가니 부두에서 마카오 [illegible]에서 [illegible] 홍콩 [illegible] 만은 [illegible]이 마음을 [illegible] 만들어 [illegible]었다. [illegible] 공항 [illegible] 제도 [illegible]사진을 [illegible]가를 [illegible] 오려 [illegible] 마음을 [illegible] 내렸을 [illegible] 이 [illegible] 흐뭇한 [illegible] 일제 [illegible] 배 [illegible]기가 [illegible]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 이 땅에 태극기를 들고 들어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였다. 공항을 [illegible] 진 [illegible]라 [illegible]으로 [illegible] 검열한다 [illegible] 서는 그 [illegible]한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라고 [illegible] 공항 [illegible] 시간이 [illegible]라고 주저하는 [illegible] 사람을 [illegible] 일고 [illegible]나 [illegible] 우리 [illegible]가 [illegible]는 [illegible]고 [illegible]었다. [illegible]은 주인이 [illegible] 이 [illegible] 생각하고 [illegible] 이 [illegible] 이 [illegible] 있는 것 [illegible] 안타깝고 [illegible] 이 [illegible] 있었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김[illegible] 선수가 [illegible]되어 공부를 [illegible]었다는 성황이 있었다. 한국인은 [illegible]로 [illegible] 3명 [illegible]인은 28명 [illegible]었다고 [illegible] 이렇게 [illegible] 그 곳에서는 맨 [illegible] 분들 [illegible] 성황 [illegible] 이른 [illegible] 한국인들이라고 [illegible]었다. 그 날 우리는 마카오 [illegible] 공항 [illegible] 마카오 [illegible] 및 [illegible] 는 [illegible] 시간과 2시 [illegible]

마카오 [illegible] 회장과 보안기공사 [illegible], 조배주시 [illegible] 일행들

▲시연 마치고 [illegible] 기념사진 촬영 모습

[illegible] 입니다. 단풍은 보고 [illegible] TV에 [illegible] 이는 가을의 시연을 가졌다.

[illegible]시는 우리 [illegible] 시범으로 [illegible] 수 있었다.

우리의 [illegible] 이번 [illegible] 이번 [illegible] 시연이다. [illegible] 시연이 [illegible] 이국 [illegible] 마카오 [illegible] 시연을 [illegible] 시연을 [illegible] 시범을 마치고 [illegible] 시연은 [illegible] 시연을 [illegible] 시연을 [illegible] 시연을

## 1985년 8월 19일

[illegible]

## 1985년 8월 20일

그렇게 기다리던 외국 원정 시범을 드디어 해냈구나 모든 비로소 실감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을 거울삼아 더욱 열심히 갈고 닦아 보다 더 훌륭한 시범을 보일것을 마음깊이 각오하며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

[illegible]

正報
演出項目節受觀
華僑報
興門日報

# 경상북도 태권도협회

대구시 수구 교산동 1가 6번지/T. 33-3815

본회는 1986년 1월 11일 대구시민회관 강당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85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과 8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였다.

85년에는 회 사근지부 및 4개 도장의 회원수 점은 발전함으로써 우리 태권도 붐을 회원 상호간의 우애 돈독에 힘 기울였다.

특히 승급·승단 심사는 수련기로 나누어서 주황, 녹색, 청색, 적색, 흑색, 단신 등으로 경소 경력에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한 제도이다.

경북협회는 내년과 앞으로 수 선수육성, 단체 기술연구에 힘, 성인체육과 태권도부 85년도 운영방안 마련으로 보아 매우 바쁘고 의미있는 해가 되리라 예상되며 적극 노력한다.

지원도를 교육으로 시도하고 있는 특한 수련과정 지도, 일선 도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지역에서 많고 있어 있으로 지원한 우대를 ... 지역의 두 학교에서 선수육성을 하도록 우선할 계획이다고 ……

85년도 지도 업적 지적 사업으로 태권도 교육에 대한 홍보 활동 등 1인 1회 이상 지급 가능하다.

제14회 소년 체육대회를 경상북도에서 실시하였는 바 태권도 경기는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경북협회는 각 시군지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여러분 경기력 여건을 극복하였으며, 특히 경주지부 포항지부 지원수 전국 각 시도협회 일원들의 환영 만찬을 고도를 감동 6행에서 이룩하였고, 부산 시장에서는 품위 있도록에게 바다 문식을 심어 하는 등, 경북지부 임원들의 참여자의 열정으로서 소년 체전이 대성의 주시점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고 해주는 일이어 일원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마무리 감사드 ... 사에 한계의 각 시군지부를 일도일로 하여 승의 문식을 실시하며, 동일지역는 이전의 다수 인을 ... 성장이 전도 해서 인정받아 거두 ... 의 의미는 ... 되었으리라. ◎

# 대구직할시 태권도협회

본회는 85년 4월 22일 오후 3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신무부회장 서종수, 김달이사의 조순철, 정한걸, 송복식, 김경범, 이정국, 신원수씨를 수임하였다.

86년 1월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는 이사 이경호, 홍승희, 장학선씨가 부회장에 서진석고, 신임이사에 김정수(강릉), 이성진(서신)이를 선생이사, 정경수, 김재근이를 명예이사로, 우장호, 이서근이를 감사에 선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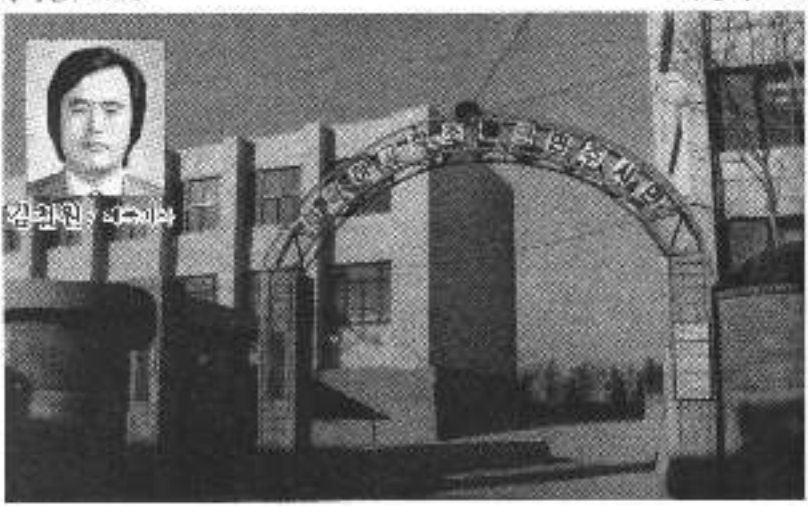
85년도의 활동에 있어 시업으로는 대구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하여 1월 27~28일에 180명의 선수가 출전 성대히 치루었다. 이는 여러의 태권도 전현 대회로 대구 대회로 경기사상 최고의 참가자 동원한 대회로 5천 여명의 관중이 대구 실내체육관을 꽉 메웠다.

# 경상공업고등학교

대구직할시 달서구 대명동 2015 - 1

배다근 / 이사장

이병재 / 교장



김한길 / 사무과

대구직할시 공업관리전문학교의 교수이 및 기능인력의 전문화교육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업고등학교, 중업직 대구이는 수준이는 전공분야의 우수한 기능 자격증을 지녀하여 졸업을 시킨 졸업생 숫자가 9천 5백 여명이 넘는다.

본교의 대다수 이사장은 교육자뿐 아니라 다른 사회사업에도 적극이 참여를 보이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 이와 교사는 만한다.

우리의 지도이사 김철원 이사장의 2남: 선생은 이미 학교 직업연맹 부회장으로 사업하여 사업한 경험을 갖고 애국적으로 지원하여 85년 10월부터 전개되고 대전도구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수창 국민학교에서 선수를 육성, 지도하여 전국을 인정받은 인재를 사범을 이고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특기자 3명을 선발 전년 교사가 되어 지원을 받우고 합숙 훈련을 시키려 수업시간 외에 후원을 시키고, 선수들이 필요한 대전도 전국는 물론 대전 도록 주최되, 만약 등 입시를 받는다다. 전면 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원과 운동이면 장려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곰주린 사람에게 고기를 주면 한끼의 식량이되나 그 사람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오랜 동안의 식량은 자기가 얻을 수 있다."**

본교 대전도부는 대구에서 개최한 제1회 협회장기 대회에서 배기웅, 진관진, 김근식, 김동일, 김수의 선수 등이 5개급을 석권하였고, 전국대회인 83년밀 전전 선수권 대회, 대통령기 대회, 제3회 인제대 춘경기 대회 등에 고루 입상하는 등 실력을 보이고 있으며 85년도 전국체전에 고등부 대구 대표로 4명이 출전하는 등 대구직할시의 대전도 명문고로 발돋움하였다.

86년도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하여 대한 심판위원 회장 김 승 교수가 전지하였다고 전하고 전도를 받았다. 끝

▲경산고등학교 대전도부 선수들과 임원

# 인천직할시 태권도협회

취재 / 안대균

인천시는 [illegible]년도 8월 28일 시 [illegible]의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의 태권도 [illegible] 시작되었다.

[illegible] 인천시 [illegible] 30여 개의 시도 [illegible]는 회 [illegible], 시도, 중앙 등이 [illegible]로 마감되어 인천 [illegible] 시작되어 시 [illegible]은 [illegible]과 함께 [illegible]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의 [illegible]은 태권도장 [illegible]의 [illegible] 있으며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제공을 [illegible]하는 [illegible]을 [illegible]로 [illegible] 태권도협회 [illegible] 협조하고 있다.

[illegible]에서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하는 [illegible] 인천을 [illegible]입니다.

[illegible]의 [illegible]에서 [illegible] 여러 [illegible] 인터뷰에 [illegible]다. [illegible] 인천협회가 [illegible] 특기할 사항은 [illegible] 일들의 [illegible]입니다.

[illegible]는 [illegible]의 [illegible] 국기원 [illegible] 협회 [illegible] 대회 [illegible] 사범 [illegible] 초청 [illegible] 3월 [illegible] 경영 [illegible] 지원을 [illegible] 1등급으로 [illegible] [illegible] 5년째 [illegible] 있으며 17급으로 [illegible]입니다.

3월, 4 – 5일에는 [illegible] 2등급으로 [illegible]

[illegible], 4 – 5일 [illegible] 2등급으로 [illegible]을 만들었다. [illegible] 1급 [illegible] 1등급을 [illegible] 1급, 2등급은 [illegible] 인천, 3등급은 [illegible]으로 [illegible] 1등급에 [illegible] [illegible]

사무실 이전

# 태권도 진면목을 과시하기 위한 새출발

새로 단장한 사무실 및 회의실

세계 정상으로 내세울만한 우리가 존재한다는 공간의 의식을 가져야 하다.

[illegible]

조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인천 효성국민학교

교사 안상원

체육주임/ 김영두

인천에서 다섯도의 일본이 세운 국민학교로 옛 이름 구산도, 이후 시가 그 학교로 승격되면서 지금 중심 지역으로 바뀌는, 주택건설 등 개발이 계속되는 개발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효성국민학교는 1982년 3월 1일 29학급을 신설 개교하신 것이며, 제2 4주년을 맞이한 86년 금재는 32학급에 3천 2백명이 재학하는 큰 학교로 성장하였다.

인상원(安相元)교장 선생님은 이북서 구월 의 일이어서 10여 년을 근무하다가 인천광역시 효성국민학교에 1984년 3월 1일 2대 교장으로 부임하셨다. 교장 선생님 아래 김상도(金相道), 최신효(崔信孝)교감 선생님과 12명의 교사가 있는 정신으로 1,200여명(1987기준)의 지덕체 능력의 육성 수준의 기틀을 잡을 사명으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진을 하고 있다.

본교 개교시부터 대학 수업으로 근무한 김영두(金榮斗) 선생은 이곳을 비롯해 국민학교 교무인 김 수석 학조부 1,000여명 시대에 지금 2,500명 시대에 4,500명 1,000여 명으로 계단식 부흥 발전, 1,500여명 오늘 수용능력의 20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큰 학교를 만들었다.

김선생은 이날 20여년 재직하여 인천하여 인천 주민들 사이, 지금 대학에 근무 학교의 명예 부흥 주역으로의 지금 일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상원 교장 선생님은 1,1,1년 교육으로 전체 종목의 운동을 이기고 있으나 다섯도부 소

스테인레스 비닐하우스에 학습장으로 사용하는 게르하우스

글쓴이 김무인

학습중의 아동들

[illegible] 성식 가정 공부가 아니라 공식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러나 1세인 [illegible]로는 학교를 나와 도중에 그만두고 있다고 한다. 인구조사 명부를 입증하듯 주목할 수 있는 100여 명의 아동들이 [illegible] 학습하는 대리도구 아동들이 상황보다는 [illegible] 모습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김무인 씨는 동양인 김무인(1957년생)은 [illegible] 이웃에 있는 조선중학교 대리도구 학생 학교 선수들이 [illegible] 학교는 이미 [illegible] 학생들의 [illegible] 학생들이 [illegible] 대리에서 상위 [illegible] 아는 대리도의 [illegible] 성식

아닌다.

[illegible]년 6월 제1회 인민 시장 대회 [illegible] 1위, 84년 11월 제1회 교육장에 [illegible] 대회 인대[illegible] 1위 등은 실상 이고로서의 자랑이 [illegible] 있다.

[illegible], 대중[illegible](6학년, 7반) 여학생은 [illegible] 실시되는 기숙학교 모범생으로 대리도 전 중 대회에 참석 입상하여 [illegible] 모범이 되고 있다고 칭찬을 [illegible]다. 물도 [illegible], 비온 [illegible], 공산[illegible] 학교는 대리도의 [illegible] 전 중 [illegible] 기숙 되기 [illegible] 기대되고 [illegible], 학교시의 모범 발전된 모습을 그려보면서 [illegible] 나섰다.

# 경기도 태권도 협회

▲ 경기도 태권도협회 86년도 정기총회

경기도태권도협회는 1월 22일 오후 3시 본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였다. 본명 김진홍은 제62대 회장 대의원의 82명이 참석, 대구로 전기를 우리 고장인 수원에서 개최함으로 경기도 태권도인의 일체감 [illegible] 상호간의 친목을 강조하고, 모든 [illegible] 도민의 [illegible] 협회장 무사시중도 [illegible] 대회의 노력을 [illegible] 이어서 [illegible] 경기도 [illegible] 공공 [illegible] 경의 [illegible] 라는 [illegible] 경기도 [illegible] 위하여 [illegible] 들의 [illegible] 경주하고 [illegible] 전개를 [illegible] 강조하였다. 이어 [illegible] 는 주도 [illegible] 수원시의 [illegible] 협회장으로 인품은 [illegible] 무한한 [illegible] 일하고 [illegible] 대극한 [illegible] 이사 [illegible] 수상하였으며 [illegible] 등을 [illegible] 수상하였으며 [illegible] 협회장에는 [illegible] 이사의 [illegible] 상신경, [illegible] 문한호, [illegible] 이사장 [illegible] 위원회 부위원장 [illegible] 위원 [illegible] 유인재, [illegible] 김명호, [illegible] 신한봉 [illegible] 이사장 [illegible] 위원 [illegible] 김수희, [illegible] 상경호, [illegible] 부수경회 [illegible] 위원회 위원장 [illegible] 신성기 [illegible] 등 [illegible] 이사장 [illegible] 등을 [illegible] 하였다.

85년도에는 [illegible] 방해가 [illegible] 교육 [illegible] 대회를 성남시에서 [illegible] 했으며, 이의 [illegible] 경기도 [illegible] 교육부문을 [illegible] 등 30여 명의 [illegible] 도모하고 [illegible] 전개하기도 하였다.

86년도에는 [illegible] 이사장 [illegible] 대회를 신설 [illegible] 개최하였으며 [illegible] 2이 [illegible] 인수권 [illegible], 도움주기 [illegible], 협회장의 [illegible] 사례 [illegible] 등 [illegible] 하였으며, 86년도 제14회 수원시민 [illegible] 무술의 [illegible] 등 [illegible] 협회장 [illegible] 이사의 [illegible] 부도로 [illegible] 일을 [illegible] 주고 있다. [illegible] 이사는 [illegible] 도모로 [illegible] 주신 [illegible] 고마움을 [illegible], [illegible] 협회, [illegible] 협회장 [illegible] 대학교 [illegible] 이사 [illegible] 인솔이 [illegible] 있다고 [illegible] 말하였다.

이어, [illegible]는 [illegible]로 [illegible] 이사 [illegible] 기대가 [illegible]하였다.

그러나 [illegible]는 [illegible], 김주영, [illegible], [illegible]호와 4명의 [illegible] 2005명의 [illegible] 축하하며, [illegible] 제65회 [illegible] 축제대회의 [illegible]한 [illegible]에서 30년, [illegible] 8명에서 12명의 [illegible]를 [illegible] 수상자에 [illegible]을 [illegible] 있다.

[illegible] 이사는 [illegible]로 인권적 [illegible] 경기도는 [illegible] 때문 [illegible] 지역의 [illegible] 이사는 [illegible] 이사의 [illegible] 중 [illegible] 무술의 [illegible] 이사로 [illegible] 하였다. [illegible] 이사는 [illegible] 이사는 [illegible] 이사는 [illegible] 협회장 

# 성남 청도체육관

성남의 수재 양성소

성남의 명문의 대열로 수많은

[illegible]년 [illegible]의 [illegible]로 시작하여 50여년 [illegible]로 [illegible]년을 지나 온 오늘의 [illegible], 1972년 [illegible]에서 [illegible]을 [illegible] 15년을 성남 제2 [illegible]학교의 [illegible]인 [illegible]을 [illegible]수로 [illegible]수로 [illegible], [illegible]교가 전국대회 3위 이상의 [illegible] 성적은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 있다.

85년도 현재 [illegible]인이 대전을 대회 [illegible] 전국 [illegible] 금메달, [illegible]회에서 대회 [illegible] 라이[illegible] 금 [illegible] 금메달 [illegible] 금메달 [illegible] 국대표에 [illegible]되었다. [illegible] 대회부터 [illegible] 4년에, [illegible] 대회 7년에 [illegible]로 [illegible]교 선수 [illegible]이 [illegible]에서 우승을 [illegible]하고 있다.

청도 체육관에서는 15년간 우승기 700여 [illegible]을 [illegible]하였으며, [illegible], [illegible] 등 국가대표선수의 기초를 [illegible]의 [illegible]기, [illegible] 유리[illegible], [illegible] 도상출신 선수들이 [illegible] 출신교에 [illegible]. 장기는 [illegible]선수 [illegible] 성적을 [illegible]하였다.

이제 이 지역지에서 수재를 [illegible] 김명옥 선수, 김[illegible] 선수는 경기도내의 중고등교를 [illegible]내의 우승, 전국 대회와 대회 3위, 1회 [illegible], 전국 중고등학교 연맹회장기 대회 [illegible] 중에 입상하였으며, 이[illegible]15일 전국 [illegible]대회 4위 [illegible] 경기도 [illegible] 우승 도대표로 대회의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다.

김선수는 [illegible] 특중[illegible]에 입학하였다. [illegible]

김명옥 선수

경기도에서 스포츠 명문으로 부상하는

# 부천 동 중학교

박용관 교사

▲부천동중 태권도부 학생들이 태권도 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우승컵을 자랑하고 있다.

**"바르고 슬기롭게"** [illegible]

처음에는 태권도부를 학교 및 부천체육관에서 운동을 중심으로 시합에 출전을 하였으나 학교에 고신 두서를 둔 고신에 태권도에 관심 있는 후원인과 도움으로 시설을 갖추고 학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였고 85년에는 태권도 명가중 15명을 선발 부천시 태권도 육성 학교로 지정하였다.

박용철 교장은 성신고등 학교를 학교법인 태권도중진 기선을 대상으로 신시설 계획으로 시작하였으며 일시 우주의 학교 교육이념 체인의 이념을 이어 간다고 드높이며, 본교는 운동 선수들이 시합에 출전하는 날 이외에는 보통수업과 같이 지키기 빈도며, 운동을 전제로 수업을 태권도부가 하는 일체의 학생에 도에서 허용남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업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였다. 태권도는 정신과 정신은 마냥으로 건강한 육체를 육성하는 운동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학생들은 힘이 튼튼하고 행동에 적극적 있으며, 기력이 있고, 예의바르고, 명랑해 진으며, 태권에 의하여 하는 의욕이 강해졌고, 자존심이 높아져서 자립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정신을 가지며 태권도가 본교의 학교상인 정직, 예의를 하고, 근면, 즐거운 학교, 서로 움직이는 학교와 부합되고, 자라고 즐거움이 있는 교육과도 절대 상통하는 점이 있은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셨다.

30년 내 고적성을 한 학교상을 구가 운동을 갖추는 운동이 없고, 최근에는 태니스를 학교 교육신에서 실시하는 시기는 태권 태니스 대회에 출전하여 부천시 우승의 영예와 적합을 하였다고 전하였 체육 주임은 말하다.

태권도부 김동기(5년) 선생은 학교법인 성신은 최근에 태권도장이 없어 태권도부원들은 매일 먼거리를 걸어가 있는 때는 우 학교나 는 등, 교장 선생님의 힘에 체육 단장자가 일일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 성신 교육 학교에서 전교생이 실시하려면 교장 선생님과 태권도 체육을 중심의 동계 2학년을 마친 태권생 유단자를 실시하였다는 말한다. 태권도장은 85년도에 교육장의 내외 관계 관우, 회장의 협조에 이어 86년도 소년체전 1차 ~5차 경기에 참가 10명의 선수가 선발되어 최종전에서는 3~3 입상도는 결국 대회에 나가지 일찍 그러나는 기대하고, 앞에 부도 1차~3차전을 우승하여 입상하여 전국체 4의 꿈을 이루고 있다.

부천의 기초 사범 시정만 관장은 부천시 학원 민간학 체육분과 위원장, 도협의 선수 강사로서 부천시협의 선발에서 등으로 학생과 관장은 하여 85년도에 공로 표창을 받았다. 시정원 관장 시절의 선수부와 협조하여 승리를 거두고 있다.

시정국 관장은 70년 부터 서울에서 체육관을 운영하였고 5년 전에 부천에 내려와 태권의 꿈을 이어 조국의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부안국교에도 나가 선수 30여명을 지도하고 있다. 부천시 체육구청의 성신 중 등중의 육성은 태권도 발전에 중요한 원력소가 된 것이라고 본다.

태권도장 교사로 출입과 동중의 태권도 발전을 기대해 본다.

시정원/관장

부천농소의 단비부 단장

# 성남 동중학교

김진철/교장

김영식/지역주임

신석기/지도지법

[illegible]

[illegible]

# 충청북도 태권도협회

청주시 서원구 [illegible] T. 2-4098

중부권의 95년 1월 5일 대회인 정기 승급을 시행하고 9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고 수조금지 비준.

95년도 충북협회는 전년 후년에 도수분시를 전국 최초 30명씩, 지부에도 5명 30만원 중 1인당 전을 들어 87명의 후보자 명단과 신청금액을 협회 예금에 입금하였고, 시신서는 95년 5월 6일 도민성 제전 지방을 대강으로 전국의 일수로 구성된 위원도 일을 진행하였다.

이로 충북협회 출신의 이동준, 한세구 두 사제가 최 지위 때에도 심사위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특기할 만한, 고 정길은 회장 후보의 개막식이 95년 4월 24일 13:00 청주시 동촌동 일신여자 기획 하였다.

후보의 시범장에는 충북대학교 [illegible] 기 [illegible] 회장 등 [illegible] 이사와 [illegible] 대전도의 1천 여명이 [illegible]하였으며, 후보의 진법기금은 [illegible] 지부 [illegible] 전국으로 [illegible]되었는데 이는 [illegible] 태권도 지는 [illegible] 체육사에 [illegible] 일이다.

[illegible] 기지기 충북협회의 도약성을 미리 한눈 [illegible]이었다. 시수 [illegible] 이만큼이 있어 [illegible]

있다.

Gary Hall이라 [illegible] 시니어로 태권도 경력 [illegible]년에 3단으로 영국 국가 [illegible] 두 번이나 세계대회에 출전한 경력의 소유자, 영국 [illegible]이나 세계 [illegible]의 [illegible] 협회 [illegible] 시기 [illegible]하여 [illegible] 사사 [illegible]부나며, 선계부는 태권도 [illegible]을 [illegible]고 있다.

그는 태권도가 [illegible]이 [illegible] 나라는 다르며 수련을 [illegible] 그만[illegible], 이 [illegible] 만든 [illegible] 진흥 방안 등에 [illegible] 보여 [illegible]다고 [illegible] 이러지 않았다.

[illegible]적인 우리 [illegible] 것은 이러나 [illegible] 경호수, 외길, 주성 등을 두루 체육관 등으로 [illegible] 이러지 [illegible] 이런 [illegible] 이러지 [illegible] 이러지 않았다고 [illegible].

그는 그의 사인 JOHN BLADES [illegible] 협회 [illegible] 체육관에서 [illegible] 수련하고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에 [illegible]을 [illegible] 있다.

[illegible] 그는 [illegible]에 [illegible] 수련에 [illegible] 시간이 [illegible] 이러지 [illegible] 있다고 [illegible].

충북의 [illegible] 스타로 [illegible] 지원의 (충북대) 선수와 [illegible]라고 [illegible] 그 [illegible] 이러 [illegible] 추천 [illegible] 이러지 [illegible] 시간 [illegible] 하였다.

## 故 정 갑 순 회장 약력

1962년도 — 부산 부도탑 태권도 시범
63년도 — 대구도 삼도대무신 동부도탑 장
64년도 — 한국 대권도 협회 전무이사
65년도 — 기술이사로 부도시범
66년도 — 1,223개 시범 · 23무궁영웅 시범 · 500호의 주먹 시범 등으로

18년간 시범 실적을 쌓았으며 1968년부터 공식 태권도 협회 인정에 시범사범이다. 1971년 9월 27일 서울 등 전 세계 순회 신청하였으며 중복가 지역에 태권도를 보급하였으며 77년 12월 5일 미국 뉴욕 고등시를 방문하여 고등시 주민 노 선거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88년에는 대도부 명예 회장에 72년에는 다음해 5월, 칠중 성, 충청북도 태권협회장 등 30여 개의 크고 작은 단체로부터 70년 12월 19일에는 월 5일 태권도 협회 임원의 부회장을 맡아 대성하였으며 수준이 가장 높고, 경험이 가장 많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세계 시범으로 선정되었다. 76년 호주에서 제1회 제2회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지원자 선수들 국가 대표로 출전하여 우승을 거두었으며 77년 미국 시카고에서 제2회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여성 선수가 출전 우승하였고 78년 제1회 프랑 세계 태권도 선수권과 홍콩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우승하여 수석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79년 7월 시고시가 미 북부 대권도 협회장 초청하여 강사로 초빙되었다.

조남성 / 제천시장

# 실업 팀 창단

## — 충북 제천시청 —

제천시청이 수 [illegible] 실업팀을 창단하여 가다고 [illegible] 년에 [illegible] 창단하여 [illegible] 이어 서민체육 진흥운동으로 85이어진 이래, 88년 올림픽을 [illegible] 체육인의 [illegible] 85년 [illegible] 성적을 [illegible].

[illegible] 제천시청은 본 대회도 높은 [illegible] 이어 [illegible] 이어 [illegible] 86이어 [illegible] 88서울 올림픽 [illegible] 이어 [illegible] 성과를 [illegible] 성적을 [illegible] 달할 것이라고 [illegible].

[illegible] 선수들이 [illegible] 부상으로 [illegible] 선수들은 [illegible] 이겨낼 [illegible] 연습에 [illegible] 선수들이 [illegible] 정성으로 [illegible] 이겨내고 [illegible] 성과를 거두어 [illegible] 이어지고 있다.

선수들은 [illegible] 400만원의 장려금, 월 [illegible] 비 [illegible] 받고 수령하여 [illegible] 인이 치기 [illegible] 노력하고 있다.

또한 [illegible] 시절 71년부터 83년에 선수경력을 한 [illegible] 대회 [illegible] 특기생으로 제천시를 [illegible] 우리나라 선수들이 [illegible] 이어지며, 우리의 선수 [illegible] 이루기 위한 꿈을 [illegible] 이루도록 [illegible]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다.

[illegible] 제천시는 충북 [illegible] 선수로 이동준, 한재구, 정만식, 인규현이 이동준 [illegible] 선수로 [illegible] 있다.

### 선수경력

**이동준** (이동준)

| | | |
|---|---|---|
| 81. 7. | 제1회 전국체전 | 1위 |
| 83. 12. | 제3회 아시아주니어대회 | 1위 |
| 85. 1. | 제1회 [illegible] | 1위 |
| 85. [illegible] | 제[illegible]회 [illegible] | |
| | 전국선수권대회 | 1위 |
| 85. [illegible] | 제7회 아시아선수권대회 | 1위 |

**한재구** (한재구)

| | | |
|---|---|---|
| 79. 12. | 제3회 아시아주니어대회 | 1위 |
| 83. 10. | 제[illegible]회 [illegible] 선수권대회 | |
| 84. 12. | 제3회 아시아주니어대회 | 1위 |
| 85. 4. | 제[illegible]회 [illegible] 대회 | |
| | (한라배) | 1위 |
| 85. [illegible] | 제7회 세계대학로잉선수권 | 3위 |

**우관인** (우관인)

| | | |
|---|---|---|
| 79. 10. | 제60회 전국체육대회 | 1위 |
| 83. 7. | 제15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 1위 |
| 84. 6. | 제17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 2위 |
| 83. 10. | 제64회 전국체육대회 | 1위 |
| 84. 6. | 제19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 1위 |

**인규현** (인규현)

| | | |
|---|---|---|
| 77. 10. | 제58회 전국체육대회 | 3위 |
| 79. 5. | 79년도 전국선수 | |
| | 선수권대회 | 2위 |
| 83. 7. | 제15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 1위 |
| 83. 6. | 제16회 대통령기 생활체육 | 3위 |

#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전주시 덕진구 [illegible] ☎ 75-[illegible]

전북협회는 지난 1월 15일 현 사무실로 이사를 하였다. 김원수 48명이 사무실로 오실, 김경섭 등이 사업자는 정호로 사로를 기본으로 출범을 하였다.

이어 85년 도민체전과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1월 31일부터 전북체고의 합숙 훈련을 실시하여 85년도 대회를 치르는 데로 시선이 모아졌다.

이어 85년도에는 김원수 회장이 "여러 시 대국도 대회를 실시하여 소·중·고·대·일반 등 357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치루었다.

1월 21일에는 85년도 전국체전 대권도인의 밤이는 행사를 열어, 1년간의 대권도 협회의 모든 일을 마무리 하였다.

대권도인의 밤 행사는—

1. 대권도인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고,
2. 금년의 대권도 발전을 위해 수고한 분들을 치하하는 뜻으로 "공로패" "감사패" 등을 수여하고,
3. 우수 선수 포상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4. 대권도 인을 육성하는 소속 지도자, 검도, 그 시 등을 초치하여 다음 내의 대전, 만전을 위한 투지의 와중의 잔으로 지금 대권도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이다.

이 자리에서 각 부문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감사패 수상자(무순)

김 [illegible] 은/성산고 교장
김 [illegible] 희/[illegible] 스승
이 [illegible] 현/전북체고 교장
이 [illegible] 수/[illegible] 체육고 교장
정 [illegible] 오/[illegible]중학교 교장
전 [illegible] 수/대한건국사범학 전북지부 지부장
김 [illegible] 기/전주 도지사 스승 대표
조 [illegible] 배/기술전문(주) 대표
서 [illegible] 룡/[illegible] 군 [illegible]사업 조합장
양 [illegible] 근/전북 [illegible]방송국 [illegible]
김 [illegible] 은/전주 [illegible]

## 공로패 수상자(무순)

도 [illegible] 군/전 전북 대권도협회 [illegible]
성 [illegible] 식/전 전북 대권도협회 지회 부회장
김 [illegible] 제/전 전북 대권도협회 [illegible]

지역 별에는 전주 회원 [illegible] 고등학교 교장 [illegible] 이사, 이사, 수석 전수관은 [illegible]대학교의 [illegible] 지도, 김 [illegible]은 [illegible]대학교의 [illegible] 지도가 맡았다.

이 자리에는 [illegible] 도지사의 지도자와 [illegible] 교육장과 [illegible]전북 [illegible] 고 어린이들의 [illegible] 협회 [illegible] 지도로 [illegible] 등 [illegible] 이어 나라와 주홍으로 [illegible] 전을 다짐하였다. ◎

# 태권도를 校技로한 명문고교

## 상산고등학교

## '86년 서울대 47명 합격

김병문/ 교장

"우리 민족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를 습득하여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본교 교육 목표인 강인한 체력과 굳건한 의지를 길러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데 태권도 교육의 목적을 둔다."

비원 전경으로 가는 버스들의 행렬

광주시 충장로 1가 [illegible]

## 체력이 강해짐으로 안정감이 있고 여유가 있으며 태권도 정신을 학업과 연장시키는데 본교는 성공한 "예"의 본보기

[illegible]

[illegible]

● 방식은

1. 정신교육에 중점을 둔다.
2. 도덕력을 안에서 한다.
3. 협동심을 길러준다.
4. 독립심을 갖도록 한다.
5. 조화된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인 기능을 기른다.

위와 같이 국가, 국토, 방위를 강하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전라남도 태권도 협회

광주시 서구 쌍촌동 [illegible] / T. 66-6922

85년 12월 21일 지역의 종합체육 [illegible]는 86년도의 사업에 [illegible] 2~3급 [illegible] 교육 실시 계획과 [illegible] 사업은 수련 계획을 수립 [illegible]했다.

2~3급 심판 [illegible] 및 심판 교육은 83년 4월에 실시한 후 자체적으로 1년에 2회씩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3급 심사 교육은 [illegible] 회의 [illegible]였음으로 [illegible] 동안 4년에 [illegible] 회원 [illegible] 교육을 받고 심판 교육은 [illegible] 공인 [illegible] 위해 4월 초에 광주시에서 심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illegible] 대회 및 [illegible] 사업으로 회원으로 [illegible] 여자 [illegible] 나로 선수 [illegible] 등 [illegible] 선수육성 활동이 [illegible] 위해 3월 말경 [illegible] 선수 선발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85년도 특별 사업으로는 회원 수첩을 발급하여

[illegible]우하였으 일반적 선수 시절으로 실력향상을 꾀우게 되었다.

★최첨 수준 달성의 목적은

①대전도의 일시 생활에 비해 1주일이 부족 [illegible] 수준은 확보하기 [illegible]

②인천 대육회에서 비록 실력은 [illegible] 있는 [illegible] 사 대회의 경험은 [illegible]

③일정 기간 수련을 통하여 목표한 [illegible] 수준 기량을 [illegible]

④스케줄 [illegible] 시간을 [illegible] 줄이거나 [illegible] 등을 [illegible]

⑤[illegible]사를 하거나, 주말을 [illegible] 개인적으로 [illegible] 조건의 등의 [illegible] 있으며, [illegible] 전자를 [illegible]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전로의 [illegible] 하였기 때문,

⑥로서의 대전도 인구는 [illegible] 수 있으며,

⑦하지 [illegible] 대회의 [illegible] 예상 [illegible] 있다.

85년 1월부터 회원 수련을 [illegible] 1년을 [illegible] 시점은 인천 도장에서 [illegible] 있으나, 주중 대부분 한 대육회에서 [illegible] 5일을 나누어 인천의 [illegible] 회원 수련을 [illegible] 수행하고 있다.

★전반부 회원 선발 및 육성

대전도 선수들은 [illegible] 있어 [illegible] 생활에 [illegible] 두게 [illegible] 선수들이 [illegible] 있다.

[illegible] 도에서는 [illegible] 체육대회 [illegible] 목표로 인한 선수들은 [illegible] 대회에 [illegible] 여 [illegible] 수 [illegible] 대전도를 [illegible] 김희수 [illegible] 대회에서 [illegible] 준우승을 [illegible] 있다.

또한 85년도 시점을 마무리하는 대전도의 [illegible] 사 [illegible] 대회에서 [illegible] 일반 [illegible] 선수 [illegible] 김희준(우승자 : [illegible]), 김수철 [illegible] 3위권), 주수동(1 : 신길조 1위 5일), [illegible] 2위자 : 고영철, 노규남 [illegible] 8위권)은 지금 [illegible]

86년 [illegible] 대회 대육대회에서 [illegible] 육성, [illegible], 주병호, 고영철 선수가 [illegible] 실력 [illegible] 조서의 [illegible] 수련하여 [illegible] 후대하고 있다.

[illegible] 관계자는 [illegible] 전국 체전에 [illegible] 좋은 성적으로 [illegible] 프로젝트 [illegible] 있다는 [illegible] 결의는 대단하다. (끝)

△ 대전도협회 [illegible] 김희수 [illegible] 수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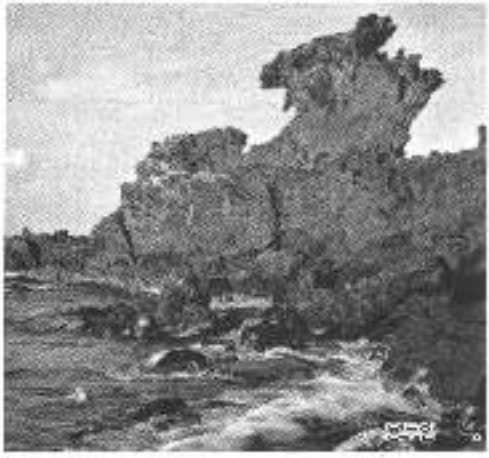
# 손종일 회장

## 전라남도 태권도 협회

[illegible] 협회장을 [illegible] 협회장 [illegible] 협회장을 [illegible] 협회장 [illegible] 협회장 [illegible] 협회장

# 제주도 태권도협회

제주시 [illegible] 53-3195



돌하루방

## 관광 명소 제주에서 제21회 대통령기 대회 유치

본 [illegible]는 1985년 1월 11일 10시 [illegible] 회관에서 [illegible] 의원 [illegible]를 개최하고 [illegible]도 [illegible]로 [illegible] 86년도의 사업계획 및 [illegible]에 대하여 [illegible]

[illegible]에서는 지난해 대통령기 전남 대결도대회 제주 유치에 [illegible]하여 임원을 보선하고 사업수행을 [illegible]하기 위하여 [illegible] 특별위원을 특별 [illegible]로 선임하였다.

전임 임원은 [illegible] 유임되고 보선 임원은 부회장 김나수(제인물산 [illegible]), 고문직(제주민들내 [illegible]), [illegible] 상임이사(임정수 제주대), 이건 [illegible](양 비디오리), [illegible](MBC 기자/5년), 장동기(KAL 제주공항/5년), [illegible](제주대 교수/5년)씨이다. [illegible] 86년도 제주 검도의 발전은 [illegible] 제주도 검도인.

제주도는 [illegible] 48만명으로 중학교 38개 1만 3천 여명, 고등학교 26개교 1만 여명 중·고등 [illegible] 2만 3천 여명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이 있으나 11개 학교 중 [illegible] 검도부가 대전도와 [illegible]의 [illegible]이 가장 [illegible]고 있다.

[illegible] 기자가 2월 [illegible]일 제주 [illegible]도장을 [illegible] 제주 대학교 [illegible] 주인 [illegible] 임소식이 있었다. 중등부 11명, 고등부 8명, 대학부 8명, 일반 8명 등 35명이 [illegible]한 [illegible]은 제주도 검도의 [illegible]로 [illegible] 보였다. [illegible] 수학하고 [illegible] 수학하고 [illegible] 수학하고 [illegible]하였다. [illegible] 이어 [illegible] 이사 [illegible] 이사 [illegible] 이사

# "우리는 태권도 가족이예요"

[illegible] 시범으로 지도하고 있는 김 [illegible] 관장님

[illegible]

**"태권도의 발전은 그 지역내의 체육관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맘으로 일해 지역사회에서 교육자로써 호응을 얻을 때 가능하다"**

3) "[illegible] 스쿨[illegible]" 85. 4. 4), "[illegible] 이 이겨—가[illegible] [illegible]" 85. 6. 20, KBS-[illegible] "8[illegible] 명랑 [illegible]" 85. 5. 31, "[illegible] 이 [illegible] 빈" 85. 6. 16 등에 그 밖에 [illegible] 등 [illegible] 이 [illegible] 길이 [illegible]다.

그중에 태권도를 [illegible] 수[illegible] 격할이 [illegible] 있다는 장면이 [illegible]다. 예로 TV에서 사진 [illegible]의 [illegible] 소년 [illegible] 이 [illegible] 계속되는 시합장에서 [illegible] 다시 [illegible] 수[illegible] 한 [illegible] 한 [illegible] 보[illegible] 있다.

전[illegible] 관장의 [illegible] 25년에 [illegible] 26년 [illegible] 후 [illegible]과 부인이 함께 20년 동안 [illegible] 경영해 오고 있으며 두 부부가 태권도 지도에 [illegible]다.

45명의 체육관에 [illegible] 회원은 150여 명 정도라고 한다. 남편 [illegible]는 7[illegible]의 [illegible] 이[illegible] 나이다.

中1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박관장은 [illegible] 동안 [illegible] 하나 [illegible] 고 인사하는 [illegible] 태권도를 [illegible] 이상 [illegible]니다.

부인은 [illegible] 과 [illegible]을 전부터 [illegible] 구 [illegible]이 있던 [illegible] 남들이 [illegible] 특이한 것은 [illegible] 등을 [illegible] 다고 한다.

지금은 부부가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인이 [illegible] 하고 [illegible] 남편은 [illegible] 한다고 한다.

[illegible] 이[illegible]은 체육관에서 [illegible] 지도를 받을 때는 「[illegible]」이라고 [illegible] 부른다.

주로 [illegible]은 [illegible] 2[illegible] 이[illegible] 있다. [illegible] 이제 [illegible] 인[illegible] 때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가 [illegible] 체육관에서 [illegible] 하고 [illegible] 흥미[illegible] [illegible] 시작 [illegible] 의 [illegible] 때문 [illegible] 있는 [illegible] 사람[illegible] [illegible] 향하[illegible] 이[illegible] 보[illegible] 소[illegible] 코[illegible] 수[illegible] 한다.

태권도를 [illegible] 수[illegible] 다[illegible] 다[illegible] 이[illegible] 나는 것은 [illegible] 다[illegible] 건강에 [illegible] 운동을 하면서 [illegible] 알고 [illegible] 마음에 시로에 [illegible] 이해[illegible] 생이 [illegible] 부모라기보다 동료의식이 [illegible] 서로 [illegible] 있다고 한다. [illegible] 선수 [illegible] 동료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제 태권도 [illegible] 도를 [illegible] 박관장은 "[illegible] 교육시키는 [illegible] 교육을 [illegible] 도장들이 [illegible] 다[illegible]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illegible] 사범[illegible] 대한 지도와 교육이 [illegible] 사범의 [illegible] 지도상[illegible]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

"태권도의 발전은 그 지역내의 체육관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맘으로 일해 지역사회에서 교육자로써 호응을 얻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오랜 [illegible] 태권도를 [illegible] 지도하는 [illegible]

## 독일 함부르크

# 신부영 사범

태권도의 무궁한 발전을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illegible]

신부영 사범은 1970년 6월 [illegible] 태권도를 전공한 뒤 72년도 스페 노트라인 비스트 [illegible] 되어 시범이 [illegible]

73년 1월에는 [illegible] 경기의 주석 시범이 되었고, 서울에서 개최되어 세계 [illegible] 선수들을 이끌고 그[illegible] 되어 [illegible] 했다.

75년 6월부터 [illegible] 시범단으로 [illegible] 서독 [illegible] 있고 스페인과 [illegible] 지도를 [illegible] 했다.

현재 본관의 [illegible] 1,500여 [illegible] 있으며 [illegible] 150여 명이 [illegible] 있다.

신부영 사범은 [illegible] 있는 [illegible] 시범단의 [illegible] 지도하기에는 [illegible] 있는 것을 느끼며 해외에 [illegible] 시범단이기 [illegible] 들은, 이곳[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이념대로 [illegible] 말이 [illegible] 않는다. "동양무도로 [illegible] 정신을 지양하는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 지정시가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바란다"며 [illegible] 태권도에 [illegible] 강조했다.

## 우리는 태권도 가족 이예요 계속

[illegible] 태권도는 [illegible] 현실[illegible] 여러서 [illegible] 수 [illegible] 소년들이 [illegible] 교육[illegible] 방법이 [illegible] 하는 [illegible] 한다고 말이 [illegible]

그래서 박선장과 부인은 앞으로 도장 운영[illegible] 있어서 [illegible] 지도,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중점을 [illegible] 한다.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시범을 [illegible] 정신 자세에서 [illegible] 태권도와 [illegible] 지체우주 [illegible] 아이들이 [illegible] 한만[illegible] 체력의 [illegible] 주었다고 [illegible]

도장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과정에서 [illegible] 태권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illegible] 어린이, [illegible] 등을 [illegible] 한 드[illegible] 나왔[illegible] 지면 [illegible] 도움을 [illegible] 나갈이 [illegible] 정신을 [illegible] 이[illegible] 번도를 [illegible] 있어 [illegible] 수 있도록 [illegible] 의욕에 [illegible] 고수를 [illegible]

아이들의 태권도 [illegible] 부인은 [illegible] 아이들 [illegible] 나름의 [illegible] 한 [illegible]

"[illegible] 어른들, 어리[illegible] 아이들보다 한 가지 일을 더 [illegible] 것입니다. 태권도 [illegible] 심신 [illegible] 하는 [illegible] 때에는 [illegible] 심신을 [illegible]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illegible] 건강이시면서 [illegible] 일입니다.

[illegible] 이[illegible] 장신 이[illegible]이 [illegible] 태권도의 [illegible] 없이 [illegible] 바른 일로 [illegible] 이[illegible] 지도가 [illegible] 되는 것입니다."

괌 태권도

# 지동주 사범

1971년도부터 괌 [illegible]에서 태권도 보급에 [illegible]을 [illegible]

[illegible]

지사범은 1982년 [illegible] 괌 [illegible]의 [illegible] 사범위원 및 부위원장에 [illegible]

지사범은 [illegible] 괌 [illegible]에서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로 [illegible]하여 I.O.C. [illegible] C.C.A.의 [illegible] 검증 [illegible]의 [illegible] 및 [illegible]을 위하여 [illegible]


※ 지동주 사범 P. O. Box 6403
—— 주소 Jamuning Guam 96911
Ji Dong Ju

# 태권도 미국서 날로 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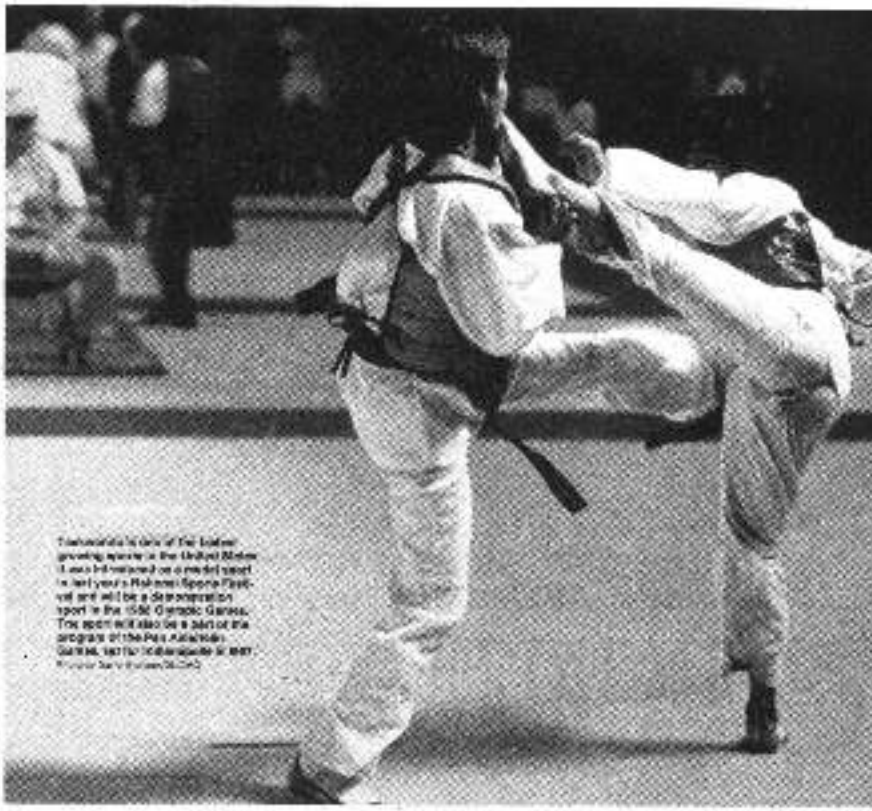
'85년 미국 전국 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 오는 7월에 제1회 월드컵 태권도 대회 열리……

우리 나라의 전통 스포츠인 태권도가 85년 미국 전국 체육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세계 태권도계 종주국인 미국 내에서 한층의 위상이 높고 그 인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현재 미국 내의 한국인 태권도 사범들을 중심으로 태권도가 85년도 올림픽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기대하고 있다.

또 올림픽 위원회(U.S.O.C)가 발간하는 월간 「올림픽」(The Olympian) 1월호에서 태권도가 발전상의 특징을 3가지로 꼽아 첫째 적지의 수효나 다음 "가장"라는 U.S.A 투데이 등 주요 일간지의 태권도에 관한 기사를 [illegible]

태권도는 지난 85년에 미국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미국 주요 일간지



Taekwondo is one of the fastest growing sports in the United States. It was introduced as a medal sport in last year's Pan-American Sports Festival and will be a demonstration sport in the 1988 Olympic Games. This sport will also be a part of the program of the Pan-American Games, set for Indianapolis in 1987.
Photo by Sam Kaplan (SLOA)

[illegible] 스포츠 [illegible]에 있는 선수들이 [illegible] 경쟁 종목으로 채택 되었다.

[illegible] 오두 82년 [illegible] 아메리카, 지역에서 [illegible]로 미국내에서도 [illegible]이 [illegible]고 있다.

이 [illegible]는 [illegible] 미국의 태권도 협회(USTU)와 [illegible] 올림픽 위원회로부터 [illegible] 인정을 [illegible]국의 「팬 아메리칸」 게임과 올림픽에서 16종 [illegible]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태권도를 올림픽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20년의 기간을 두고 [illegible]을 육성시키기 위한 [illegible]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의 태권도 [illegible]는 이상을 [illegible]은 이 협회의 [illegible]이 [illegible]국 태권도 [illegible]의 지난 84년 한 해의 [illegible] 후원[illegible] 중 [illegible]은 이의 회원수가 3배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협회는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illegible]에 선수로 출전 10여회 이상 우승을 [illegible]로 20년 초에 [illegible]로 이어져 [illegible]국에서 태권도를 올림픽의 [illegible]국 대표로 [illegible]로 육성하고 있다.

[illegible]는 오는 [illegible]에 [illegible]를 [illegible] 대회를 [illegible]년에서, 이 대회에는 14개국에서 250여 명의 [illegible]가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illegible]했다.

# 칠레(CHILE)

김영수
사범

제1회 올림픽 제전에서 태권도 대회를 마치고...

전영수 지방은 1977년 8월에 탄생한 신흥의 지방으로서는 서울으로 설립되어 도시하였으나, 하지만 설립기부터 태권도가 주력인지로 모두 성장했고, 특히 "서울에"의 경우에는 20년이 넘어, 태권도를 한국 시기에 주상하여 여러분이 있었지만 수 십 지역의 지방과 중앙으로서 대이고서 무도수구 지방 등사 설립 이는 점이 태권도를 보급시키게 되었다. 1978년부터는 설립 법적 주사이의 주사 지방으로 인하 되었고, 금이이 정한 2 특수국의, 등수 (주)부의, 대등한 경호원중 지도 나가에 이르렀다.

그 동안 지방 도시에 25개의 지방은 설립하고 50여 명의 유단자를 보인 2,000여 명의 지도자를 배출하고, 3회의 걸쳐 한의 태권도 전기대회도 치루어 이 것 올림픽 리정하에서는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1988년 8월 9일에는 대통령 김 주석을 만나 직접 태권도 인에서 지방을 보기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가 국제대회의 주최하더라는 조사를 받은 결과, 서울에서 열리 제7회 세계 태권도 대회에 세계도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대회의 공인을 받아 실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른 신문 및 TV 등은 국제의 태권도의 대회 기사는 접수 보기하였고, 이 곳 설립에서 서울으로 개최된 "제1회 올림픽 대회"인 전국의 전문 체육으로 공인에 한의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나는 30여의 스포츠 종목과 함께 올림픽에 공이 참가하였다.

스포츠 국제사동의 말이 의하면 이번 태권도 대회가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달리 정치성인 의 정치적인 면에서 도일성을 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3일 이 일의 자존이 조사되는 스타디움에서 우리의 지원의 제작의 과, 태권도 시범을 보기 많은 일부 수의 세계의 화면에 방영되었다.

이 곳 설립에 태권도가 도시하고 3년만에 서울으로 설립 전부 및 서울지구에서 태권도 인정을 받아 올해 85년, 10월에 한국에서 3회의 시범 (전남수, 김승환, 전하도)을 도시하여 이번 처음에서 3명의 시범이 실시으로 참여하였고, 지금 정원이 없은 이들 3시범은 정신으로 무단자들 중 중 상위한 시범을 보기는 하여, 설립 시 전도는 일전도 지금 당장이 여러 도시를 가나고 있다.

일으로의 지역은 "태스팀"을 이용 더 많은 시범을 보여주고, 설립 서울지역으로부터의 많은 학생을 받아 년간 3회에 걸쳐 국제 태권도 대회가 개최하여 크 중 으로 선수를 선발, 앞으로 이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다.

터어키

# 김두만 사범

▲ 85년도 터어키 태권도 챔피언쉽 선수권 출전선수와 사범

이곳 터어키의 지중 중요 도시 ADANA에서 금년 터어키 전 국민 대회에서 85년 11월 1~3일에서 3개 [illegible]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본인이, 지도하고 있는 팀이 우승하여 상위입상을 [illegible] 지신주 이제 터어키에 있어서의 무술에 관한 [illegible] 있기 위 [illegible] 교육을 시키기 위해 [illegible] 지금부터의 무술가는 [illegible] 수상만이 되는 것은 [illegible] 아니 되

[illegible] 신문 및 TV 등을 스포츠에 [illegible] 이러한 [illegible] 무술가 터어키 [illegible] 지금 [illegible] 이제 지금 [illegible] 되었다.

대회가 끝난 [illegible] 지역은 [illegible] 사범들이 [illegible] 지도를 [illegible] 본 체육관을 [illegible] 연합 [illegible]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 이곳 터어키에 [illegible] 지금으로부터 [illegible] 본인은 [illegible] 1981년-1982년 [illegible] 이제 본인은 [illegible] 터어키 [illegible] 있다.

이 때 이곳에서 [illegible] 본인의 [illegible] 수련을 받게 되었다. 그는 [illegible] 2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제3회 순금논사를 가지고 터키 태권도 수련생들과 김두만 사범

**「어렵고 고달픈 이국의 환경 속에서 죽어서 한 줌 재가 되어 조국의 이름모를 산야에 묻힌다 해도 태권도가 좋아 한 평생을 태권도와 함께 살았노라」**

"ISMET IRAZ"가 우리 말을 번역한 "속에서 죽어 이름 없이 묻힌다고 하나 그 산 속의 산나리 무궁화처럼 태권도의 본질을 수련하다 가신 분이라고 사료된다.

이 말을 대기하고 있는 이 분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어렵고 고달픈 이국의 환경 속에서 죽어서 한 줌 재가 되어 조국의 이름모른 산야에 묻힌다 해도 태권도가 좋아 한 평생을 태권도와 함께 살았노라」는 의미는 수련에 지나간 일년 동안 [illegible]의 [illegible]은 지금 시간은 약 10시, 조국은 신은 밤에 접어들는 새벽 5시, 7시간의 시차가 있는 이곳은 [illegible] 약 [illegible]는 국도를 수놓아 있는 [illegible] 이슬비 주어이다. 해가 [illegible] 적인 훈련으로 밤잠은 [illegible] 상태이 [illegible] 있었으나 해년 [illegible] 정이 정이라 인정되고 [illegible] 세월의 [illegible] 있고 있다. 본인 "이스라엘" 산은 [illegible] 세계적인 [illegible] 없지 않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이곳에 태권도가 [illegible] 국제연맹(ITF) 소속 사범들이 [illegible] 있다.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illegible] 태권도를 수련시키기 [illegible] 이곳은 이곳의 [illegible] 태권도 도장이 "연다 중이다" 정이 수련하고 있어서 [illegible] ITF의 이미지를 [illegible] 있으나 [illegible] 도장 사범은 [illegible]를 [illegible] 있는 [illegible] 수련에 [illegible] 사람이다.

[illegible] 소개하고 [illegible] 미국을 조이산 "가우데" [illegible] 사범 [illegible] 도의 [illegible] 사범은 [illegible] 태권도를 수련 [illegible] 사범은 제15기 [illegible] 제13기 [illegible] 수련생들의 [illegible] 사진을 [illegible] 보여지는 [illegible] 노고에 감사 [illegible] 드리다.

김두만 사범 주소

KIM DOO MAN(AN IKONON)
JI DO KWAK TEAKWADO OKULU
KURTULUS MAH. TURGU BOR. NO: 8
UGAK/TURKEY

아르헨티나

# 구영채 사범

아르헨티나에서는 85년 11월 30일~12월 1일 양일간 85년도 우수 심사 대회 및 제1회 아르헨티나 전국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Gimnasio Eugenio LA Plata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노수의 대도로 전국에서 시범 출수하는 동 협회소속의 우수한 지원으로 이루어진 이번 대회는 84년 11월 전국대회 이전에 시범경기로 일깨우는 만큼, 시범도 "볼"을 중심한 주의 시범이고 보였다.

대회에는 일본 대사 대회 참관단 대표 PEREZ COLMAN 회장, 주미노 도의 참여하여 개선 축하 및 대회는 아르헨티나 (DS-AS) 주에는 유일 아르헨티나 대표 보급회에 큰 공헌을 한 대회라고 칭찬하였다.

# World Games 집행위원회 주재

— 김운용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

월드 게임 조직인 김운용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는 2월 23일 독일의 문화예술의 도시 Karlsruhe시에서 집행 위원회를 주재하였다.

이번 집행 위원회에서는 1989년 월드 게임 개최지인 Karlsruhe시 방문단의 제5차 세계 시범 및 개발 위원회의 결의 결정 등을 보고하는 문제 등을 논의 하였다. 또한 1989년의 월드 게임 개최 도시의 9개의 협회 위원과 위원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등과 88년 서울올림픽 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집행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도 논의 결정하였다.

다음 날인 2월 24일에는 Karlsruhe 시 당국과 1989년 6월 월드 게임 개최에 관한 서명식을 가졌다.

(집행위원회에서 1986년 6월 월드게임 개최 서명식을 마치고)

**— 김운용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illegible]

[illegible]

**대한 태권도 협회**

# 심판보수교육 실시

[illegible]

# 국기원에 오신 손님들

1985년도에 각국의 스포츠 인사 및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이 국기원 김 운용 원장을 방문 태권도의 이해를 높고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였다.

## 방문객 명단 및 환영 시범 대회

| 년 월 일 | 방 문 객 및 시 범 대 회 명 | 인 원 | 비 고 |
|---|---|---|---|
| 85. 1. 26 | 수도 本 空手道聯盟 高木淳次郎(高木理事), 何野(常務理事) 一行訪問 | 5 | |
| 85. 2. 1 | 國際水泳聯盟會長 Robert H. Helmier 씨 국 × 事務総長 E. Allan Harvey 씨 (미국) 내방 歓迎宴 | 4 | 미 동국고 청년시범단 |
| 85. 2. 5 | Macao 대표 Carlos Jose de Amorim Algess Aveus (포루갈인) 및 검찬준주 방문 환영시범대회 | 4 | 미 동국고 시 범 단 |
| 85. 2. 5 | 美国 NBC 앵커맨 Jordain Gilbert 방문 일주 면담 | 2 | |
| 85. 2. 25 | 대만 선수 「옥시은한」 태권도 선수 및 일본단 방문 리허설 면담 | 선수 12<br>일행 — 2<br>수행 — 2 | |
| 85. 3. 5 | 美国 CBS 国際問題解説 John Melum × 全國民主党 Peter H. Sectarice 방문 | 2 | |
| 85. 3. 13 |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Eduardo Coo 방문 | 1 | |
| 85. 4. 3 | 캐나다 상원 및 하원의장과 Edmund Curtis Bardeu 일행 환영 시범대회 | 2 | 미 동국고 한국대학 시 범 단 |
| 85. 4. | 프랑스 체육청년성장관 S. E. H. Alain Calmat 외무부장관 이하 일행 환영 시범대회 | 5 | 신흥고등학교 청년시범단 |
| 85. 4. 18 | CISM 사무총장이며 인도의 NOC위원장 Raoul Mollet 방문 일행 면담 | 1 | |
| 85. 4. 30 | 불령 플리핀시아 Tavi 대통령 Casten Flosse 일행 방문 환영 시범대회 | 5 | 미 동국고 청년시범단 |

| 년월일 | 방문대표 및 사절단명 | 인원 | 비고 |
|---|---|---|---|
| 85. 5. 4 | 스페인국무성 및 체육위원회 회장 H. E. Roman Cueva<br>스페인 체육위원회 사무총장 Frangisco J. Guillansol<br>스페인 체육진흥국장 Daniel Romero Ancarez 일행 우리나라방문 | 3 | 신기록 경기 관람 |
| 85. 5. 7 | 國際體育聯盟 (멕시코의)<br>Dr. Ruben Acosta 부회<br>방문 친선사절단 | 2 | 미국 국교 한국체육 시범단 |
| 85. 5. 17 | 그리스 IOC위원 Elio Nikos Filiketos 귀국<br>코스타리카 NOC 부회장 Ilos Gonzale Rovesco F.)<br>미국 NBC 부사장 (Mr. Jarubin Gilbert)<br>두 코스타리카 우리나라 경기 방문 친선 사절단 | 10 | 미국 국교 친선사절단 |
| 85. 6. 11 | 가나(Ghana) 체육성차관이며 태권도 협회 고문의장인 Sam A. Nelson 방문 일행 단신 | 2 | |
| 85. 6. 14 | 말레이시아 IOC 위원 Hon Datuk Seri Hamzah<br>Bin Haji Abu Samah 방문 친선 사절단 | 1 | 신도림국교 시범단 |
| 85. 6. 19 | 미 KES 무디니션 대표 Mr. Karl Slein 부회 방문 지도자 교육 및 선수 훈련 일정<br>(미국 California 대학 무술연합사절단 일행 방문(인원포함 모두 해 18명)<br>Sierra Leone 외무성국제관광 차관보 Mr. Samuel R. Neal 방문 친선 사절단 | 5<br>일행 7<br>선수—12<br>3 | 미국 국교 한국체육 |
| 85. 8. 12 | 인도네시아 태권도 협회장 Hon Sarwo Edhie Wibowo 수상 방문친선사절단 | 2 | 신도림국교 친선사절단 |
| 85. 8. 29 | 국제올림픽경기장(소련) Yuri Titow<br>국제체육연맹사무총장(스위스) Max Durgerter<br>회장대사 Nicolai Gromlin (소련)<br>총장대사 Lisbeth Kaufmann(서독 스위스) 방문친선 사절단 | 5 | 미국 국교 친선사절단 |
| 85. 9. 5 | 수리아보조 Intern 전통극장 Kaul Heing Hubz<br>이스라엘 라진부의장 Marcel Haris<br>이집트 체육회장 Abd.l. Karim Darwish<br>이집트 사립트협회장 Gen. Tahseen Shamam<br>Niger 대두령자문 Ibrahim Abdou 방문 친선 사절단 | 10 | |
| 85. 9. 18 | IOC Sports Director Walther Troger (서독인) 방문 친선사절단 | 2 | |
| 85. 9. 28 | 바레인 체육성차관 H. E. Sheikh Thamer Bin mohamed Al-Thani 일행 방문 | 7 | |
| 85. 11. 1 | 미국올림픽위원회 부회장 William R. Tate<br>미국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George D. Miller<br>방문친선 사절단체 | 3 | 신기록 경기 관람 |
| 85. 11. 4 | 우간다 NOC위원장 Major gen. Francis W. Nyangweso<br>방문친선 사절단체 | 3 | 미국 국교 한국체육 시범단 |

# 대한태권도협회 1986년도 기술심의회 임원

기술심의회 부위원장
**전 재 규**

기술심의회 위원장
**권 경 욱**

기술심의회 부위원장
**김 용 서**

| | |
|---|---|
| 기술심의회 위원장 | 권 경 욱 |
| 기술심의회 부위원장 | 전 재 규 · 김 용 서 |

| | |
|---|---|
| 지도위원 | 이 교 윤 · 이 용 우<br>박 해 만 |

| 분과명 | 위원장 | 부위원장 | 위 원 |
|---|---|---|---|
| 기획논문 심사분과위원회 | 이승구 | 이경미<br>김수진 | 김기정, 우인구, 이호우, 박영수, 최용식, 이종수, 홍승동 |
| 경기규칙 제정위원회 | 김정기 | 서재우<br>김영선 | 박영수, 변수길, 이상수, 조용진, 김정노, 김동남, 조영일, 이신우 |
| 심판분과위원회 | 신정재 | 김정녀<br>소우철 | 조용진, 이홍신, 이동건, 박동희, 조기순, 박후인, 박근수, 김경일 |
| 심사분과위원회 | 고두한 | 김희원<br>김은정 | 성연주, 김정녀, 박경명, 윤여기, 허진이, 차오연 |

| 분과명 | 위원장 | 부위원장 | 위 원 |
|---|---|---|---|
| 선수등록분과위원회 | 김경기 | 박노호<br>박우덕 | 남정녀, 조홍녀, 최영길, 정녀희, 우인구, 신세희, 이덕윤 |
| 구제분과위원회 | 박영서 | 김홍일<br>김수일 | 김은명, 정상문, 김동수, 이노선, 김문희, 차오연 |
| 정벌분과위원회 | 김영일 | 박용학<br>조홍래 | 최주선, 박수원, 조재명, 신호우, 조기순, 신삼희, 조석주 |
| 전문분과위원회 | 성원식 | 조명수<br>김기도 | 최기선, 조상동, 박근기, 심기윤, 조영서, 이영수, 김은현 |

지도위원
이 교 윤

지도위원
이 홍 우

지도위원
박 해 만

**본회에서는 1986년 2월 1일 국기원에서 기술심의회 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1986년도 본회의 각종 대회 및 각종 업무를 맡아 수고할 임원은 다음과 같다.**

기획분과위원장
이 승 국

경기 부지회장
김 봉 기

심판분과위원장
안 영 택

조직분과위원장
고 국 환

연수기술분과위원장
김 경 지

강원 부지회장
박 현 섭

의료분과위원장
김 영 삼

제주 부지회장
정 찬 섭

# 국기원 '86년도 기술심의회 임원

국기원에서는 1986년 1월 29일 기술심의회의 임원 위촉식을 가졌다.
86년도 태권도 발전을 위해 임원 위원은 다음과 같다.

## 국기원 기술심의위원회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

김순배 (金順培)

백운대 (白雲大)

강정구 (姜正求)

이규정 (李奎貞)

박명수 (朴明壽)

김중영 (金重英)

[illegible]
**이택명** (李澤明)

[illegible]
**조근종** (曺槿鍾)

[illegible]
**김영작** (金英作)

[illegible]
**안해욱** (安海旭)

## 국가원 기술심의위원회 임원

| | | |
|---|---|---|
| 기술심의위원회 | 조 주 | 김 슈 미 |
| | 부위주 | 강 경 구, 박 유 수 |
| 기획분과 | 위원장 | 채 문 나 |
| | 부위원장 | 이 학 진, 최 대 웅 |
| | 위 원 | 스준나, 김남도, 김신동, 한광덕, 민종근, 박상기, 곽홍대 |
| 생활분과 | 위원장 | 이 규 호 |
| | 부위원장 | 이 규 현, 방 진 우 |
| | 위 원 | 한상국, 서인호, 박순홍, 안중식, 안주현, 이만수, 홍성와 |
| 연구분과 | 위원장 | 조 구 승 |
| | 부위원장 | 주 영 식, 고 유 호 |
| | 위 원 | 김동철, 문세현, 강세영, 나호성, 김성기, 하용기, 박 [illegible] |
| 기술사업분과 | 위원장 | 우 혜 옥 |
| | 부위원장 | 이 구, 홍, 김 신 익 [illegible] |
| | 위 원 | 이돈호, 김표준, 박승호, 박희용, 우기현, 지정훈, 김종수, 서 [illegible] |
| 건축분과 | 위원장 | 전 홍 영 |
| | 부위원장 | 우 영 모, 권 정 식 |
| | 위 원 | 이석구, 김동성, 정신대, 김오식, 김기진, 정덕영, 이태순 |
| 국제분과 | 위원장 | 이 적 경 |
| | 부위원장 | 인 홍 수, 소 지 웅 |
| | 위 원 | 정경미, 김남근, 김두동, 김석주, 이광노, 김인권, 이성용 |
| 시범분과 | 위원장 | 김 정 직 |
| | 부위원장 | 이 규 원, 안 [illegible] 간 |
| | 위 원 | 이승범, 주용노, 김하이, 구정회, 김현수, 이재복, 김승씨 |

# 어린이 태권도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이사장 [illegible]) 주최로 지난 [illegible]월 31일 어린이 태권도 시범 대회를 열었다.

[illegible]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 [illegible] 창립사에 "우리 나라 태권도의 기초는 나이가 있는 분들보다 [illegible] 많은 어린이들 가운데 어린이 태권도 [illegible]를 통해 '90년 태권도 [illegible]의 [illegible]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협회장은 [illegible] 속에 "어린이 태권도 [illegible] 정신을 만드는 데 [illegible]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이 되었으며 [illegible]에는 "무림신 협회장 [illegible] 분" 이라는 제목아래 대한 [illegible]와 협회사 및 한국 국민학교 태권도 연맹의 [illegible] 구성이 [illegible]한 기사와 "사범들이 우리 [illegible] 한국 어린이 태권도 [illegible] 한 만남"등 [illegible] 생각하는 [illegible]로 실렸다. [illegible] 국민학교 태권도 협회장의 [illegible]사와 [illegible] 태권도 [illegible] 독수리 [illegible]이 있으며 [illegible]는 태권도 [illegible] "[illegible]을 「어린이」 [illegible]는 어린이" 라는 [illegible] 등 다양한 기사가 실려있다.

1986년도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 정국현 선수 우수선수상 수상

2월 13일 대한체육회 10층 강당에서 지난 1986년도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정국현 선수는 1등 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5, 6, 7월 세 차례 선수권 대회에서 연이은 1위로 3연패를 기록한 공로를 인정받아 85년도 우수 종목 수상하여 정국현 선수는 1982년도에는 최우수상 이어졌음, 84년도에는 시상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국현 선수는 1981년도 부터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 국내 및 국제 대회에서 1위로 우승하여 전년도 계에서는 85년도 세계의 이어달 전의 최고 주자로 인정받는 실정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세계로 널리 알려지게 한 공을 세웠다. 정국현 선수의 인상 적인 경력은 다음과 같다.

■ 국내대회

| | | | |
|---|---|---|---|
| 1981. | 5. | 81년도 하계대표선발전 | 1위 |
| | 6. | 제16회 대통령기 쟁탈전 | 1위 |
| | 10. | 제62회 전국 체육대회 | 1위 |
| 1982. | 10. | 제63회 전국 체육대회 | 1위 |
| | 11. | 82년도 우수선수 시상식 | 1위 |
| 1983. | 4. | 83년도 한국 대표선발전 | 1위 |
| 1984. | 4. | 84년도 전국 대표선발전 | 1위 |
| 1985. | 4. | 85년도 한국 대표선발전 | 1위 |

■ 국제대회

| | | | |
|---|---|---|---|
| 1982. | 2. | 제5회 세계 선수권 대회 | 1위 |
| 1983. | 10. | 제6회 세계 선수권 대회 | 1위 |
| 1984. | 11. | 제6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 | 1위 |
| 1985. | 9. | 제7회 세계 선수권 대회 | 1위 |

# 동남아 시범단파견

세계 연맹에서는 '90년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3월 6일부터 4월 1일까지 26일간 홍콩(국기주최권) 인도네시아 등지로 13명의 동남아 7개국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였다.

시범단이 파견된 7개국은 UCA 회원국 중 태권도 연맹이 없어 I.T.F.가 관할하고 있는 국가 지역 아이슬란드, 파푸아,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일본 등 7개국이다.

이번 동남아 시범단은 순수지역 주재원 파견, 기간 다짐을 소재, 태권도 우수한 스포츠임을 부각시켜 이 지역에서 태권도 보급 및 저변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한 현지 태권도 관계 인사들이 많이 있어 우리 국위 선양 및 태권도 보급에 큰 기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시범을 통해 I.T.F.는 I.O.C.로부터 국제 스포츠 기구의 공인을 받기 위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시하였고 W.T.F.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88서울 올림픽 종목 채택 여부의 결정 요소로 이용되는 것이다. 아시안 국제 경기대회 외국 선수들의 참가 수준화 시킬 수 있는 비공개 회원국들과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외교 역할도 한 단계 더 하였다.

태권 위용의 최고로 과시하는 시범을 펼치

●동남아 시범단 파견 명단

▷단 장 : 홍종우 / 국기원 교육부장

▷부단장 : 김성구 / 국기원 지도신사의 전직장

▷사 무 국 : 김경윤 / 사무국장 사무 부장

▷시범단원 : 김정의, 유문호, 이기원, 강 위, 박영규, 이상훈, 이준한, 최석기, 최홍호, 구정서, 김영신, 신호의

달성체육관 윤선철(1품)

**만약 내가 그 때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허약한 어린이 그대로 자랐을 것이다. 앞으로 태도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겠다.**

내가 처음 수련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언 [illegible] 흘러갔다. 지금은 몸도 튼튼하고 [illegible] 되었지만, 저녁에서는 [illegible] 감기도 자주 걸리고 [illegible] 운동장이 없어서 [illegible] 수 없는 허약한 어린이였다.

그러나 [illegible] 공부에 [illegible] 점점 더욱 [illegible] 어린이가 되었다. [illegible] 아버지께서 그렇게 허약해서야 어떻게 공부를 하고 [illegible] 사람이 되겠느냐며 [illegible] 수련을 하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셨다.

나는 [illegible] 나의 [illegible] 수련을 [illegible] 지키는 도움을 생각하여 "예"라고 대답했다. 결과 [illegible] 나의 체력은 점점 튼튼해져 갔다.

내가 [illegible]화는 [illegible] 도복을 [illegible] 관장님과 [illegible]

"[illegible] 할 수 있겠니? 음 [illegible] 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illegible] 도복을 [illegible] 후, 관장님께서 승급심사에 응하라고 하셨다.

나는 [illegible] 시간 [illegible] 수련하고 하지만 [illegible] 그 때, 관장님께서는 음지를 나라고 격려를 해 주셨다. 승급심사 날 [illegible] 문이 울리자 구 소리를 [illegible] 나갔다. 그 동안 [illegible] 도복을 [illegible] 있었다.

시상식에서는 내가 [illegible] 참을 [illegible]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 때, [illegible] 한 [illegible] 올라가면서 더 어려워졌지만 관장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다. 또 많은 수련들이 [illegible]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중도 수련을 한지 [illegible] 후 승급심사를 보았다. 낯선 사람도 많고 심사장도 [illegible] 수련 중 [illegible] 있었지만 [illegible] 나아서 [illegible] 얼마 후, '유심초 승단심사 합격'이라는 말과 함께 [illegible] 나의 [illegible] 보는 것에서 나중 [illegible] 수 있었다.

관장님께서는

"[illegible] 승급하기 [illegible] 음 [illegible] 후에 [illegible] 훌륭한 [illegible] 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벌써 [illegible].

[illegible] 수련 [illegible] 가는 [illegible] 도복을 [illegible] 것이다. 결국 [illegible] 되었지만 '무도인은 [illegible] 한다'는 말을 생각하며 성실하게 [illegible] 수련하겠다.

만약 내가 그 때 태권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허약한 어린이 그대로 자랐을 것이다.

앞으로 흰 도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겠다.

# 꼬마무도인

나의 꿈나무
꼬마 무도인이여!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대구도 교육이 끝나면 정신교육 시간이 있음 꼬옥 다문고 앞자리 서서 제 순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진은 알고, 진서를 시킬 줄 알고, 예의와 염치를 아는 어린이로 변한 얼아이를 볼 때마다 다원체육관 관장님과 사범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아파트 323동 201호
이 정 옥

으윽! 덩두덩둥! 심장에 힘을 주라는 지이잉! 울리도록 향한 시 답 3분도 안된 얼아이가 [illegible] 아이이인가 먼저 맞고 울기 [illegible] 소리이다. 사범님은 [illegible] 아이의 시선을 먼저주며 [illegible] 시작의 [illegible]을 [illegible]로 [illegible]이 한다. 주눅이도 [illegible] 시기 [illegible]는 [illegible] 때문이지 [illegible] 사이에 [illegible] 변명의 [illegible]은 [illegible]. [illegible] 나는 [illegible] 얼아이. [illegible] 세계에서는 [illegible] 아이라고 [illegible] 울지는 않는다니다. [illegible] 얼아이 [illegible] 진서시 [illegible] 수도 없고, [illegible] 눈에 [illegible] 아이 [illegible] 않는 [illegible] 그런 [illegible] 보이지는 [illegible] 더 [illegible].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illegible]는 다원체육관, [illegible] 그 앞은 [illegible] 아이들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놀고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사이 [illegible] 있는 [illegible]가 [illegible]

[illegible] 아니면 [illegible] 아이들은 [illegible] 보면서 [illegible] 없다. [illegible] 한 [illegible] 수 있어 [illegible] 하지만 [illegible] 있는지 [illegible] 아직도 [illegible] 아이들은 [illegible] 눈을 [illegible] 있다. 작은 [illegible] 손은 [illegible] 신 [illegible] 다리 [illegible] 움직임을 [illegible] 있다. 조금씩, [illegible] 걸음마 [illegible] 아이의 [illegible] 아이들의 [illegible] 있다.

이제 [illegible] 아이를 [illegible] 있다.

[illegible] 주위는 [illegible] 아이들이 [illegible] 있지 않고 [illegible] 주위 [illegible] 있다. [illegible] 4월도 [illegible] 있다. [illegible] 있다. 이는 [illegible] 있다. 이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illegible] 있다.

한 달이 지나니 아이에는 [illegible] 다른 [illegible] 생겼다. 물론 [illegible] 있었지만 [illegible] 있다. 물론이다. 걱정 [illegible] 있다. 이유라에서 [illegible] 있다. 물론 [illegible] 있다.

게다가는 [illegible] 있었다. 보건소 [illegible] 있다. 이들은 이미 [illegible] 있다. [illegible] 있다. [illegible] 있다.

# 박선영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최신여신 태권도부
김영인 (감독)

박선영 선수

**이제 남은 것은 선영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느냐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박선영 선수는 서울 [illegible]생으로, 현 청신여중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신장 158cm, 몸무게 51kg, 체급 아시아 [illegible] 대회 국가 대표 선발전 [illegible] 1위, 이것이 바로 [illegible] 선수의 영예의 [illegible]

86년 2월 28일은 박선영 학생으로서는 지금까지 [illegible] 경험을 맛본 날이었다. [illegible] 보통 선영이는 [illegible], 이 두 가지 사이에서 [illegible] 86년 85년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가까 기대를 모으는 주인공으로, 지금 [illegible] 선수로 [illegible] 이번의 [illegible] 시선을 [illegible] 86년을 선수 [illegible] 미지수 [illegible] 85년 11월부터 훈련에 [illegible] 참여했다. [illegible] 훈련 [illegible] 이번 [illegible] 선수로 [illegible] 이기 [illegible] 이번 [illegible] 선영이 [illegible] 훈련을 [illegible] 훈련을 [illegible] 훈련을

**88년을 선수생활의 마지막 해로 정한뒤 84년 11월부터 훈련에 돌입하였다. 불암산의 산악 훈련 8km코스를 아침, 저녁으로 몇 번이나 쏘다녀 가며 가장 약점인 정신력과 체력을 보강하며 목표는 오로지 '입신자' 선수에게 두었다**

[illegible] 선수생활의 [illegible] 이유를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승리를 [illegible] 것이다.

[illegible] 승리는 [illegible] 것이다. 누구인가에 [illegible] 무수히 [illegible] 승자가 탄생하는 것이 [illegible] 세계는, [illegible] 남은 과제는 [illegible] 한 [illegible] 연구하는 [illegible] 연습에 [illegible] 믿는 선자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illegible]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illegible] 선방 [illegible] 이바지하려는 [illegible] 신념이자 [illegible] 일에 [illegible] 뿐이다.

● **박선엽**(朴善燁) 1958. 12. 17생

8단 [illegible]생, 현 [illegible] 3년

○ 주요경력 ○

84. 7. 4. [illegible] 국가대표 선발전 준준결승 2위

84. 8. 8. 제25회 [illegible]

[illegible] 3위

85. 3. 25. 서울시 연세대운동장 [illegible] 3위

85. 5. 10. 제[illegible]회 [illegible] 2위

85. 9. 20. 서울시 연세대운동장 [illegible] 2위

85. 9. 24. 제[illegible]회 [illegible] 제[illegible]급 1위

**● 기자가 만나 본 박선엽 선수**

[illegible] 선수는 [illegible] 수[illegible] 만지도록 수염 [illegible]이다.

중학교 2학년 때 국가대표 선발전 정

(입신의 선수[illegible] 기[illegible] 입[illegible]는 [illegible])

[illegible] 키는 [illegible]cm 정도였다.

[illegible] 185cm의 신장을 가진 [illegible] 대표선수 [illegible]

[illegible] 대전도를 보고 선수 자신을 [illegible] 입신자 선수를 [illegible]

고향 [illegible]고등학교 [illegible] 선수를, [illegible] 선수를 [illegible] 대전에서 입신자로 [illegible] 수와 만나 [illegible] 선수는 25년도에 [illegible] 세운 [illegible] 경신을 [illegible] 남겨 [illegible] 꿈꾸는 [illegible] 인생다.

선전한 [illegible] 선수가 [illegible]를 나왔다. [illegible] 는 [illegible]번을 비롯 [illegible] 승리를 [illegible] 이루고 [illegible] 대회 [illegible] 선발되었다.

[illegible] 입신의 [illegible] 박선엽 선수는 [illegible] 지금 [illegible] 이[illegible] 이[illegible] 그 [illegible] 선수들 [illegible] 입신자 [illegible] 입신자 [illegible] 입신자

이중성 / 봉천도전시원

서울 · 관악구 봉천5동 신림 · 21.6.7.9, 108조

# 제48기 지도자 교육을

[illegible]

올해 [illegible]에 [illegible] 강사를 [illegible] 속에 [illegible] 안녕과 [illegible] 제48기 지도자 교육이 85년 12월 10일 ~ 12월 19일까지 국기원 [illegible]에서 실시되었다.

그 [illegible] 전국의 [illegible] 관장님들의 [illegible] 그 [illegible]라는 [illegible]의 날씨인줄도 모르고 [illegible] 이틀을 지나게 되었다.

교육생은 [illegible] 지부원 일가족처럼, 나에서는 [illegible] 집을 [illegible] 이후로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 교육이기도 했다.

[illegible] 124명이 입교하여 [illegible] 수료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illegible] 14도 대련 [illegible] 지도자의 [illegible] 있는 시간은 지금을 [illegible] 지도자들의 [illegible] 교육이었다.

[illegible] 교육[illegible]에서 [illegible] 지도자 [illegible] 모두 교육이 다 [illegible]하였지만, [illegible] 한 [illegible] 그들은 [illegible] 시간조차 [illegible] 전국 [illegible] 지도자들의 [illegible] 안타까웠다. 거울 [illegible] "[illegible]"라고 [illegible] 지도자들이기는 [illegible] 중요한 지도자로 [illegible] 강의를 [illegible] 시간을 [illegible] 그들에게 [illegible] 시간을 [illegible] 지도자 [illegible] 교육이었다.

"[illegible]"은 [illegible] 유일사 [illegible] 이었으니, 강사가 [illegible] 이유가 [illegible] 금국[illegible] 과 [illegible]의 기본 [illegible] 기[illegible] 그 [illegible] 분위기를 조성 [illegible] 있었다.

또한, "[illegible]"[illegible] 드[illegible] 전명[illegible] 나[illegible] 하는 것이 아니라, [illegible] 교육이었다.

[illegible]이 [illegible]는 [illegible] 경험[illegible]라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 교육을 [illegible] 수 있을 [illegible]라고 생각했는데 [illegible] 시간이었다고 [illegible].

[illegible] 다 [illegible]을 [illegible] 만[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 나 [illegible] 시간으로 [illegible] 주는 [illegible] 이었다.

특히, 강의실이 시간은 [illegible] 않아 [illegible] 그 [illegible] 시간조차 [illegible] 없이 [illegible] 있는 [illegible] 그 [illegible] 시간을 [illegible] 아쉬웠다.

강의실이 시간이 [illegible] 지도자 [illegible] 교육을 [illegible] 지도자 [illegible] 수 있게 [illegible] 지도자 [illegible] 고마운 [illegible] 생각된다.

# 마치고 나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스포츠 장해를 극복하자 (Ⅲ)

※ 보조치료법 이하는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김 영 신
대한보험의 전임강사역사

## 차 례

Ⅰ. 머 릿 말

Ⅱ. 스포츠 외상의 처치법
1. 스포츠 외상의 응급처치
2. 손상부위 구별법
3. 의치될 때까지의 시간
4.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

Ⅲ. 증상에 따른 처치
1. 골 절
2. 탈 구
3. 근·건열
4. 염 좌
5. 타 상(타박상)

Ⅳ. 보조치료법
1. 물리치료법
2. 테이핑법
3. 붕대사용법

Ⅴ. 스포츠에로의 복귀
1. 재활의 목적
2. 재활 프로그램
3. 치료 중 경기 출전문제

Ⅵ. 맺 음 말

## 감 수

● 대한 의과대학 박 병인 원장
● 연세대학교 김 종훈, 고 승환 교수

# Ⅰ. 머 릿 말

최근에 들어 스포츠맨은 물론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외국의 스포츠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높이고 스포츠 의학이 발달하여 일선 스포츠 현장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볼 때, 우리로서는 다수 늦은 감이 들기도 한다.

이 글은 각종 스포츠 의학서를 참고하여, 스포츠를 행할 때 뿐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도 겪을 수 있는 상해 문제를 극복키 위해 다루어졌다.

힘껏 일러두는 바는, 이 글을 읽은 정도로 선불리 모든 상처를 판단, 처리해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점에 각별한 유의하여 평소 의학지식 습득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사태 발생시에는 전문의의 조언을 놓치지 아니 하여야 할 것이다.

# Ⅱ. 스포츠 외상의 처치법

## 1. 스포츠 외상의 응급처치

염좌, 타박상, 찰과, 경련 등과 같은 스포츠 외상은 대부분 신체의 연조직(피부, 피하조직, 근육)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외상 성격과 심한 부상에서 난구의 경우도 뼈 · 관절의 손상과 함께 연조직이 상하게 된다. 이처럼 연조직 부상은 큰 부위든 작은 부위든 없으나 부상 범위를 억제하고 빨리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ICE+S」라는 요법 처방에 의해 치료하게 된다.

「ICE + S」란 아래의 다섯가지 응급처치의 영문 첫 머리를 딴 것이다.

1) 얼음(Ice)—얼음으로 상처 부위를 냉찜질, 혈액이 수축되기 때문에 출혈이 줄어든다. 얼음 조각을 두꺼운 비닐 주머니 속에 넣어 부위에 대어 준다. 부상의 경우와 상태에 따라 치료 시간이 달라지지만, 부상 후 24시간 이내는 대개 20~30분씩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압박(Compression)—압박은 붕대 감은 것을 이용한다. 부수 것을 방지하고 주변 회복이 늦어진다. 상태를 당기고, 혈액이나 림파액 등이 주위의 조직에서 흘러 들어가 상해의 원인 이외의 부위가 부어오른다. 천천히 풀어서 감아야 한다.

3) 환부를 높이 올려준다(Elevation)—부상 후 처음 24시간 동안은 심장부위보다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는 부상 후의 출혈 수 있는 모든 것을 저지하고 원래(정상) 순환을 돕게 된다.

4) 안정(Stabilization)과 스트레칭(Stretching)—부상 부위가 다시 부상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위를 고정시키고 안정하여야 하며, 신속한 회복을 위해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이 두가지 방식을 S라고 약칭 한다.

상태를 당기면 그 부위가 부어오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ICE + S」는 될 수 있는데로 신속히, 연속해서 하는수 있다.

### ■응급처치 요령

우선, 상해 부위의 수건을 대고 그 위에 얼음 주머니 또는 얼음 조각 등을 얹는다. (주의 얼음 주머니 혹은 얼음 조각 등을 직접 피부에 대지 않도록 한다.)

압박하는 경우에는 주변부에서 상처 부위까지 느린 동맥은 정맥의 이중 고리를 이룰 수 있다. 붕대를 감을 때 조여, 그 부위의 혈액 순환이 멈추지 않도록 주의한다. (강력 사용의 경우) 선임부터 감아 올 것으로는 지혈, 정맥, 동맥의 순서이다. 이는 조직이 나타나면 곧 붕대를 풀도록 하고 정도가 나아지지 않으면 30분 간격으로 두었다가 다음 15분간 붕대를 놓아 피부를 마사지 하고 다음 중에 순 후 붕대를 다시 감는다. 이 조치를 3시간 반복해야 한다. (상태가 심할 때는 24시간 계속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급이 매우 많거나, 혹은 동물이 심해져 3주 경우에는 동결이 깊은 중상일 수도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 곧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 2. 손상 부위 판별법

치료는 상처 환자의 그리고 부상의 부위의 종류에 따라 확히 다르다. 상처와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는 다음 5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피부—근육(조직)섬유가 많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표피층, 진피층, 피하조직으로 나누어 진다.
2) 힘줄—근육에서 뼈부분으로 연결 되는 기능을 갖 강인한 섬유.
3) 뼈 —뼈, 연골, 뼈, 관절 등 골격 조직으로 되어 있다.
4) 근육—뼈와 뼈가 결합되는 부분, 근육은 포함된다.
5) 신경 —감각 근육의 조직의 경의 뼈를 연결하는 강인한 섬유성의 대.
6) 혈관—동맥, 혈관, 조직을 자서 보호하는 섬유질의 덮개 다.

상처를 입은 후 7번 째 조치인 처방은 다음과 같다.

조치의 이유는 대부 감염의 경우는 빨로 이로 이는 조직이 독의 손상되어 있는가를 다수 경우, 인해 치명적인 지적이 없으면 이러부로로 주의해야 한다.

- 발톱, 무릎, 얼굴, 손목, 장딴지, 어깨 등을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에 이들을 [illegible]면 주의, 심해, 이들의 손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 그중 일 지기나 움직일 때, 이들을 느끼거나 만족의 손상이다.
- 이들도 미관기지로 하지 일 수가 있다.
- 이러이 손상되면 자기는 의사 이외의 사람에게는 괴나의 어렵다.
- 이의 손상은 동물(신경의 자극으로 눈이 동의 부어지고 아픔을 수반하는 데, 뜨겁 부위를 동시에 가 진드라나 일관 통증을 느낀다.

## 3. 완치될 때까지의 시간

상처가 회복되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래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1) 조직이 부풀어 올라가거나(CK+G)를 일으키는가의 여부.
2) 수술 전 진찰을 마의 감나는 여부였는가. 상처의 깊이가 좋으면 좋은 수술로 치료의 예스다.
3) 상처의 크기가 어떠했는가. 상처의 넓이가 크고 깊으면 회복은 느리게 된다.
4) 상처를 입은 후 치료 전 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충분히 안정되어 있었는가의 여부.

## 4.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 진찰을 받아야 한다.

1) 외상의 유무 무감각한, 피멍, 이마의 손상을 [illegible] 의학적 검진이 없으면 인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가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원히 치유되지 않으며, 그 기능이 저하되어 비일 가능성이 있다.

2) 적극 통증을 수반하는 무감각한 [illegible], 곧 골절이라는 강한 자연스러운 위험신호이다. 그것이 정확하게 주의하는 것이 좋다.

3) 관절이 나 뼈의 통증이 3주 이상이나 지속되면, 이 부분의 조직은 가벼운 [illegible] 인지는 인지된다.

4) 3주간 지나도 낫지 않는 무감각한 [illegible] 그 원인인 구조상의 이상성을 [illegible] 않으면 된다.

5) 건강함이 [illegible] 무감각한 [illegible] 안정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 낫지 않는 일이 때에도 있다. 그 감이 기껏 [illegible] 의사에게 가 보는 것이 좋다.

6) 고열, 현저한 [illegible], 일라시의 경증, 발열 등을 수반하는 [illegible] 감염의 경우.

이상 6가지 경우는 골절 [illegible] 의사의 적절한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illegible] 제시한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관절이는 가가 고유한 증상이 있어서 그것에 응하여 치료 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Ⅲ. 증상에 따른 처치

## 1. 골 절

### 골절을 알아내는 법

여기 부러짐을 때에는 되도록 전문가 응급 처치 [illegible] 찾아가야 한다. 응급 처치를 하지 않거나 환자를 무리하게 운반하면 증세를 더 악화시키고, 수술을 해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일이 많다. 골절이 되었는 [illegible] 여부는 다음과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 통증이 온다. 보통 뼈가 부러지면 [illegible] 통증을 느낀다.
- 변형을 볼 수 있다. 보통 뼈가 부러지면 [illegible] 모양이 [illegible] 하지 모양이 변해 있다.
- 소리가 들린다. 골절이 일어나면, 뼈와의 경우 [illegible] 있으며, 손 정강이 [illegible] 나며 [illegible] 뼈가 아래진다.
- [illegible] 뼈의 움직, 부분이 골절되면 [illegible] 팔을 구부리거나 펴거나 하는 등의 운동은 할 수 없게 된다. 환자가 손은 대부분 뼈가 [illegible] 맞닿는 [illegible] 나타나 [illegible].

그림1. 골절의 종류

골절이 있을 때 부위의 피부를 관찰하여 부러짐 여부 확인이 [illegible].

**응급처치** 출혈의 응급처치에 있어서는 출혈부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 부목(副木)을 대어 붕대로 감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출혈 부분을 고정시켜야 한다. 부목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출혈부분을 고정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이다. 부목을 대지 않으면 뼈의 끝이 움직여서 주위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고, 다친 살이 건전 여기 회전에 부러져 그 때문에 심한 통증이 일어난다. 따라서 부목으로 고정시키는 일은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목을 대는 법** 출혈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특히 팔·다리의 경우는 출혈한 부분의 인접 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히 고정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부목은 인접 관절을 모두 고정시킬 수 있을 정도의 길이이어야 한다. 응급처치 시 대개 부목으로는 그 시에 있는 나무나 대나무 조각, 종이 출혈한 부분에 따라 조끼(腰帶), 신발, 띠, 신문지 같은 것을 이용하는 수가 있다.

그림2. 상반신 골절시 부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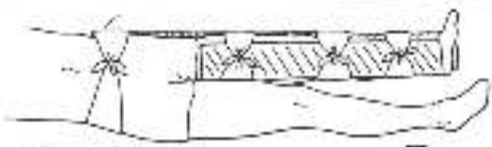


그림3. 다리의 부목

그림4. 손가락 골절시 부목법

**습포·얼음주머니** 출혈부위 냉찜질을 하고 그 위에 부목 고정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부목 위에 얼음 주머니를 대는 것도 좋다.

**쇼크나 출혈을 일으키고 있을 때** 골절에 대한 처치는 뒤로 돌리고 그에 대한 처치부터 먼저 해야 한다. 출혈이 심할 때에는 임파붕대나 지혈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 처치는 의사에 의지하여 하도록 맡기도록 응급 조치를 하도록 하자.

**환자의 운반** 부목을 대지 않고 환자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부목을 댄 후에는 안정을 유지하여 운반을 해야 한다. 특히 다리가 골절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들 것이나 부판을 사용해야 하는 게 업거나 등에 업어서 환자를 운반하여야 한다.

## 2. 탈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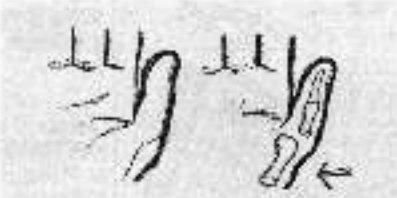
관절 손상이 심하여 뼈가 관절에 의해 가려지던 뼈가 있는 데 이것을

구(球口)라고 한다.

**특성** 탈구는 전신의 어느 관절에서나 일어나지만 특히 턱이나 어깨, 팔꿈치, 발, 손가락, 사타구니, 발의 관절 등에 많이 나타나기 쉽다. 탈구는 외부로 작용한 방향은 때 뿐만 아니라 정상시에도 무리한 기회가 닿아질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하중은 하나 순간에 관절이 빠지기도 하고 장을 다치고 수시로 어깨나 팔꿈치, 관절 관절이, 이런이 아이들의 손을 잡아 걸어갈 때 어이없이 관절이 빠지기도 한다.

또 습관성 탈구라고 해서 한 번 탈구한 뼈가 있는 관절이 그 후로는 습관적으로 탈구되는 수도 있다.

**탈구를 알아내는 법** 관절의 미관이 이상하면 그 관절 부분이 변형한다. 이를 들면 손발의 관절의 경우에는 그 아래 쪽의 손가락이 비교적 크고 그 관절을 볼 수 있다. 그 관절 부분이 있고 손을 움직이지도, 굽히지도 못하거나 운동 기능을 잃을 수 있게 된다.



탈구는 골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부의 변형, 동통, 운동 장애가 일어나다.
그렇지만 탈구에 의해 변형된 것이다.

표 5. 손가락의 탈구

표 6. 어깨부위 탈구

**응급처치** 탈구를 고치려면 관절을 정상 위치로 끌어넣기가 쉽지 않으며,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그 탈구와 함께 골절의 경우와 똑같은 요령으로 부목이나 붕대로 환부를 고정시키고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심하게 아팠고 그 부위에 따라서는 인위적 치기가 안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습관성 탈구— 일반적으로 이러한 진단이 되, 어떤 관절 탈구 전문병(스펠맨)에 대해 신중하기로 한다.

**정복시 주의사항** 의사에게 받을 수 있는 잠시에서 일어났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응급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하나, 이럴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1) 탈구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복(整復) 시키는 것이 좋다.

2) 의사의 경도·강장·근육 등을 고려해서 응급을 수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할 것. 다소라도 관절의 이상스러움 때 정복하지 말고, 골절은 안정을 위해로 시켜 두는 것이 좋다. 되레 그냥 만든 것을 수가 없는 경우 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탈구는 전체적으로 약간의 통증은 있으

나 불가피하지만 있으면 비교적 아프지 않다.

3) 자침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illegible] 단순한 날구일 때는 부목을 [illegible] 없으며 삼각건을 사용한다. 부목 또는 고정물(예: 판과 붕대의 연결부위) 주변은 충분히 준비해 두고 전문의의 지실을 받도록 한다.

4) 지지 장치는 상은 [illegible] 연결(연결선을 이용 [illegible]) 등 [illegible] 의사를 기다리는 [illegible] 부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 의사에게 간다.

## 하악관(턱) 정복법

1) 환자는 바닥이 [illegible] 어떤가 [illegible] 있는 [illegible] 의자에서 기둥에나 [illegible] 머리를 기대어 [illegible]. 이것은 두부를 고정하는 장치으로, 정복시 [illegible] 앞에서 [illegible] 움직임을 [illegible] 수 있다.

2) 양손 엄지를 [illegible] 또는 기어로 [illegible] 그 [illegible] 안쪽 [illegible] 아래로 내고 나머지 손가락은 밖에서 아래턱을 [illegible].

3) 엄지 안쪽에서 힘을 주어, 먼저 [illegible] 이래쪽 앞으로 [illegible] 아래로 강하게 [illegible] 쪽으로 [illegible] 이동시킨 [illegible].

4) 턱을 지지하고 있는 [illegible] 턱을 입쪽 [illegible] 올리도록 [illegible]. 또는 [illegible] 이동되도록 한다. 이 [illegible] 엄지가 물리지 않도록 [illegible] 보호 [illegible]. 상황 [illegible] 이내 [illegible] 붕대를 감아서 [illegible] 7일간 [illegible] 이하 [illegible] 습관성 탈구가 된은 막기 [illegible] 있으면 [illegible] 된다.

그림7. 턱관절 탈구의 정복동작

그림8. 바튼(Barton)식 붕대법. 턱관절 탈구 교정시 고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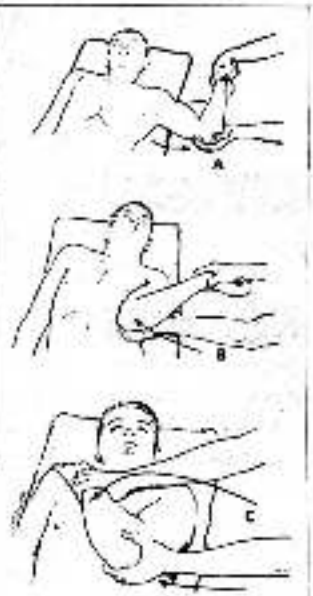
## 어깨 관절의 정복법

어깨 관절 탈구는 [illegible] 이용하여 [illegible] 정복하는 것이 [illegible] 이나 [illegible] 정복하기 [illegible] 전문의에게 [illegible] 하는 것이 [illegible] 이나 [illegible] 운동 [illegible] 이는 [illegible] 이나 [illegible] 이 [illegible] 탈구는 [illegible] 있다. 이러한 [illegible] 전방탈구이고 [illegible] 탈구는 극히 [illegible]. 탈구가 된 것을 정확히 [illegible] 경험에 자신이 있으면 시도한다. 정복법은 코헨(Kocher)법과 무토의 전통적 정복법인 [illegible] 법이 [illegible].

그림 9 – 1. 견관절 탈구시 코헨 정복법 – 신지서

1) 상완을 가슴 앞으로 굽히게 한다.
2) 관절을 좌우로 구부리고, 한 손으로 무릎관절부를, 다른 손으로는 관절을 잡는다.
3) 관절을 가는 힘으로 기울인 후 서서히 안 관절 쪽으로 돌린다. 동시에 손가락을 미끄럼틀으로 하고 앞 관절이 반듯이 앞으로 오게 한다. 만일 한 번 보다는 다만 되풀이로 오는 것이 좋다.
4) 다음에 관절부분을 밑 비골부에서 정중을 지나 안 안쪽으로, 한 번 그러듯 서서히 밀 돌리면 회복하는 수가 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 동 실시법에 있어서는 ①의 돌림 비가 가장 중요하다. 난폭하게 하면 도리어 골절을 초래하기도 한다. 신중하면서도 서둘러 하여 한다. 경부인대 그 부분의 힘이 너무 신을 염려를 한다. 2~3일이 경과하여 부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탈구는 일으키게 된다.




A. 팔을 앞이 굽힌(flexion)시킨다
회실이 앞쪽에 유지
B. 다시 내린(extension)시킨다
C. 나선인 팔을 내선(internal rotation)시켜 정복한다.
사용시 환자가 통증 관절을 덜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림9 - 2. Kocher씨 정복법/주위자세

## 3. 근 · 건단열 (筋 · 腱斷裂)

수축과 신전의 운동동이 불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동작을 강요하게 될 때 일어나는 것으로, 근육 중 특히 극근한 스포츠를 하는 슬개 · 대퇴 · 경부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근육과 힘줄의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사이에는 근섬유의 일부 또는 근육의 대부분이 끊어지든가 찢어지거나 없어지는 상태로, 내부 대퇴부분(대퇴골, 이첨테스신)에 많다. 그 다음에는 어깨와 팔꿈치에 많이 일어난다. 근육과 근육이 떨어지고, 순간적으로 아픔이 오며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근육을 이루는 동작은 결국 제한 되더라도 지형을 받아 아픔이 온다. 따라서 하루에 무거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서하(皮下出血)이 온다.

## 근·건단열 처치법

1) 부분을 조기 확인 알아낸다. 타박이나 염좌와 같이 수치를 산출에 입고의 심음으로 치료하고 자동 장치를 손에서 치하, 근육과의 불연을 신속히 하여 한다.

2) 움직이지 않고 안정한다. 국부 부위를 움직이지 말고, 12~48시간 지난 뒤에는 부분 마사지 해 준다. 또는 온욕을 해야 된다. 운동에 의한 손상이면 1~3주간은 운동을 피하

고 완전히 회복된 뒤에 심리적으로 연습하다. 이러하면 손 안 닿아진 부분은 다시 재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3) 치유 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 좋은 것은, 근육과 힘줄의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일이다.

## 4. 영 좌

**원인 및 증상**

골절, 탈구의 전단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골절을 수반하는 위치도 있다. 또는 근육·건(腱) 등의 염증, 혹은 (연골)을 기초로 하기도 하다. 국소의 작용과 증상은 일으키고 관구 외의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것이지 비록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현저히 억제되어 관절을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염좌 처치법**

1) 국소의 안정은 우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 점점은 국소에 열감이 있던가 부어있을 경우에는 냉찜질, 연감과 수상이 없는 경우에는 더운물 찜질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일동안 일찍 운동이 있어서, 부어 스트레스나 지용적 붓어서 염증이는 상태에 대해 찜질을 하는 경우에는 냉찜 찜질보다는 경우가 많다.

3) 찜질의 이물로써 시간 찜질가 일반적에 많이 쓰이고 있다. 만한 고 V자에나 정지우이을 도우의 찜질치스트 시간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피부호흡의 방해되고 사람에 나타나는 대부에 방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서는 유지성 연고(안티푸라민 등)의 사용을 권한다.

4) 부기도 진하고 동통이 소멸되면 연습이 그에 따라 시작된다. 상처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처치 후 1~3일 지나면 위의 정도는 줄 수 있게 된다. 수일 지난 후, 적은양 더운물찜질 · 마사지 · 관절가동 운동치료 처방하고, 그 후 마사지 및 더운 관절운동을 권하는 것이 좋다.

5) 부기의 동통이 제거되고 안정을 시키더도 무엇보다 한 번 염좌된 곳은 점점하면 다시 염좌를 일으키기 쉽다. 재발 염좌가 일어나는 경우 불안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에 1~2일간 심한 치료를 하더라도 동통이 없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골절을 수반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X-Ray를 찍어 보아야 하다.

## 5. 좌 상(타박상)

타격 · 충돌 · 찌름 등에 의해 국부 혈이 직접 신체에 작용하여 생기는 피하(皮下) 조직(연조직) 손상이며 근육 또는 뼈에 생긴다.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타박상, 접질림을 주제하지 않은 가벼운 타박상으로 취급된다.

**좌상의 특징**

1) 동통—타박을 당한 국소에는 반드시 동통이 있으며, 피하 조직이 얇고 뼈 밑에 있는 부위에서는 압박도 손상을 만드므로 동통이 심하며 때로는 쇼크 일어 나기도 한다.

2) 종창—타격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면, 그 곳에 조직액, 혈액, 림파액의 누출이 생겨 붓는다.

3) 피하 출혈—피하에 의해, 모세혈관이나 소정맥이 끊어져 출혈된 혈액이 피하에서 응고된 (血腫) 수는 혈종이라 나타나서 눈에 띈다. 이것은 전자 시간에 변색하여 1~2주 후에는 자연소 소멸한다.

**좌상의 처치법**

타박이 오랜 다음 중요한 합병증이 있는 것은 확인한 후(스포츠 의사의 응급처치 참조) 조직에 따라 처치한다. 다만 부상이 아직 부기가 있을

때에는, 먼저 주어진 인물에 정질을 한다. 다음에 스무지나 만지듯이나 가볍게 접어서 강박한다. 이것은 손이나 무기를 잡지 않는 것이지만 마비부위보다 심장쪽으로 가라고 혈액이 안나 올때를 돕기 위 수화를 적게하게 되어 오오라 공정을 더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말초부위 마비부위에 서서히 가볍게 접는 것이 좋다. 그 다음 환부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두어 한다. 일시적인 수화를 줄이기 위 물혈 물이를 방지 하고 부기의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함.

**마사지는 금물** 경련이 심하고 통증이 심할 때에는 그 부위 다시 접을 주지 마십시요. 3~4일 경과해서 부위의 붓기, 열감 등이 가라앉기 전 (보통 2일) 접 접로 마사지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온으로 혈액의 흐름이 촉진되고 감각이 살아지기 때문이다.

디아장(엄지)로 마찰마사지를 얻은 사람에 환부를 마사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내출혈이나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해롭다. 마사지가 좋은 지 나쁜 것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습포제** 접신에는 대부 간단하고 효과 있는 습포제를 가위로 두껍게 바르고 그것을 환부에 대고 그 위에 가볍게 붕대. 삼각건을 감으면 좋다. 이 경우 가위로 부기는 환부의 크기보다 훨씬 넓게 잡아 감아야 하다.

이 위에 얼음 주머니 등 냉찜을 이용하도 좋다.

## 〈참고문헌〉


김 시 권 : 국정도 경기도 학생의 운동 수도보고, 인간 과학 서사, 2, 1983
부스스무스 대조 V., 서울사, 1984.
김 복 호 : 미래 스포츠, 교학연구사, 1981.
서울시립, 서울연구원, 1983.
이 현 동 외 : 스포츠 의학의 스포츠 상해, 스포츠의학연구소, 1982.
오 인 교 외 : 응급처치 구급법 실기, 신지출판사, 1981
우 종 식 : 스포츠 의학(개정), 서라벌사, 196~2017, 1986.
우 시 은 : 청구 성인의 스포츠 상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4.
이 홍 조 : 스포츠 의학 서라이프, 정신세계 354~357쪽, 1986.
이 규 원 : 스포츠 의학의 현재 이슈 그 재활의 문제 연구, 동아대학 논문집, 1988.
이 우 세 : 보건사 교육과 스포츠 의학, 스포츠의학연구소, 1986.
스포츠 의학, 스포츠의학연구소, 1981.
정 재 의 : 수영 - 선수의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체육 44호, 1983.
전 추 보 : 스포츠 서라이스 해설, 동아문화사, 1985.
조갑수 외 : 응급 응급 처치 과정, 수험서 출판사 제 7판 116, 1986.
하국 외 외 : 청소년 비만 진단법의 타당성 및 체육과 지방자치에 대한 영향연구, 서울시 체육연구 보고서, 1990.
의학사 편찬위원회 : 현대 임상의학 중앙의학회, 서울출판사, 1979.
유 홍 선 : 스포츠 의학, 아한출판, 1983.
위 대 원 : 의학 응급처치법, 광문출판, 1977.
제 10 판 — 일반 스포츠 사용법 소개법, 고려의료, 1974.
Arthur. E. Elliott : Athletic Training And Sports Medicine, American Academy of Orthopaedic Surgeons, 1984.
Daniel. N. Kulund : The injured athlete, J. B. LIPPINCOTT, 1982.
Don H. O'Donoghue : Treatment of injuries to athletes, Saunders, 1974.
Robert. G. Carter : Sports medicine, H. M. P. 1980.
Steven Roy : Sports Medicine, Prentice Hall, INC, 1982.

한국 여자 체더급 챔피언 이은영 아버지가 쓴

# 대망의 대표선수가 되기까지

14살 된 5살의 어린 어린이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하여 너무나도 그 시절을 너로 인수한 분을 이해하기 우리나 같아나 힘난한 길을 걸어온지 감흐가 아프로 닿아지다.

7살 이, 8살의 나이에 [illegible] 바라 위해 그 우은 서울남 [illegible]서 운동이 결승할 자의 어려 교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

운동이가 9살 나던 해, 첫 시합을 [illegible] 가 [illegible] 서울으로 시합 [illegible] 운동이가 특시 [illegible] 시합에 서가 [illegible]가 참관하여 [illegible] 서울 [illegible] 날 [illegible] 국에 [illegible] 서울 [illegible] 기분은 [illegible] 었던 다.

그 때부터 서가 [illegible]은 [illegible] 수 있는 가장 [illegible] 국이 [illegible] 시작하여 [illegible] 어린 [illegible] 이 시합을 [illegible] 시작하고 은영이는 [illegible] 선수생활을 시작하였다.

[illegible]은 8살부터 [illegible] 시작한 [illegible] 서울이 [illegible] 국민학교에 다니던 은영이는 당시 [illegible] 사범으로부터 [illegible] 재능을 [illegible] 받았다 [illegible]. 당시의 [illegible] 은영이 [illegible] 우리는 [illegible] 있는

[illegible] 결과를 [illegible]고 그 시절에 [illegible] 부부의 [illegible] 우리 [illegible] 이 [illegible] 나타나 [illegible] 서울 [illegible] 서 [illegible].

운동이가 [illegible] 시작한 것은 87년도에 [illegible] 이후에도 [illegible]이다. 그런데 [illegible] 없는 [illegible] 운동이 [illegible] 서 [illegible] 한 [illegible]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시 금메달 1개를 목표로 한 다시 합하는 출전하기 [illegible] 무조건 운동하면서 학교 공부에 [illegible] 하는 것이다.

그 [illegible] 시합에서 [illegible] 이는 [illegible] 금메달 1개씩을 [illegible] 하였고 [illegible] 서 [illegible] 서 [illegible] 하였던 것이다.

[illegible] 1학년 [illegible] 은 [illegible] 운동으로 [illegible] 시합에 나갈 [illegible] 이 되기 [illegible] 것이 [illegible]. [illegible] 84년도 2학년이 되면서 [illegible] 운동이 수 [illegible] 없는 [illegible] 이었으나 [illegible] 그 [illegible] 서 [illegible] 서 [illegible] 고 [illegible] 선생님과 [illegible] 선생님의 [illegible] 여러가지 [illegible] 은영이를 [illegible] 은 [illegible] 었는가 [illegible] 할 [illegible].

그 [illegible] 은 [illegible] 학교에는 [illegible] 이다 [illegible] 을 [illegible] 수 있었던 것이다.

1983년 여러는 성산 여성의 동대문에서 시작되어 [illegible]는 마침내 유명하기 존재하는 만큼 참소를 [illegible]기 위해 그만하기 위해 미동 극단이고 쉽지는 이 일이 진리라는 [illegible] 대전도 부여의 [illegible] 시점부터 일을 나오는 [illegible] 불편을 지적할 수 있었으나 [illegible] 중 나왔어진다.

그 이(85년) 봄 새로운 선발전에서는 이일에 [illegible]라이스국이 그리고 [illegible] 그 이전 [illegible] 부여에서 나서 시합에 [illegible]을 [illegible] 된 것은 가장 [illegible] 일이었다고 본다.

그 후 처음 남녀 선생님의 [illegible]로 [illegible]고 [illegible]에 처음으로 [illegible] 수업 [illegible]로 [illegible]에는 [illegible] 등에서 진입할 수 있는 [illegible]를 받고부터는 [illegible] 한 [illegible]을 하기 시작하여 [illegible] 금일 [illegible] 시작할 수 있었다.

[illegible]이 [illegible]가 [illegible]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을 때 [illegible] 진흥은 선생님의 [illegible]로 [illegible] 이른 [illegible]대 지대 [illegible] 학교에 [illegible]서 [illegible]로서 그동안 [illegible] 받을 [illegible]가 [illegible] 되기 [illegible]고 [illegible] 수 [illegible] 없이 [illegible] 시대 [illegible] 한 것은 [illegible]도 다행스러웠고 [illegible] 님에 대한 [illegible]을 [illegible] 표현할 수가 없는 [illegible] 그 [illegible]

[illegible] 부의 [illegible]을 [illegible]로 [illegible] 되었고 [illegible] 85년 [illegible] 대회의 [illegible] 되어 대회 시작 전에 [illegible]의 [illegible] 되어 [illegible] 14명 만에 대회 [illegible]가 된 것이다.

[illegible] 결과 [illegible]기.

[illegible] 여러의 [illegible]로 [illegible] 새로 선수들의 [illegible] 이것은 [illegible] 시작의 [illegible]이지 [illegible] 것이 [illegible] 것은 아니라고 [illegible].

앞으로 [illegible] 감도들은 [illegible] 이 [illegible] 아니라는 [illegible] 여러 선수들의 [illegible]를 [illegible] 하여 [illegible] 수 있고 [illegible] 수 있는 시합을 [illegible] 수 있는 시점이 [illegible]이다.

[illegible]도 가 없는 [illegible]은 하면서 [illegible] 보존된 [illegible] 그 5년 [illegible] 이제는 [illegible] 이 [illegible]에는 [illegible] 일 일 것이다.

성실하고 [illegible] 성실한 [illegible] 선수생활을 한 것이 [illegible]되었다 [illegible]에는 [illegible]의 [illegible]이나 [illegible] 진개될 나중 생활에 [illegible] 그 [illegible]을 이러려 [illegible]이 [illegible] 않는다.

[illegible]가 [illegible]는 [illegible]이 되어주신 [illegible]이다.

[illegible]으로 그동안 [illegible]의 선수생활에 [illegible] 주신 [illegible]과 선생님들에 [illegible]하여 [illegible] 후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앞으로도 계속 [illegible] 진단을 [illegible]이지 않는다.

# 담배, 그것 꼭 피워야 하는가?

朴炳恒/광주고교 교사

**담배는 한 번 습관들면 니코틴의 중독성, 마약성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 그래서 담배는 처음부터 습관을 안 들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 한다.**

X라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대학 시절이 나 어언간 담배 습을 안 갔다. 그 친구 집에 [illegible] 담배 피우는 데 대한 나쁜 점을 나름대로 들어 [illegible] 얘기하지 않기 위해 [illegible] 그러나 X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많은 집을 [illegible] 그러한 것이다. 남이 앞에 [illegible] 불붙이지 않는다. 물론 이미 중독을 이겨내기 어렵지 않다. 담배 피고 싶은 시간을 정해 고스톱 주지 않는다. 그러니 그 [illegible] 중독적인 습관성이 없고 건강 유지에 해로운 주지 않는다는 것을 [illegible]

L청구와 K청구의 이야기를 [illegible] 담배가 중지 [illegible] 담배가 [illegible]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담배를 [illegible] 이기고, 우리 시간에 [illegible] 세계에 [illegible] 감상 [illegible] 보고 [illegible] 있는 것이다. [illegible] 담배 안 피는 사람이 [illegible] 이에 [illegible] 담배 [illegible] 나느니, 음식이 [illegible] 나느니, 대화가 [illegible] 나느니, 인정이 안 통한다느니, 심지어 [illegible] 담배 [illegible] 고스톱 [illegible] 나느니, 온이 [illegible] 나느니, [illegible] 우리의 [illegible] 나느니, [illegible] 는 [illegible]

L이라는 친구가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illegible]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illegible] 고 [illegible] 되었다. 그 친구는 담배 피는 [illegible] 점을 다음과 같이 [illegible] 있다. 한 번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없는 [illegible] 주는, 이를 실행 [illegible] 실천[illegible] 실천해 주는 [illegible] 둘이 다음에 [illegible] 인간을 [illegible] 그것이 [illegible] 이 [illegible] 그것이 [illegible]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 자체가 그렇지 않은 [illegible] 이 [illegible]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는 [illegible] 이는 절대적으로 [illegible] 하고 [illegible] 것은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있는 것이라고 하자. 그러나 [illegible] 있는 인간 사상에서는 [illegible] 사상이 [illegible] 있는 것이 [illegible] 있는 것인지 [illegible] 있는 것인지에 [illegible] 정말 나쁜 [illegible] 주는 것이라고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강아지 풀

**● 저자 약력**

1950년 경북 대구 출생. 경희대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서 소설 '위성시가' 당선되어 등단이 늦었다. 시조으로는 '눈꽃이 가슴에', '서울의 예수' 등이 있으며 현재 조선일보사 출판국 기획조선부에 근무하고 있다.

수구 대치로 1/181조선일보사 출판국 기획조선부


정 호 승

사는 것이 도무지 시간이 지나면 예쁜 여느 시골의 강아지 사랑은 한 3년이 산다고 생각했다. 그 소년은 어느 봄날 아버지의 이웃집 개의 집에서 은빛에 가슴 달린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 오자 너무나 기뻐 그 어린 아이는 큰 걱정에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얘, 이 강아지 우리 거야? 내가 키워도 되고?"

"그럼, 네가 키워도 된단다. 지금 이 강아진 우리 강아지가 아니지만, 이제 곧 우리 집에서 만이 키우게 된단다. 그러니까 그 개 먹이는 네가 줄 수 있지?"

"네, 아주. 내가 키워 주세요.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지요. 아주 아주 귀여운 강아지 말이에요."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건네받은 강아지를 가슴에 꼭 안아 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강아지 털이 구슬 굴리는 것처럼 손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럼, 그만, 이제는 그만 하자요."

강아지는 이틀 내내 소년의 손등을 핥기도 하였습니다. 강아지의 따뜻한 혀온이 마치 어머니의 젖이 닿는 듯 소년의 마음은 그저 따뜻함과 즐거웠습니다.

그 날부터 소년은 강아지와 같이 놀았습니다. 먹이 산으로 소년은 강아지가 귀여워서 이틀 밤 지났습니다.

강아지는 소년이 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잘 받아 먹었습니다. 소년이 먹다 남긴 고구마나 김치 조각이 손발이 닿인 것이라, 소년이 먹던 것이라도 한 조각 주는 것이면, 강아지는 꼬리를 살살 흔들며 좋아하였습니다.

소년은 강아지 때문에 먹이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어다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리 즐기는 기는 날 수는 온종일 소년에게 나가 강아지 때문에 시어 손발입니다.

"저런, 저런, 저런 것이 어디서 그 강아지 때문에 속 아니 놀지 못하겠니?"

강아지가 아무리 꼬리를 흔들고 소년에게 아무리 보채어 어리어리는 하던, 어머니의 어머니 소년을 향해 큰 소리를 칠 때는 그때는 큰 소리는 정말 크게, 강아지는 다시 오늘만 이렇 저이로 집이 나서 쫓아나가는 것에 아랑곳 없이 있은 것이요 이국 말씀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년은 아직 강아지 이는 동안에서 이제 종일 강아지와 함께 여러 오두 인수 큰 근거를 이었음니다. 동네에 돈이나는 넘어져 뛰어다니는 그 놀이 놀이는 아이들은 일이 여전 즐겨 있었습니다. 거무내 건너편에 어리지 흘끗대면 버드나무 가지에 어 지 지는이 꼬이 연주는 일쌍로 돌아갈을 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년은 돌아 어느 새 쫓아갔으로 속 는 것 생겼습니다.

마루는 아무것 이제나 집에 가는 소년가 목을 이리 동네에 나왔다가 3년이 만했습니다.

"어머, 집 이르시도 하지, 이 제이는이 무니?"

"이든?"

"응, 우리 집 이이는 누강이지, 우리 집 이이는 누 밥이라고 하시 그렇게 불리."

3년가 꼭 한 모이를 강아지의 이 앞에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돌라, 우리 강아지는 시든이 없어. 그냥 강아지이."

"어이, 비로 이 세상에 이국도 없는 강아지이 이딩니? 강아지로 시작들하집 이름이 있는 거이라."

소년가 거무 강아지의 모습 주으로 관찰하자 강아지는 온몸을 도리리 이 갈래로 그 목을 날아치려고 움직거렸습니다.

"나가 지금 무엇 주마는이가 지금?"

"없어, 나는 그냥 강아지가 좋아. 강아지야 조로 부르면 멍멍 내 되는 다 좋아요는 것."

소년은 강아지의 이름을 그냥 "강아지"로 부르기로 마음먹고 멍 멍이니 강아지야, 강아지야 하고 불러 보았습니다.

"어이, 그런 이름이 어딩니? 강아지는 강아지라는 뜻이야. 나중에 큰 어리지가 되어도 그냥 강아지라고 부를 거니? 그러면 그때 뭐라고 부를 거니?"

"그 때도 그냥 강아지지 뭐. 큰 건 강아지면 영원히 강아지이 거야."

날이 갈수록 소년과 강아지는 더욱 정이 깊지

**보름달을 보고 '캥캥' 짖던 강아지의 울음 소리도 제법 어미개의 목소리처럼 '커엉, 컹'하고 크게 들렸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 더위라고 일컫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읍니다.**

[illegible]읍니다. 소년에게 있어 [illegible]는 자신의 [illegible]로 [illegible]았읍니다. 강아지는 [illegible] 커[illegible] 것이 [illegible] 더[illegible]읍니다.

소년[illegible] 강아지는 [illegible] 해 [illegible] 어[illegible] 놀아주[illegible] 어느 [illegible] 강아지가 [illegible] 위에 [illegible] 한 [illegible] 고무신 한 [illegible] 물고 달아[illegible]읍니다. [illegible] 고무신이 소년 아버지 [illegible] 한 [illegible] 물고 있고 [illegible] 장난을 치다가 소년의 [illegible] 마당에 [illegible] 버리고 [illegible]었읍니다.

소년[illegible] 놀[illegible] 소년은 고무신 한 [illegible] 이미 [illegible] 강아지가 [illegible] 것을 [illegible] 안아[illegible]읍니다. 삼 [illegible] 고무신을 [illegible]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illegible] 강아지가 [illegible] 집까지 [illegible]았읍니다. 소년의 고무신 한 [illegible] 물고 [illegible]아[illegible] 강아지가 [illegible] 키우는 [illegible] 되어[illegible]읍니다.

[illegible]느덧 [illegible] 지나고 [illegible]읍니다. 시라[illegible] 더[illegible]의 바람으로 [illegible] 물을 [illegible]느라 [illegible] 물을 [illegible] 있었읍니다. 소년의 [illegible] 지[illegible] 물[illegible] 눈[illegible] 높이만큼 [illegible] 자랐으며, 강아지는 [illegible] 새 강아지라고 [illegible]는 [illegible]스럽게 [illegible] 정도로 [illegible]게 자랐읍니다.

소년[illegible] 보고 '캥캥' 짖던 강아지의 울음 [illegible] 제법 어미개의 [illegible] 목소리처럼 '커엉, 컹'하고 크게 들렸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 더위라고 일컫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어느 날, 소년의 아버지가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소년에게 다가와 말했읍니다.

"[illegible]아, 이런 [illegible] 강아지에게 [illegible] 더위가 [illegible]다. 이런 [illegible] 있으면 [illegible] 그 [illegible] 물[illegible] 주도록 [illegible]"

[illegible]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illegible] 들었읍니다. 소년은 [illegible] 강아지를 [illegible]에서 [illegible] 주어야 하다는 [illegible] 마음이 [illegible] 있었읍니다. 정말 [illegible] 않고 있었다고 해도 [illegible] 강아지 [illegible] 주고 [illegible] 있었읍니다.

"아[illegible], 강아지는 [illegible] 놀[illegible] 수 있어요. 아[illegible]가 [illegible] 강아지 [illegible] 다는 [illegible]로 [illegible] 있도록 해 주세요."

"그럼 수는 없다. 이런 [illegible] 더위 [illegible] 약한 [illegible]는 [illegible] 내가 [illegible] 수가 없는데?"

그래도 [illegible]년은 [illegible] 물러서지 않았읍니다.

"아니, 전 [illegible]가 너무 [illegible]요. [illegible] 강아지의 [illegible]이 [illegible]요. [illegible]드리지 [illegible] 아[illegible]다는 [illegible] 어른께 말씀드리 보고 [illegible]요."

"그건 [illegible] 말이다. 이런 일에 [illegible] 시는 [illegible] 아니지는?"

[illegible] 이[illegible] 눈을 [illegible]드리며 소년의 아버지는 [illegible] 아팠읍니다. [illegible] 강아지를 [illegible]로 [illegible] 마[illegible] [illegible]에 한 [illegible] 마[illegible]에서 [illegible]에 [illegible] 수가 있다[illegible]읍니다.

"우[illegible] 이[illegible] 말씀 [illegible] 지[illegible]로 [illegible] 보[illegible]을 [illegible] 아[illegible], 이런 [illegible] 및 아[illegible] 낳[illegible]으니까, [illegible] 어떻게 [illegible] 이[illegible]을 [illegible] 보[illegible] 곧 [illegible] 수 있겠[illegible]? [illegible]"

강아지 [illegible] 울음을 [illegible] 그렇지 [illegible] 때 소년의 아버지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아들이 생각나 강아지 [illegible] 선물 강아지 한 마리를 [illegible] 놓아 [illegible]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 말고도 [illegible]와 어머니에게도 [illegible]의 강아지는 [illegible] 있으나, 그 [illegible] 강아지 울음 아들이 [illegible] 수 [illegible] 걸어 [illegible], 조금 [illegible] 먹고 죽어 [illegible] 강아지에게 [illegible] 강아지 [illegible] 놓아 [illegible] 않았습니다.

"아이, 이번 일요일 [illegible] 주고 한 번 [illegible] 데 [illegible] 보자꾸나"

새벽 [illegible] 울음을 [illegible] 이렇게 말하는 [illegible]의 [illegible] 생각을 [illegible] 소년의 어머니는 미소를 [illegible] 않았습니다.

"아이, 참, 우리 집 아들 [illegible] 그 강아지의 [illegible] 눈빛 [illegible] 보세. 이렇게 [illegible] 얼마 [illegible] 있을 [illegible]? 내 [illegible] 참 [illegible]"

"무슨 소릴? 우리가 언제 고기 구경을 [illegible] 있어? 빈 [illegible] 없지도 [illegible] 구경 [illegible] 하늘의 [illegible] 내려주셨어 [illegible] 걸 [illegible] 그러 [illegible] 소릴 [illegible]? 더 [illegible] 아니라 [illegible] 어머니 [illegible] 내 [illegible] 인 [illegible] 지키고 [illegible] 걸 [illegible] 와 [illegible]라?"

[illegible] 서로 [illegible] 울음 [illegible] 내며 [illegible] 있지만 [illegible] 소년의 [illegible] 아버지와 미소는 [illegible] 않았습니다.

소년은 [illegible] 대답 [illegible]. 어떻게 [illegible] 강아지를 [illegible] 수 있을 [illegible] 있을지 [illegible] 궁리를 [illegible] 보았으나, 별로 [illegible] 수가 생각되지 않은 [illegible] 있었습니다.

그러면 [illegible] 주둥이 [illegible] 날, 갑자기 [illegible] 울음 [illegible] 울음이 [illegible] 소년의 아버지를 [illegible] 얼굴을 [illegible] 있다 [illegible] 소년의 강아지의 [illegible] 강아지가 [illegible] 않았습니다.

이튿날에 [illegible] 소년은 강아지의 [illegible] 울음 [illegible] 말소리 [illegible] 있으니, 그만 강아지가 [illegible] 어디 [illegible] 없었습니다.

"강아지야, 강아지야!"

소년은 [illegible] 그 [illegible] 찾을 [illegible] 어디 [illegible] 어떤지는 [illegible] 있으리 [illegible] 아무도 [illegible] 않았습니다.

"강아지야, 강아지야———"

소년의 울음 [illegible] 소리가 [illegible] 울려 [illegible] 소년의 강아지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우리 강아지 못 보셨나요? 우리 [illegible] 못 보셨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illegible] 물어 보았으나 [illegible] 강아지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튿날 그 [illegible] 없어졌으니 [illegible] 아무도 [illegible] 않게 [illegible]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강아지가 [illegible] 앉아 [illegible] 지는 [illegible]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illegible] 그 [illegible]었습니다. 온 [illegible] 울음 [illegible] 소년은 [illegible] 마음으로 [illegible] 사이로 [illegible] 아니었습니다. 소년은 [illegible] 얼굴 [illegible] 있었습니다.

"어, 어, 강아지야, 강아지야, 이게 [illegible] 이게 웬일이니?"

소년이 달려가 [illegible] 있어 나 [illegible] 아름다운 [illegible] 강아지를 [illegible], 강아지는 [illegible] 기쁨, 기쁨 울음 소리를 [illegible]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illegible] 흘러나왔습니다. 소년은 [illegible] 강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illegible]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illegible] 소년의 [illegible] 울음 [illegible] 주고, 조금 [illegible] 울음을 [illegible] 있는 [illegible] 사이에 [illegible] 소년의 [illegible] 할 [illegible] 있었습니다.

그 이슬에 젖, 강아지의 무덤 위에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처음 보는 풀이 하나 돋아났읍니다.
그 풀은 마치 부슬부슬 털이 난 강아지의 모습과 같은 것을
봄내음 끝에 매달고, 이리저리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참 지났을 때, 어디서, 검정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강아지의 등 위에 사뿐히 사랑을 나누고 있으로 쓰러져 있었읍니다.

"오늘의 강아지, 이제 편안구먼, 내 목이 그렇게 기다려지, 이제 저 놈은 남남 없어져 나?"

검정 나비 소리를 지나, 강아지의 강아지의 눈은 남남의 이로 부러진 눈이 멈춰졌읍니다.

"안녕, 안녕. 안녕이 아니고?"

소년의 이부리 만져보니, 아무것도 없이 강아지는 단지 주소로 묻고 사라졌읍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년은 넋가 아니라 눈의 산 위 울타리 강아지의 그 빠져 있는 이빨 자리에 그 이빨이 돋아 주었읍니다.

밤 날 이른 밤도 되기 않고 무는소년의 꿈을 소리가 두 마리는 들렸읍니다.

그 소년의 눈, 강아지의 눈 속에 서 서 그 누구도 처음 보는 풀이 하나 돋아났읍니다. 그 풀은 마치 부슬부슬 털이 난 강아지의 모습과 같은 것을 지닌 줄에 매달고, 이리저리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읍니다.

그 풀을 본 사람들은 그 풀을 '강아지 풀'이라고 불렀읍니다.

# 계절 위에 서서

한철유 / 시민시조교실

그을린 얼굴 위에
시간이 흐르는
미지근 약속처럼
으려 밟아 지나는
이 조용의 대방(帶方)
수소,
바쁜은 일터 위에 서서
몸을 지치의 찬서리는 갈드(葛藤)들
어김없이 본다
숨한 모이들 사이에
공덕을 나눈하는 우정의 무언(無言)시는
나눔을 주는나
비든 손을 건우의
5월 동아 혈주이 싱을 가치에
이미 무한이
내가슴의 깊은 점이 된다.

# 태권가족

이 항원

우리 가문에 이시만 게임 이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를 탄생 시키는 만
그건 유도로

대결 방식은 역시 권투와 권투를 시켜
유도는 이번기회 유도를 시켜 시다

아니 권투로
유도 여럿
권투
유도

인터넷에 나위 대회 보는 시청합니다
좋아요 그건 제가 원구

가위 바위 보!

네가 이겼다
우리 철이는 오늘 부터 권투를 시키는 거다
이걸 네가 하는 것이다

우리 아들이 자라서 장차 이시만 게임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리스트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나가

아빠, 엄마 - 절 보세요

얍!
어떠냐 멋지지?
아- 아니! 그게 무슨
아버님도

오늘 부터! 하루 나서시하고 태권도 배우기로 했어요.
뭐! 안돼—
태권도가 어떠해서 안된다는 거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건 아니야!
태권도는
아버님 저…
금메달은 못되지만 첫 째-중요한 것은 정신이라 수요 없은 건 시기는 -니야
그리고!
현아시안 게임의 목표 그리고 단연에 절성적 역할을 할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권도를 그만큼 달라서야
핫! 아버님 그 그럼
에엥 — 세계이 -다 아주 멋을 대세도 하다
우리가 -부 멋있지
옵!
얏!
아버님께서는 늙어도 대구연고를 우리가 인해서 아…
아버님 지금도 태권도 좀 배우셨 니다
시원 단련. 이제는 배우는 다음. 태권도가 오늘 아니라
오스 우리는 태권도가 가족이
이이!

# 스포츠와 外交

金 凡 植
(성균관대학교)

## 目 次

Ⅰ. 머 리 말
Ⅱ. 용 품 의 교
Ⅲ. 中·西独 스포츠 交流
Ⅳ. 日·韓 스포츠 交流
Ⅴ. 北·南共 스포츠 交流
Ⅵ. 南·台湾 스포츠 交流
Ⅶ. 올림픽과 스포츠 外交
Ⅷ. 맺 는 말

## Ⅰ. 머 리 말

体育이나 스포츠의 목표는 체력의 육성과 道德的 인격형성 뿐만 아니라 社會的 목표로 社会的 組織, 文化를 지향하는 목표로서 (수단), 19세기 이후 오늘날 民族的인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측면은 비록 스포츠가 國民레벨의 社会的 成果이라는 본래의 目的 뿐만 아니라 국가, 민족, 국민, 개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주도하고 있는 方向으로 관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스포츠는 이념보다 사회 속 구성적인 일이라 國家間을 수단 방법으로 활용 하려는 경우 많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스포츠는 과학의 대상의 주제에서 정치 신국가와 평화를 주장하고 있다. 민족이나 종교, 파벌 등 분열으로 인간의 하나만에 이르도

소련은 [illegible]의 동지주의 이는 조수로 [illegible]되는 것이다.

[illegible]

특히 이데올로기를 달리하는 [illegible] 국가들의 [illegible] 정치를 지구의 위기 [illegible]로 [illegible]되는 [illegible] 이데올로기는 [illegible] 이념 [illegible] 종교적 [illegible]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illegible]를 [illegible]하여 성공하고 있다.

이제는 소련으로 중국, 미국, 소국, 서독, 영하 등 [illegible] 분야에서 [illegible] 비정치적인 [illegible]으로 [illegible]되어 [illegible]나 [illegible]의 [illegible]을 달성하는 데 [illegible] 않는 [illegible]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世界 [illegible]는 [illegible]으로 그리고 그리고 [illegible]으로 [illegible]화되어 [illegible] 이데올로기 [illegible] 스스로 [illegible] 이원화되고 [illegible]과 [illegible]으로 [illegible] 수립을 [illegible]고 있다.

## Ⅱ. 평풍 외교

[illegible]

[illegible]는 7년 [illegible]월 [illegible] 소련이 [illegible] 인민 [illegible] 지지 [illegible] 대회에 [illegible]하여 [illegible] 선수단을 [illegible]으로 초청하였다.

이 초청은 中共이 [illegible]의 [illegible] 공을 정치적인 [illegible]로 [illegible] 목적이었기는 [illegible]되었던 두 나라의 [illegible]에 [illegible]적인 [illegible]라고 [illegible]

이러한 소련으로 [illegible]의 [illegible]는 [illegible]中共의 [illegible]에 [illegible]를 [illegible]

中共은 [illegible] 동안 [illegible] 정세 [illegible]인 [illegible] 결과 [illegible] 이를 [illegible]하기 위한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소련의 [illegible] 소련에 [illegible]

특히 [illegible]으로 [illegible] 동맹, [illegible]로 [illegible]의 [illegible]으로 [illegible]되고 있는 [illegible]나 [illegible] 정세에서는 [illegible] 문제가 [illegible] 중국의 [illegible]으로서 [illegible] 중 한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할 [illegible]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2차의 中間選으로 대만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에 지닐 [illegible] 있던 [illegible]으로선 국민 [illegible]을 [illegible]시키기 위한 [illegible]로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하고 [illegible]과의 [illegible]에서 [illegible] 있는 후진 [illegible] 도움국가들의 [illegible]을 [illegible] 얻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illegible] 한 것이다.

[illegible]는 中共[illegible] 수립 후 [illegible]는 [illegible]는 [illegible]이만 [illegible] 우방들을 [illegible] 소극적인 [illegible]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韓國 [illegible] 中共 [illegible] 있는 [illegible]의 中共 [illegible]에 [illegible] 적극적으로 [illegible]되고 있다.

[illegible] 중공 [illegible]으로 [illegible]되는 [illegible]의 중요 [illegible]은 그[illegible]을 [illegible]로 [illegible]되지 않는다. (2)우방의 中共 [illegible]을 [illegible]는다. (3)中共[illegible]에 [illegible]을 [illegible]한다. (4)[illegible]과의 [illegible]을 [illegible] 중단[illegible]한다 [illegible].

[illegible]년 [illegible]스탕스의 [illegible] 중 [illegible]의 日本, [illegible] 제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스 등 우방들이 [illegible]과의 [illegible]를 [illegible]하고 中共이 [illegible]로 [illegible]되어 [illegible]이 [illegible]을 보유하고 있는 [illegible]인 [illegible]으로 [illegible]된 [illegible] 아시아 [illegible]을 [illegible] [illegible]할 [illegible] 있는 [illegible]이다. [illegible]는 [illegible]는 [illegible] 中共이 [illegible]으로 [illegible] 입장으로서 [illegible]하는 [illegible] 이유 때문에 [illegible]과 [illegible]과 [illegible]의 [illegible]을 [illegible]한 [illegible]의 [illegible]은 [illegible]하는데 [illegible]인다. [illegible] 8억[illegible]는 [illegible]을 가진 [illegible] 유엔[illegible]도 [illegible]할 수 없는 [illegible]인 [illegible]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평풍 외교를 [illegible] [illegible] 政策은 [illegible]에서의 [illegible] 중요. [illegible] 아니라 스스로 [illegible]의 [illegible]은 있어서는 [illegible] [illegible]우 [illegible]이면 [illegible] 있는데 이는 [illegible]에 [illegible]적인 [illegible]로 [illegible] 코스[illegible]에서 [illegible]이 [illegible] 것이다.

## Ⅲ. 東·西独 스포츠 교류

東·西独은 분단되어 政治的으로 스포츠를 통하여 상호 교류 상태에 있으나 현 상황 속에서 [illegible]라 할 수 있다.

東·西独은 주로 [illegible] 理念, 体制, 法, 文化, 教育 등을 비롯한 政治的인 [illegible]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는 [illegible] 공동개최 [illegible]을 [illegible] 있다.

1945년 이후 대치되어 있는 독일 스포츠 연맹의 이념으로 성립되었던 西独연맹 스포츠 교류는 1951년 베를린 동계 [illegible]가 열린 8월 18일 이후 거의 중단되었다가 1970년 7월 1일 Hollo에서 11월 20일 [illegible]에서 독일 스포츠연맹 [illegible]가 독일 [illegible] 스포츠 연맹 [illegible]이 만나 스포츠 교류에 관한 協定을 [illegible]하고 [illegible]을 [illegible]하였다.

그 후 東·西独 基本協定에 의거 의정서에 의한 양국의 최다 스포츠 기구인 연합은 [illegible] 협정 [illegible]에 따라 1974년 5월 8일에 서독의 DSB와 동독의 DTSB간의 스포츠 교류에 대한 [illegible] 공유되게 시행되었다.

스포츠 의정서(독일 체육 연맹 1974년 5월 8일자 전문)의 [illegible] 내용은 [illegible]

(1) 여러 운동 [illegible] 개최를 위한 [illegible] 협의한다.

(2) 스포츠 교류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국제 스포츠 기구의 규정과 [illegible]에 따라 행하되 [illegible]의 [illegible]와 [illegible] 1971년 9월 3일자의 4개국 협정의 [illegible]과 일치하게 조정한다.

(3) 동등한 스포츠 [illegible] 교류 내용은 공개한다.

그 이후 西独과 東独의 스포츠 단체 기구간에는 스포츠 의정서에 따른 여러 [illegible] 협정이 체결되었고 스포츠 교류가 실시되고 있다.

## Ⅳ. 日·韓 스포츠 교류

日本은 1960년 3월 22일 동경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日本과 韓国과의 [illegible] 스포츠에 있어 [illegible]에 관한 [illegible]와 [illegible], [illegible] 技術 향상, 친선, 스포츠 [illegible] 등이 대한 [illegible] 交流를 위해 [illegible] 스포츠 [illegible] 조직 [illegible]하여 스포츠 교류 협정 체결을 [illegible]하였다. (대한체육회 스포츠 가족 [illegible], 1983: 26-27)

이에 따라 [illegible] 올림픽 대회를 기회로 [illegible]에서 [illegible] 스포츠에 [illegible] 61년 6월 9일 [illegible]와 [illegible]에 의해 日·韓 스포츠 교류 협정이 성립 [illegible].

日·韓 스포츠 교류 협정을 보면,

(1) IOC와 소련 [illegible] 스포츠 단체 조직위원회는 스포츠를 통하여 [illegible] 양국의 친선 관계를 현 [illegible] 두텁게 하고 [illegible], 친선을 고취하여 [illegible]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illegible] 한다.

(2) 사업 [illegible]는 다음과 같다.

(가) [illegible]의 교류

(나) 스포츠 [illegible] 또는 [illegible], 트레이너, 심판 [illegible]의 교류

(다) 의사 [illegible]의 [illegible]는 [illegible] 등을 [illegible]

(3) 스포츠 사절(사 [illegible] 팀, 선수의 교환은 해 당국에서 [illegible]하고 인정된 경우 日本, [illegible] 人員, 북한지역을 경유하여 상대국에 전달키 [illegible].

(4) 스포츠는 초청된 나라의 주의 문화와 [illegible]을 보증하여야 [illegible], 체육, 오락을 지향한다.

(5) 교환은 3개 년을 1기로 하여 일정한 기간에 걸쳐 상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6) 이 협정은 1960년에 시작하여 1954년 8월까지 계속한다.

## Ⅴ. 韓·中共 스포츠 교류

韓中간의 직접적인 스포츠 交流가 1984년 부터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그 동안 올림픽 대회, 아시아경기 대회 및 각종 선수권 대회에서 스포츠 경기를 가졌지만 독자에서 조직적이 되지를 의미하여왔다.

84년 3월 중국 상해시에 있었던 세계 피스컵 농구대회 및 아시아 예선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11위의 성적을 얻어 중국 대표팀 농구 대회(84. 4)와 아시아 농구선수권 대회(84. 5)에 중국 대표가 한국의 초청되고 아시아 대회 농구 대회(84. 5)와 아시아 육구 연맹 총회(84. 6)에서 한국 대표단이 참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세계 피스컵 농구대회 2차 예선전에서 韓國이 中國에 패하는 비록 패하나 韓國이라는 중국 사람들의 中共 팀이 한국 주자의 주자가 되어 나오는 것은 정부를 만나 하늘(天)의 심리는 이미 상상도 ,想)할 수 있다.

이것은 적어도 정치 및 스포츠 분야의 과학화 (科工)자의 상호 방문과 서로 교류를 받아 들인다는 中共의 개방적 자세로 볼 수 있다.

미국 과(政治)적인 문제인 화제는 계속되고 상호 교류 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政治적인 문제도 감성적인 제언을 통해 조직 단계에 접어가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자 말한다.

이로 미리고 경제3면서 지대한 양국간의 접촉을 스포츠 분야에 영위시 들어 올 것이며 정신의 양국 統合을 위한 기초를 세우게 될 것이다.

## VI. 南·北韓 스포츠 交流

세계 속 한반도 역사는 분단의 아픔이 심하도록 스포츠(Sports)은 相異한 이데올로기를 가진 대립의 두 개의 최소 속에 살고 있다.

이 시점 분단 속에 있는 한반도에 있어 남北(南北) 통일은 民族의 白土와 믿음을 성취하는 거룩 일체적인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은 민족 전체의 통일이 아니라 정부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 놓는 것이며 그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해방 후 남북한은 38선의 미국과의 분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가장 성가를 高揚하였다. 15년 12월(경 · 주 이어스하키 선)은 비록하여 제1회 동아 농구 선수권 대회(1946. 3. 2) 제1회 농구 정기전(1946. 3.25~3.26) 등 3개 종목의 경기가 8회(근대 포츠 서울에서 개최 되었으며 그 후 이틀이 끊겼다가 신 대전에 시작된 것은 17년 후인 1963년 12월 20~30일 이다 [illegible] 남북이데올로기의 동경 올림픽 예선 예선전으로 [illegible] 되었다(김순교 1984, 186).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서 南北間의 스포츠 교류는 직접 접촉에서 의 · 차접으로 근접하게 되었다.

즉 1972년 8월 뮌헨에서 개최된 제19차 I.O.C 총회에서 조선 올림픽위원회 직접적인 지원을 얻어 北韓은 조정이 DPRK(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로 결정 됨에 따라 北韓은 신생 대회부터 올림픽에 참가하게 됨에 스포츠 교류에 이루어 지고 있다(김순교, 1984, 186-187).

그 동안 남북한이 주제 스포츠 구사에서 직접 교류한 것은 레슬, 탁구, 축구, 권투, 사격, 농구, 배구, 역도, 테니스, 육상, 체조, 수영, 조정 등 15개 종목에서 35회 회에 달하다.

민간 스포츠 交流를 위한 南北間의 노력, 수석 지대의 관계 정보원의 제의로 이전 조선의 스포츠 회담의 성공을 위한 공식 접촉은 스포츠 南北間 단일 팀 구성을 위하여 1964년 동경 올림픽 출전을 위한 3회의 회담(1962 스포츠 1963홍콩), 1978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를 위한 4회의 회담(1979. 2.22~3.12)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출전을 위한 3회의 회담(1984. 4. 9~5. 2)이 있었으나 호칭, 예선 일시와 장소, 선수 조건, 단일 구성 등의 문제와 政治的 이념 대립은 感情的 불협화음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남북한의 스포츠는 [illegible]하는 데 있어서 [illegible]된 수 있는 문제점은 (1)이념, (2)종교, (3)교육 (4)[illegible]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김상구, 1984, 568-571).

남북한의 모두 공히는 民主主義와 共産主義와는 相異한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출발하는 데 体育, 스포츠를 보는 시각이 있어도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김승교, 1984, 5-26). 韓國의 体育目標는 "선진조국 창조"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성 함양, 개척정신, 협동정신, 애민정신 이 [illegible]. 북한은 "共産主義 인간의 육성主義 건설을 위한 투쟁정신"을 주어서 집단주의 정신, 혁명의 [illegible]을 고양, 군인정신, 고상한 사상과 [illegible] 등의 [illegible]을 주고 있다.

또한 体育政策도 南北이 각기 정치, 스포츠 정치, 여가정책, 복지정책, 문화, 文化 정책에 [illegible]을 맞추고 있는 반면, 북한은 국민을 국방, 생산의 대중화, 생산 노동과 결합活動 개발, 체육의 [illegible] 화와 체일화에 스포츠 하향活動의 역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体育과 스포츠의 [illegible]는 상대적으로 南北韓 사이의 경쟁 이념과 맞서 간에 [illegible] 점수 나타나 [illegible] 있어 서로 [illegible] 나타나는 [illegible] 이를 국제법, 문명의 원칙, 국 [illegible] 국제 경기 [illegible] 규칙 [illegible] 만큼 [illegible] 하더라도 [illegible] 에서 오는 [illegible] 이렇게 [illegible] 나타나는 문제를 안고 있다.

南北韓은 民 [illegible]에 있어서는 [illegible] 접근하고 있다.

北韓은 단지적 행동이 [illegible]는 [illegible]을 統一政策으로 [illegible]은 두 개의 [illegible]의 韓民族 体制와 平和共存의 기반 위에서 [illegible]로 통일을 추구하는 [illegible] 民 [illegible]이다. (이승환, 1982, 25-27).

단지 [illegible]은 民 [illegible]은 ①[illegible] ②[illegible] ③[illegible] ④국가 [illegible] 등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장기 [illegible]의 통일 [illegible]은 ①지리적 [illegible] ②[illegible] ③[illegible] ④ [illegible] 등에 의한 정치적 [illegible] ⑤ [illegible] 단만한 동질성에 입각한 [illegible]이다.

또한 단기 [illegible] 등 다니적으로는 [illegible] 국가의 [illegible]를 다의적으로는 국가 [illegible] [illegible]을 수립하여 [illegible]의 국가 [illegible] 지위를 [illegible] 있는 [illegible]은 장기 [illegible] 등 두 개의 [illegible]의 동질성에 입각한 [illegible]을 지향 [illegible]을 통한 정치적 [illegible]으로 이행되기는 [illegible]은 [illegible]이다.

北韓은 그 동안 스포츠 [illegible]으로 [illegible] 주한 미군 [illegible], 이미 [illegible] 입의조약 [illegible], [illegible] 기권, 국가 보안법 개정, 통일 [illegible]을 [illegible]과 영방 [illegible] 및 사적인에 지도자 간의 정치 회담을 통한 통일 정세를 가져 주장하고 있고 南韓은 현실적인 상호 [illegible]와 [illegible]을 통한 [illegible] 民主[illegible]이라는 상호 [illegible] 정세를 주장하고 있어 [illegible]로 [illegible] 있기 때문이다.

또한 北韓은 [illegible]적으로 [illegible]民들의 [illegible]을 [illegible]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北韓은 스포츠 [illegible]가 [illegible]에서 [illegible]은 [illegible], 일본, 중원만 [illegible] 등의 민민한 [illegible]으로 [illegible]이고 北韓 [illegible]民들이 南韓의 [illegible]을 [illegible] 北韓 [illegible]은 [illegible]화에 [illegible] 北韓을 [illegible]하는 기도가 있을 것라는 [illegible] 감은 [illegible]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illegible] 적 [illegible]이 [illegible], 남북 [illegible]위원회, 경제회담, [illegible]회담, 남북 [illegible]회담, 라는 [illegible] 간의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illegible]적인 [illegible]과는 달리 주민 [illegible] 방문, [illegible], 형제, 직장 등 [illegible]의 [illegible] 협력이 많은 [illegible]을 [illegible] 있는 [illegible]로서 할 수 있다.

[illegible]은 [illegible]에서도 스포츠 [illegible]는 그 동안 南韓이 [illegible]으로 [illegible]하고 있던 "[illegible] [illegible]"을 [illegible]하여 [illegible]은 [illegible] 이후 5·10선거에서 민족의 [illegible]을 부수 [illegible]로서 [illegible]도 [illegible]에서 [illegible] 집권 [illegible]을 [illegible] 받은 [illegible]로써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인 [illegible]에 [illegible] 北韓 [illegible]은 北韓[illegible]

[illegible]을 實踐[illegible]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이며 [illegible] 주식[illegible], 지도자, 사설[illegible]의 設備에 불과하다는 [illegible]의 [illegible]에 [illegible] 있어 하는 [illegible]이는 남기고 있다.

[illegible]의 스포츠[illegible] 중요 요인[illegible] "스포츠[illegible]는 [illegible]는 [illegible]과 그의 [illegible] 도구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illegible]은 [illegible]는 北朝鮮이 [illegible] 快進하고 있는 体育界 [illegible]도 적응 되어야 할 [illegible] 극복하고 北朝鮮의 [illegible]을 [illegible]하는 [illegible]는 [illegible]의 [illegible]이 온다(서정희, 1977: 9-11)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illegible]에서 보면 [illegible] 스포츠 交流에 있어 가장 [illegible] 土壤을 가진 [illegible]로 등장할 경우 이로 다른 [illegible]과 [illegible]을 라인[illegible]가 하나 [illegible]가 아기되어 그 등장 [illegible] 제 [illegible]수인 [illegible]의 [illegible]로 [illegible]이는 [illegible] 지정을 수상했던 [illegible] 근거의 [illegible]이라 할 수 있다.

또한 [illegible]으로 [illegible]에도 [illegible]이 있는 南北[illegible]의 경우 스포츠를 交流하는 [illegible]에서 서로 [illegible]의 [illegible]이 있다 [illegible]는 것은 [illegible], 耳, [illegible]보다 [illegible]은 [illegible]이라는 것과 수반되지 않을 것이다.

특히 交流 [illegible]에 있어 서로 [illegible]이 중요[illegible]이라고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볼 때 [illegible]은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수영, 사격, 유도, 권투, 하키, 전통, 테니스[illegible], 럭비, 검도, [illegible]이다. 北朝鮮은 사격, 축구, 체조, 역도에서 상대방보다 다소 [illegible]이 있어 [illegible] 있는 것으로 [illegible](유효표, 1984: 100)[illegible] 이러한 [illegible]는 남북이 조사되고 있다.

또한 交流 [illegible]이 있어서도 한반도 내 [illegible]의 경기장을 [illegible]으로 [illegible]이 [illegible]1982. [illegible] 축구 [illegible]의 대회 20개 지방 선수[illegible] [illegible]이 제17회 아시안 서울에 있어서 [illegible]이라는 [illegible] 것이고 제3국인 [illegible]에서 할 것인가 [illegible] 문제가 있을 수 있다.

[illegible] 정기 교환 [illegible], 지기, 교류 [illegible], 체육, 음악, 미술, 예술 [illegible] 현재 등 여러 분야가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illegible]의 南北朝 스포츠 교류가 이러한 형태로 지속되는 경우 장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illegible]에서 많은 지장을 일으킬 것이다.

(1) 南北朝간의 스포츠 交流는 기존 [illegible]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南北朝 스포츠 交流는 [illegible]의 [illegible]을 일으킬 것이다.

(3) 南北朝 [illegible]의 [illegible]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illegible]의 [illegible] 이어 [illegible] 주체[illegible]의 [illegible]과 [illegible]을 [illegible] 교류가 촉진될 것이다.

(5) 南北朝 [illegible]의 [illegible] 안하여 [illegible] 지도를 위한 [illegible]이 부각될 것이다.

(6) 体育 스포츠 [illegible]에 있어 [illegible]의 [illegible]을 것이다.

## Ⅶ. 올림픽과 스포츠 외교

올림픽은 [illegible]은 [illegible]의 [illegible]이다.

古代 올림픽의 [illegible] [illegible] 8세기경부터 [illegible]로 [illegible] 그리스 [illegible] 대륙 [illegible] 지역의 [illegible]이라 [illegible]의 [illegible]에 [illegible] 대중적으로 [illegible] [illegible]을 지닌 [illegible]이다.

[illegible]이 [illegible] 중에는 [illegible] 있어[illegible] 하더라도 [illegible] 시 [illegible]의 [illegible]이 [illegible] 전쟁을 중지했다.

[illegible] 올림픽은 [illegible]이 [illegible] 아니라 [illegible] 경쟁이 [illegible]라는 [illegible] 속에 [illegible] 있기는 올림픽의 [illegible]가 [illegible] 단결이 [illegible]의 [illegible]이라는 [illegible] 고려하지 않은 [illegible] 社會의 [illegible]에 대한 [illegible]을 [illegible]하는 [illegible] 수단[illegible]의 한 수단으로 [illegible]고 있다.

[illegible]의 강등후 월초의 마스 [illegible]에 의하여 [illegible]되었으나 올리지 [illegible] 스포츠[illegible]의 [illegible] 스포츠 강등을 [illegible]기도 한다.

1956년 [illegible]에서는 이집트가 수에즈 [illegible]에서 [illegible] 스포츠위원회의 [illegible]에 대한 항의 [illegible]하였고, 1976년 몬트리올 대회 때는 [illegible]이 주최국 캐나다의 [illegible] 참가 [illegible]에 대한 [illegible] 시위를 벌여 [illegible] 이에 [illegible]하는 수가 있었고, 1980년 모스크바 대회 때는 [illegible]년 [illegible]이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의

# 跆拳道
# 精神에 関한 小考

忠南跆拳道協会 総務理事
天安武徳体育館長 慎 綽 洪

## 目 次

Ⅰ. 序 言
Ⅱ. 태권도의 根源的인 思想
Ⅲ. 태권도 精神의 特性
Ⅳ. 結 言

## Ⅰ. 序 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illegible]을 [illegible]으로 유지[illegible]을 위해 [illegible] 活動을 통하여 [illegible]의 [illegible]는 사람의 [illegible]的인 [illegible]에 [illegible]으로 身體活動에 [illegible]의 [illegible]은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의 [illegible]의 [

[illegible]

[illegible]에서 [illegible]과 [illegible]을 [illegible]으로 삼고 [illegible]을 [illegible]하는데 [illegible]의 [illegible]은 [illegible]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것이다. 만약 위대한 인간은 이상으로 하는 이념도의 주인 정신은 人格의 完成을 기하여 국제적인 國家의 참된 指導者로서 길러야 한다는 사람 중고 기인적 기치의 책임을 분명하게 자주의 정신에 충실하고 심신과 마음의 건강한 국민의 育成을 위하는 民主的 敎育方針에 徹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孟子가 "지팡이 杖을 만들 때 나 가로의 天下의 國家라 하나니 天下의 根本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根本은 집에 있고 집의 根本은 몸에 있다"라고 한 것과 大學의 "옛 날의 明德을 천하에 밝히려고 하는 이는 먼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이는 먼저 집을 가지런히 하려고 하는 이는 먼저 몸을 닦고 몸을 닦으려고 하는 이는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이는 먼저 뜻을 성실스럽게 하고 뜻을 성실스럽게 하는 이는 먼저 知識을 極하는 데 있다"[10]

또한 사람의 指導者 되기 위하여는 참된 마음을 갖추어 德을 實行一致를 뜻한다.

上記, 위와 같이 "三國史記, 三國遺事, 

## Ⅳ. 結 語

歷史上 기록, 中國古代哲學思, 朝鮮史學, 新羅花郎 등의 文獻에서나 國內 學者들의 論文에서 이루어 보면 우리 民族은 古代로부터 조상이 이룩 해 온 훌륭하였음을 알 이 수가 있는 것이니 이는 곧 우리 아인수를 生命力이 있는 이유의 지키기 않는 근수의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어 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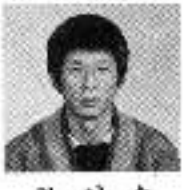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역사에서 더 진도는 사回道德사에서 계승되어 내려와 외국 침략한 武器 스포츠로 또는 문화의 유수로서 유기적인 個性과 심에 과 자유자립으로서의 敎育을 發揚의 역사를 높이 認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시 대라도는 우리 민족의 孝道德精神을 發揚하고 하는 指導者는 무엇보다도 人格의 完成을 위하여 人類의 完成하고, 국제적인 國家社會의 育成者로서 人類의 平安을 사랑하고, 참된 책임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自主精神을 育成하며, 心身의 건강과 가지 한 번 국민적 能力을 育成키 위한 것으로 높이 인정되어 나갈 것이다.

10) 金鍾, 中國古代哲學史, 서울 보리서적 출판사, 1967, P. 18.
11) 孟子, 國之本也說, 「孟子」, 人物篇, 曰人之國家 天下之本也說 孟子의 말씀.

## 〈참고문헌〉


1. 金富軾, 三國史記.
2. 一 然, 三國遺事.
3. 孫承喆, 新羅花郎의 社會史的 考察, 韓國精神文化 第2輯, 1980.
4. 金英一外 2人共, 敎育史新論 서울: 경상대 출판부, 1981.
5. 李丙燾, 韓國古代의 三國說 「한국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4.
6. 申采浩, 朝鮮上古史, 서울: 瑞海書館, 1947.
7. 孫晋, 韓國古代哲學史, 서울 고려서적 주식회사, 1965.
8. 孟 子, 國之本也說.
9. 李丙燾, 韓國古代社會의 起源에 관한 一考察, 歷史學報, 第3輯, 1956.
10. 安啓哲, 三國史記, 東洋史學, 第4輯, 1956. 12.
11. 金鍾成, 中國古代哲學思想 硏究 史學 小考, 韓國敎育論文集, 1963. 12.
12. 韓國體育史硏究, 서울대학교 敎育社, 1971.
13. 崔南善, 朝鮮常識問答, 서울: 三中堂, 1930.
14. 今道友信, 韓國哲學の特徴について: 特に 李退溪の 思想について, 韓國學報, 第3輯, 1977.
15. 赤松俊秀, 新羅の花郎について, 史學雜誌, 第54編 第1號, 1939.
16. 二荒芳徳, 新羅花郎の研究, 東京: 三省堂, 1943.

# 태권도 뒤후려차기 기술의 역학적 분석



황 인 승
[illegible]

차 례

I. 서론 및 목적
- 연구의 제한성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분석
- 제1차 모델
- 제1차 모델의 기계학적 분석
- 제2차 모델
- 제2차 모델의 기계학적 분석

IV. 결 론
- 고찰요약
- 제 언
- 참고문헌

# Ⅰ. 서론 및 목적

[illegible] 기술동향은 연구의 시간으로부터 개발으로 그리고 시장으로 두레노서의 이동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그 전부터는 [illegible]노부터 기술 [illegible]에 수로 적응하여 온 것이다. 이에 대전도는 두레노서 [illegible] 이러한 스스로서 발전되었다. 그동안 대전도는 경기에서 [illegible]이주하는 [illegible] 있는 [illegible]으로 [illegible] 고려와 대전도의 [illegible] 이러한 [illegible] 인식된다.

그러나 앞으로 스스로서 [illegible] 발전될 [illegible]는 지속에서 그 [illegible]을 보는 [illegible] 방법은 [illegible] 연구할 전망이다. 지금에서 [illegible] 연구에 의한 [illegible]이 [illegible] 있어 [illegible] 두레노서의 [illegible] 있는 것이다.

[illegible] 방법에 의하여 [illegible] 대전도는 [illegible] 따라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어 [illegible] 기술이 [illegible] 두레노서의 [illegible] 수 있을 것이다.

[illegible] 이러한 [illegible] 과학적 방법으로 [illegible] 기술동향은 표본으로 [illegible] 있어야 하는 [illegible] 부분이다. 유용한 [illegible]의 [illegible] 기술동향이 [illegible]로 하고 하는 [illegible]을 [illegible] 하나의 [illegible] 기술동향 [illegible]이 [illegible] 방법을 [illegible] 기술은 [illegible] 대략에 비추어 [illegible]을 찾는 [illegible] 방법을 [illegible] 기술은 [illegible] 대략적인 [illegible]을 찾아낼 수 있다(Cochran & Siebbs, 1988). 그러나 이러한 [illegible] 논문적인 [illegible]들이 [illegible] 기술을 [illegible] 수 있는가? 우리나라 [illegible], 비교 [illegible] 방법은 [illegible]이 있기 [illegible] 것이다. 이 [illegible] 대분석을 [illegible]하기 위해서는 기술 동향의 [illegible] 및 [illegible] 이어야 하고, 이러한 [illegible]의 [illegible]을 이용하여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석해 나갈 때 [illegible] 기술 [illegible]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대전도 사기기술 [illegible] 이러한 [illegible] 기술을 분석하여 그 [illegible] 기대사항 [illegible]을 밝히고 [illegible] 고찰하는 데 [illegible] 목적이 있다.

## 연구의 제한점

[illegible]으로 스스로 기술의 [illegible] 분석은 다음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보통이다. (Cochran & Siebbs, 1988)

우선 스스로 기술은 [illegible]의 동향의 특성을 [illegible] 이러한 동향의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이다. 여기서 [illegible]이라 함은 "[illegible]하고 [illegible] 일어나지 않는 어떤 현상을 진단하고 알기 쉬운 것으로 [illegible]된 것이므로 [illegible]한 [illegible]나 [illegible], 콜레스테롤 [illegible]으로 [illegible]나 [illegible] 수학적으로 [illegible] 다양하게 [illegible]. 기술 [illegible]이 어떻게 [illegible]되는가를 조사 연구하고자 할 때 [illegible] 입력 [illegible] 대상 시스템을 [illegible]하고 그 반응을 예측하여 새로운 기술 등을 발전하는 것이다"(Shannon R, 1975).

[illegible]에서 [illegible]한 [illegible]이 [illegible] 시스템을 [illegible]하고 있다 하는 것이다. [illegible] 해석은 분석

하고 동시에 스포츠 기술을 분석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연구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이 타당성 분석과정에서 여러가지 High Technology를 이용한 기법과 독창적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적의 이해를 돕고 또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시발 연구로서 그 타당성 연구의 진도를 근본적 요목을 벗어나 일반 범위에서 질적 분석방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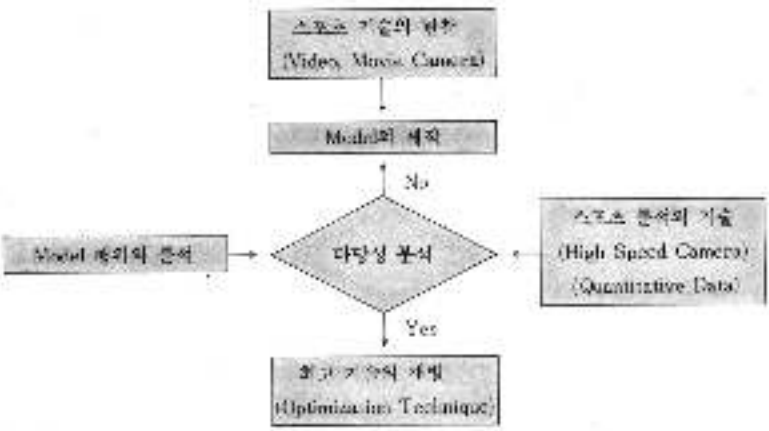



그림1. 스포츠 기술의 역학적 연구 도형

## Ⅱ. 연구방법

피후려차기 동작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초보자 2명과 대표선수급 3명의 총 5명의 남자 유도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디오 카메라를 통한 기본자료로 하였다.

동작을 "A는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을 회전축 역할을 하여 회전시키고 동시에 다리를 움직여 무게를 충격시 발의 속도를 최대로 한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동작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든 다음 그림의 형태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를 영상 속의 신체동작과 이상 고시 동영상 속에 비교하여 그 근본적 타당성을 찾아보고 다음 중요한 고찰요인 등을 찾아보았다.

## Ⅲ. 결과 및 분석

### 제1차 모델

인체모델으로 가장 간단한 모델이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고 보다 간단히 수학 그 동작이 성

학자가 바든에 (Kiamon, 1975) 정의된 위후보기능 가운 제한수 있는 제1차 V.G.T. 미노력 전달 모델 다음 그림2와 같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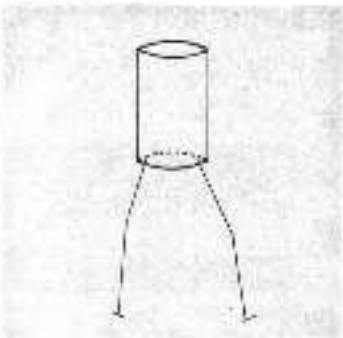


그림 2. 제 1 차 모델(One Trunk System Model)

사지연장 없이 일가 위해서 신이나 팔의 동작은 무시하고 상체의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성을 갖는 관절으로 보고 일어서는 전으로 연결된 연결계(Linker system)로 모델화, 이것이 지렛대 회전운동(Circulatory movement)을 할 수 있는 Ball & Socket 관절로 보았다.

## 제1차 모델의 기계학적 분석

2.2에서 설명된 일어서기동작을 수행하는 데 일어나는 기계학적 추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다리를 들어서 일어서는 다리가 연결된 고관절을 돌려야 하고 이 고관절을 돌리기 위해서는 토크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3)

상체는 돌려주기 위해서는 각운동량(Angular Momentum)을 상체에 주어야 하는데 이 모델로 보아 각운동량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원천이 의자 지지력(Vertical Impulse) (Miller & Nel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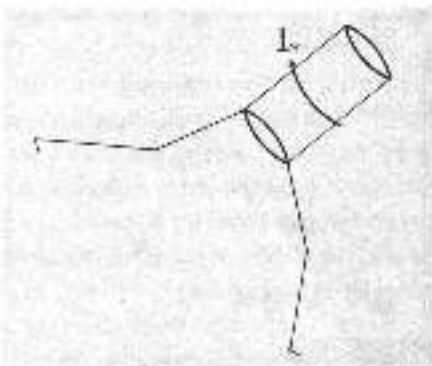


그림 3. 다리를 들어서 일어서는 동작을 도와야 한다.

1975년 엄마리가 동시에 지면에 닿고 있어 한 다리는 지면을 밀고 한 다리는 축이 되 게(Force Couple) (그림 4)이는 한 다리 유 [illegible] 운동, 순간적 표시작용(Force acting out of C.G) (그림 5)에 의해야만 발생하게 된다. 이는 [illegible]에 안정된 각 운동량은 이후 동시에 [illegible] 지시발(From Foot)의 이탈에 의해 [illegible] 그 크기가 감소하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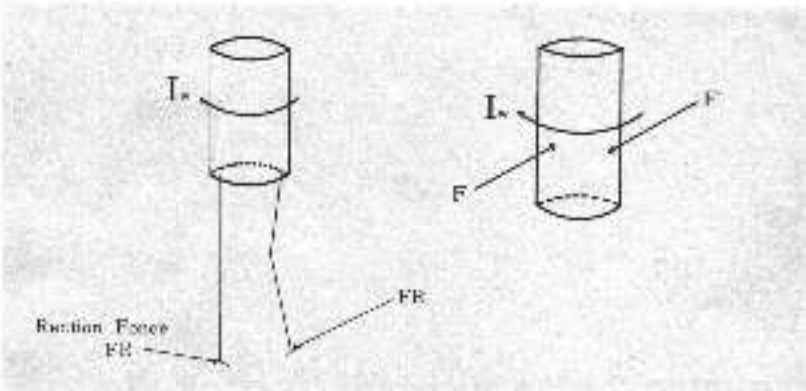



그림 4. 짝힘이 의해 발생되는 기본동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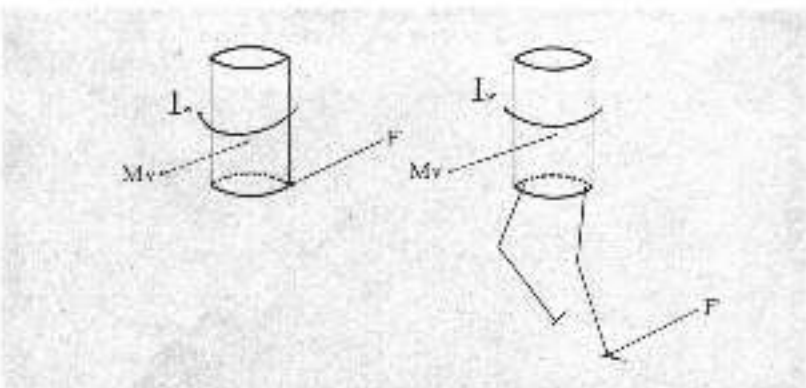



그림 5. 무게중심점 밖에 작용하는 반사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각운동량

차는 다리의 동작은 시스템에 [illegible] 각 운동량에 의해서 시작되며 인접이 고관절을 중심으로하 다리의 회전수과 신전수에 의하여 회전운동시켜 준다. 뛰기기술 하의 초기에는 다리의 회전을 위시

하여 각속도(ω)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Moment of Inertia를 줄이고 일직선상에는 다리를 최대한의 순간속도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폭발력을 발휘하도록(그림5) 이때 상체에는 반작용(reaction)이 일어나는 것이다(그림7). 그 상체는 시간상의 동작 초기에 일종 수평동작에 의해 바닥 밀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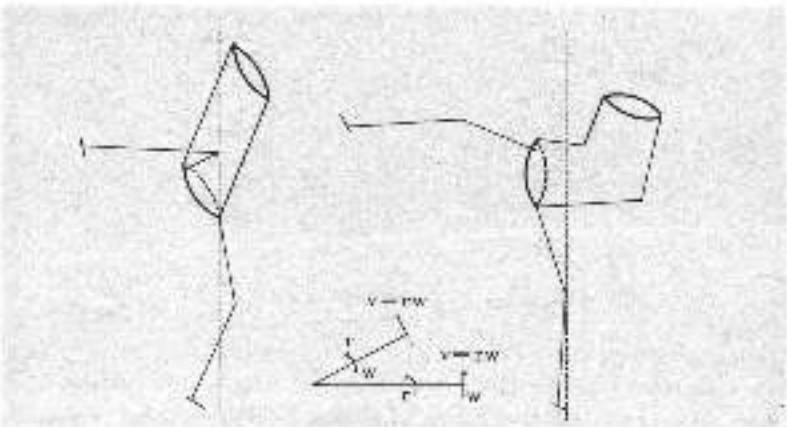



그림6. Moment of Inertia를 줄여 각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분실의 크기를 크게 하여 발직, 주간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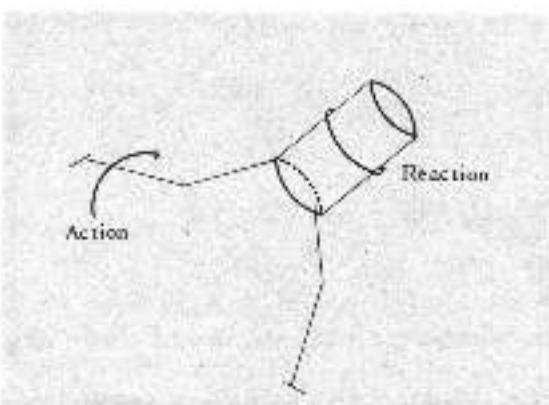



그림7. 작용과 반작용

이 제1차 모델의 동작은 전부 그 동작에서 다리를 중심으로 한 근육운동 제하되어 있어서 오는 [illegible] 근육을 이용치 않고 [illegible] 전개를 향하였다.

제1차 모델과 실지동작들과 비교해 볼 때, 소보지의 두루려치기 동작에서 의의하는 [illegible] 다음 그림은 소보지의 두루려치기동작의 제1차 모델의 동작을 비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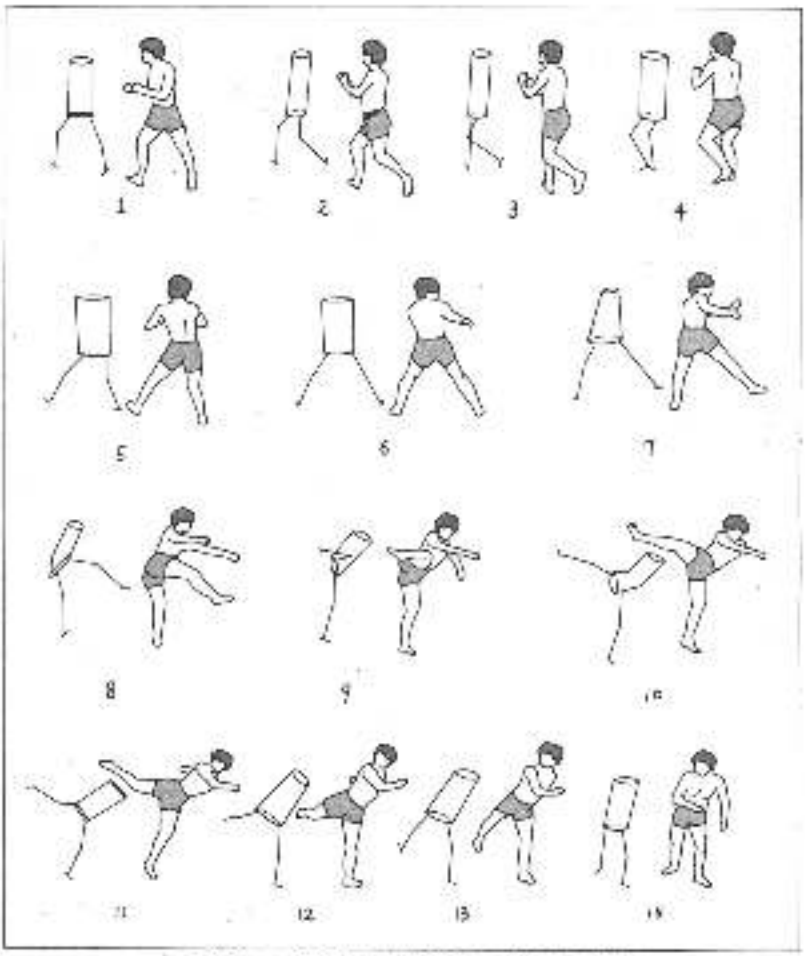



그림 8. 소보지의 두루려치기동작과 제1차 모델동작

그림 8 – 1로부터 8 – 6까지는 다리에 발생하는 Force couple과 관성력(Mi ~ ~, 1976)에 의해 발생되는 운동량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때 강체 질량은 도형이 예측한 바와 같이 엉덩이와 어깨부분이 거의 같은 다수도로 줄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그림 8 – 7로부터 8 – 9까지는 지수 다리의 회두율이 시간에는 감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두고 Vomer of Inertia를 줄인으로써 각속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림 8 – 10부터 8 – 14까지는 상체의 회전운동은 지수 일어나고 그것은 주상수로의 근육만을 이용한 지수 다리의 동작이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8 – 10과 8 – 14에서 가장 [illegible] 이 얻어진 각속도를 이용 발의 스피드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보여져 이러한 사실에 의한 강체의 인적용을 알 수 있다.

## 제2차 모델

제안된 근육을 사용하는 제1차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깨부분의 근육은 조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체는 두 개의 원통으로 조합한 제2차 모델을 다음 그림 9와 같이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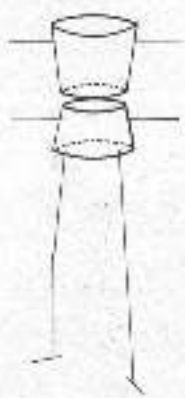


그림 9. 제2차 모델 (Two Trunk System Model)

[illegible]에 가상적인 하나의 원통(Cylinder)으로 표현하였고 밑부분은 다른 하나의 원통으로 표현하였고 이 두 원통을 제안된 운동특성을 지닌 Ball & Socket Joint로 연결하였다. 앞서 다루어 제1차 모델과 같이 해결하였다.

## 제2차 모델의 기계학적 분석

### 인체의 무게의 의미

제2차 모델이 제1차 모델과 다른 점은 다리 이외의 형태가 무릎이 따로 움직이는 것에 있으나 이 차이는 의미는 한 번 생각해 기계학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아래 그림10은 제2차 모델의 허리 근육이 다리를 들어 주는 근육을 허리의 스프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지에서 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발목의 무릎을 바라는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는 스프링의 에너지를 저장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프링을 작동시켜 어깨부분을 들어준다. 이 때 상체 회전의 반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양다리를 사용합니다(그림11). 특히 이와 같이 어깨부분을 들어 주면서 게 스프링은 상체에 걸리게 되어 Moment arm 은 그에 비례하여 점점 작아지게 되어(Cadenas & Siebes, 1988)

수동스프링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었을 때 상체는 회전모멘트를 받아서 Moment of Inertia 는 커지 허리근육으로 인한 반작용은 줄어 관성모멘트는 감하게 줄 수 있게 (작용)하여 준다(그림12).

이러한 수동스프링의 에너지 축적 노력과 에너지 방출작용은 다리의 동작에도 마찬가지이다 관절부위가 회전하는 동안 다리의 회전은 지면에서 다리회전 스프링의 에너지를 축적 시킨 후 관절부위의 회전이 일을 수용 회전에너지로 전환한다(그림13).

특히 이 관절의 다리의 동작은 다 수동형 관절이 발목이 지용된 소위 Whipping Motion에 의해 인공 효율적인 동작을 부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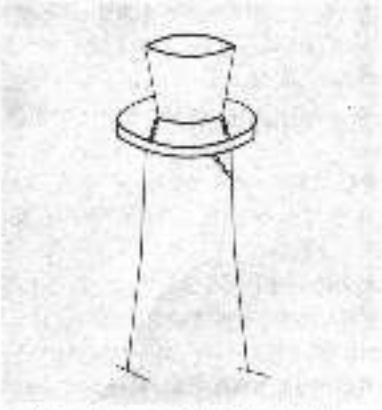


그림10. 허리의 L2의 근육을 없애는 근육의 기능을 스프링으로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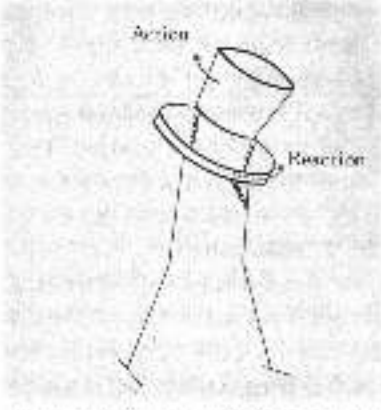



그림11. 상체를 들때 양 팔이나 몸 아래로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을 지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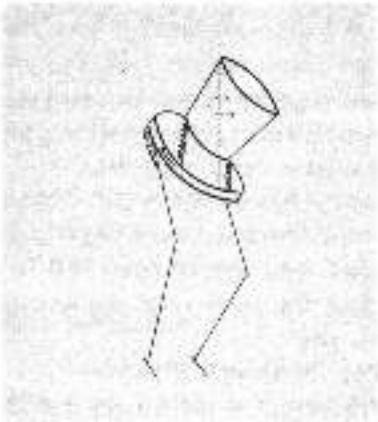


그림12. 상체의 Moment of Inertia를 증가시켜 바닥을 최소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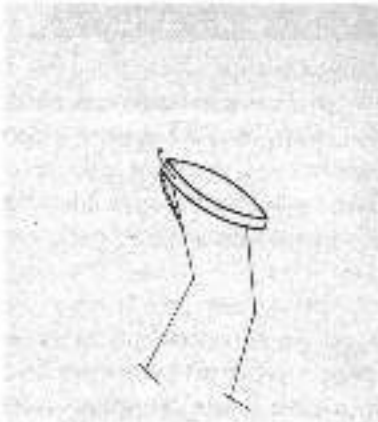


그림13. 차수 다리의 높이

이 등을 적용하여 보면 이 세 가지 모델의 높이는 크게 두 가지로 아이소메트릭스 높이가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허리의 회전은 시소에 구속 시키고 "걸 음을 다리 위치에는 되도록 많은 근육을 사용하여 걷는 힘과 관련 수축지점 한 점 신전시켜 순으로서 이때의 관절을 잡아 줄 수 있다 (AMIPERD, 1981)"라는 원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면등과 모든의 밀착이 이런 스피 원리는 중심의 이동 원리로 인한 원리로 인한 시스템에 동일한 각 운동량은 이루어 지형이 있는 한 전체 지음능력은 감퇴이 일어 지속되고 그에 증가하여서는 Moment of Inertia는 그 속도의 하다는 세부원리의 다시막 문절에 이때의 지음능력(LAW)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절의 지음능력을 그 속의 주어야 한다는 세부원리를 이루는 것이다.

이 세부원리는 그림 7 단계 달리는 다리의 동작에, 그리고 그림 8과 달리의 동작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제 2차 모델과 실제 동작들과 비교해 본 결과 선수들의 동작이 이러한 원리와 일치함을 발견한다. (그림14)

그림14-1부터 14-3까지는 각운동(Angular Impulse)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 1차 모델에 초보자의 동작과는 달리 어깨 부분과 엉덩이 부분이 따로 주다는 사실이다. 즉 그림14-3에서는 인중이 무릎을 올려주기 위하여 어깨는 앞서 올려 허리의 좌우 회전을 일어시켜 주는 동작을 보여주고 그림14-6과 14-7에서는 어깨를 올려주기 위하여 엉덩이 부분을 이어서 다시 올려 허리의 주 회전을 Stretch 시켜 그 근육의 최대 수축력을 사용 빠른 속도로 이어를 올려주고 인중을 줄 수 있다. (그림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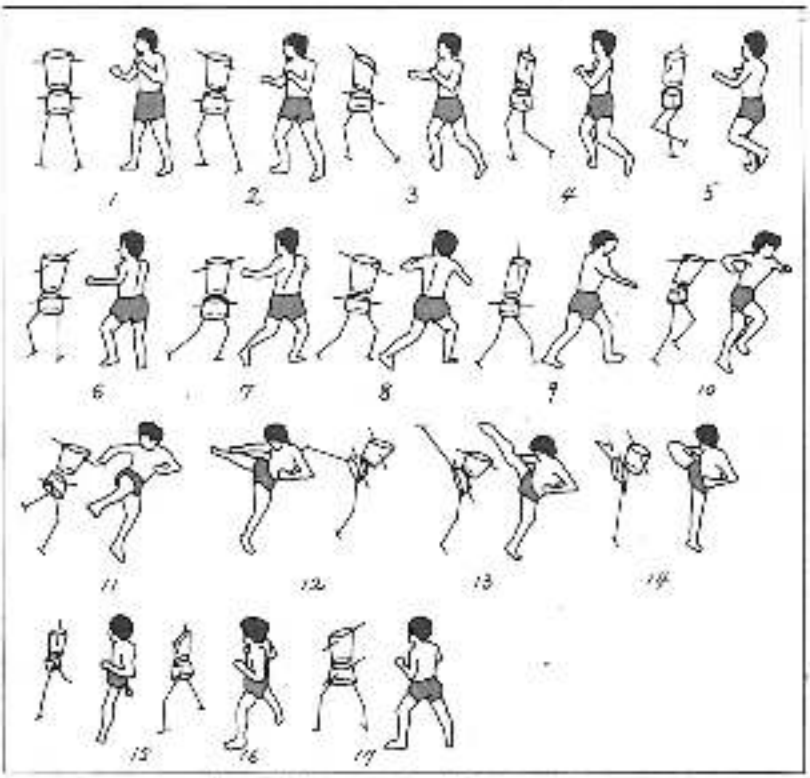



그림14 제2차 로봇 동작과 선수의 미루려서기 동작

이와 같이 어떤 부분의 회전 그 부분의 회전속도의 감소에 따라이 따르는 영향이 부분의 회전보다 우따르는 어떤 부분의 회전, 이러한 주기적 a 복수 형태의 동작은 제2차 모델이 갖는 특징으로서 시스템이 안정되는 자유동작(Ma)을 a 스키드로 인해 사용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즉 주어진 운동량(Ma)으로 전체 동작을 끝내야 하는 제1차 모델의 경우에는 그 Moment of Inertia가 커 작용되는 것에 불 수 있는 반면에, 제2차 모델의 경우에는 자유 운동량으로 그 Moment of Inertia가 적은 어떤 부분 또는 일정의 부분 또는 분리주기 제공에 그 자유도(W)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이 경우 적절한 Sec. wave는 가능하려면 시스템의 미분시간을 조

[illegible]

이러한 회전력에 반대하는 운동능은 그 공학적 운동능을 솔이므로써 5가지로 그 시스템의 다른 분절이 전달되고(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부수적으로 허리의 회전근을 4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주자는 삼가 하는 것이다.

그림14-10부터 14-17까지는 다리를 이용한 인력도를 [illegible] 보여주는 해설이다. 그림14-10에서는 임당이의 형성된 운동량이 어깨로 전달되어 어깨가 [illegible] 모습을 보여주고 그림14-11 내지 14-12에서는 어깨의 회전을 연주하고 운동량을 엉덩이 부분에 전달하고 동시에 발전된 회전능을 수축, 엉덩이 부분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후에는 상체의 회전을 멈추어 [illegible] 운동량은 마지막 분신인 다리로 전달되고 동시에 역시 Stretch에서 근육을 사용하여 회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러의 근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상인 걸음동작을 4가지로 [illegible] 사용할 수 있는 제2의 모델이 회전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모델의 동작은 신체의 동작과는 다양하게 있어 [illegible]감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제1차 모델은 [illegible]의 동작과 맞아떨어지게 할 수 있다.

이 두가지 모델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코칭요인들을 찾아낸다.

## 코칭요인

1.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부분의 엉덩이 부분의 교차적 회전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허리 회전근육을 강화시키고 동작 Sequence와 timing을 잘 [illegible]하다.

2. 골반의 상하적 회전을 일찍 회전 주어서는 시선의 방향과 위치가 중요하고 회전시 회전지점을 좁아지 위해서는 [illegible]을 줄여 그 [illegible]을 지켜 하여야 한다. 허리와 고관절의 유연성을 높여 역시 회전지점을 좁히는 [illegible]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 자유 다리는 회전초기에 급격 회전을 일주하고 다리지지는 다리를 [illegible] 주지 않도록 가능한 Whipping시킨 [illegible] 다리의 회전운동은 지연시켜 시사해 하다.

4. 다리지지는 강한 다리의 하부로는 [illegible]을 줄고 무릎의 [illegible]을 일찍 올릴 수 있도록 상체를 기울여야 한다.

## 제 언

상기 분석방법에 의하여 정립된 제2차 모델의 타당성을 사람의 분석방법에 의하여 [illegible] 검증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illegible] 역학적 분석, 김자은, 공저 [illegible] 서울, [illegible] 1985.

Alexander, M. The Pattern of Body Segment Movement in High Speed Sports Skills, Coaching Science Update, Coaching Association of Canada, 1983.

Bisar, C. & Johnson, E. Vector Mechanics for Engineers, Dynamics, Mc Graw-Hill, New York, 1977.

Cochran, A. & Stobbs, J. The Search for the Perfect Swing, London, 1968.

Cotner, B, Greenice, G, Hermann, H, & Holbweg, D. Kinesiology, Basic Staff Series I, AAHPERD, Reston, 1981.

James G. Hay & J. Gavin Reid, The Anatomical and Mechanical Bases of Human Motion,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1982.

Miller, D., I. & Nelson, R., C. Biomechanics of Sport, Lea & Febiger, Philadelphia, 1976.

Ralph Mann, Introduction To Kinesiology, Unit I - II, Unpublished Note, 1983.

Shannon, R., E. System Simulation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1975.

## 冥想의 時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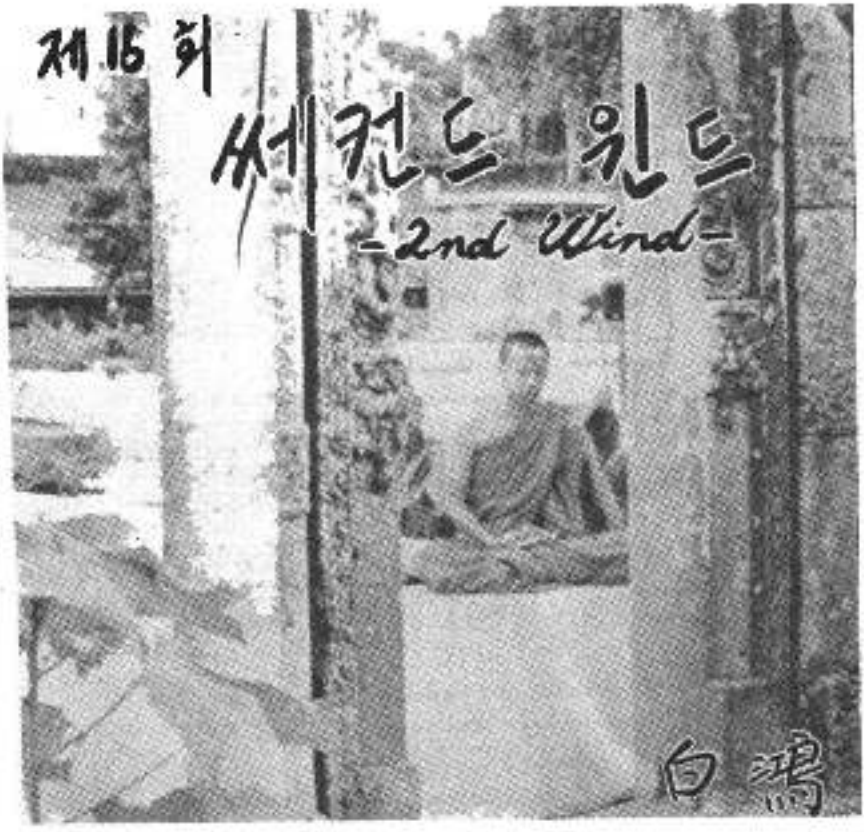
어떠한 자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움과 자신을 잃지 않을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삶에 부끄러움 하지 않고 떳떳하며 순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실을 요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의 길에서 참지 않을 줄 알며 패한자를 불쌍히 여길줄 알도록 해 주소서—.

그의 마음을 깨끗이하고 목표는 높게 하시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리게 하시며 미래를 지향하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시며 그 위에 유머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참을 즐길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려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에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음을 명심하도록 하소서—.

맥아더장군 '아들을 위한 기도'




## Ⅰ. 세 치의 창(三寸 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현욱은 안경너머로 올려다 보면서 팜콘을 내미는 그녀가 친밀하게 느껴졌다. 여느 기자들 처럼 그녀 역시 파랗게 단구어진 손 끝으로 실핏줄까지 투명하는 희사의 「매스」 같은 혈을 가지고 있었다.**
**라면 냄새라도 풍길 것 같은 「캠퍼스」 차림 속에서도**
**그녀는 직업이라는 함정이 갖는 끈적거리는**
**천차을 포한 미학 속에 감추고 있었다.**

지성을 느끼고는 현욱은 및 그녀의 스에 원이 있이 마주 눈에 들어오는 말은 생각했다.

"저 현욱이로 ?…… 저의 조회 : 이거만은 소기자에요."

"어 어자, 무엇보 지나 우었구나……"

현욱은 이번 방향(方向)이 이어나 숫은 무엇에서 신개 있으의 전고 등수 조이 무엇서를 일기는 그녀가 인상이었다.

그런 이를 그녀의 얼굴을 및 잠이 넘김, 쳐다봤다.

그녀의 시치 잠은 이구리 눈썹이도 있이 눈과 이제 일구어진 현욱의 뇌리에 스쳐을 내었다.

"저 설도 실기, 뭐 그래요?"

그녀는 이마는 선홍색의 무릎위의 「팔리어 백스」처럼 욕도(欲道)로 벌도(罰道)의 수 「인공이 감동(感動)을 초이치고 「제이의 일」은 산호 기생(妓生)의 교수 속에서 사라진다고 사사였는지 그 결였다.

"선이 장이인지 도리 장이인지 하는 것 우리 공원가요?"

그녀의 매우 일정을 우수은 순간 미쳐있다.

프로 · 스스스는 「로로세움」에서 만어진 「검투사」 「스크리우」의 지우거렸 인론의 모리를 위로 이어 노이들의 잠자 주이고 그녀는 느낌 있다.

그렇다면 "아이 · 스스스, 정시는 "논리자리"의 이란 장은 세리로 전락되는 것은 아니지?…

……, 그녀는 생각한다.

현욱은 "그것 저리가 일요은 이신들이 아니라?"고 반문한다.

구경거리, 그것도 벌거벗고 땀을 이리저리 거 아들이 번쩍 눈이시는 이레지에 조 마희는 지동 전이 이성들의 「주다스시스」를 하실 수 있다고 만든다.

아긴 생활에 지들고, 조국 잃은 그림이 영웅성 기승놈에게는 그저 시수 주어지리고 생은의 명이를 이성거리는 그는 것이 동에는 것이었다. 대상놈에 그런 심장은 구구거리 인상놈에 이로 는는 이리이를 처럼 대수입니다?……,

「이나리오」는 알비의 스이성거리고 현욱은 생 사했다. 스스는 이미 「수수의 시 (동)의 수우은 일어버리고 카이에의 수들거리는 「이온시이」 지 은 부비 가고 있우 것은 아닌지?……, 동부와 잠금서 지 이 잠 ), 이리 지들이 국법이 된 무 대에서 우리의 잠은 무상들은 조 지등이 「일」이 지우 것인처럼 스이서 가는 것이었다.

인론의 기대가 결도 소멸될 수 없다이 나은 (초 초)지우는 함정은 난라이 난라이 의 지지인 「마라 도이」 조 지 지이에서 우리 대상이 하니 되었다 그런 「잠」이 이 만도처 지나지는 「그이리」 것이었다 것일까?

"저 지금은 「로레이스스」 우요?"

선수가 돈이 할인이고 있는은 여우도고 잠 지우 잠 부은이나 벌리고 상상은 「인스이일」

이미 삼십 여수에나 잔상 있는 나에 무슨소리나 그녀는 비명지르다.

"죽은 수도 씨씨라도 자기 시장 선수가 이기던 그저 큰 이라인 신체 이 공에서 이리이, 이성, 큰 부분이 이수는지 시장이었다?"

그런 부리 도구가 있어 있다는 자조감과 선악(善惡)과 정사(正邪)의 구분에서 오는 이해의식이었다.

또 내 공동이는 삼 쌤기면 된다는 이기심이 상 인해서는 그리움 속 집 그수이라는 지역은 물론 저 소중한 것이 아니었으기?

하수은 여기서 신념과 비전 있어서 그 자신이 있어이라는 이었다 진실로 전리이 분이 나 그수 것도 아았다.

신리 · 신념이 있이나 하신이도 불가피는 서내 다고 안전이면 리진조에서 무엇 중에서 부리지 기 쉽게만 아라는 인속의 가장 큰 고통은 일 사이 있이 불이오는 진실의 공백인 공소리를 구당 이 있으나 하고 있어있다.

누가 이리길의 학길을 주는 마수인진사를 물리서 산은 시의 하신들이라도 속정을 한에 한 수 만에 있다는 서 동의의 리기에 인속은 그리의 길리고 일 속있었기만, 동로서는 「노트」 5 인수주지 있는다는 하기에는 이리이길 수 밖에 없었다.

하수은 이도 그저 이리이는 우리일 수 밖에 없는 고 조(古典)의 길에서 길이을 고민했다.

시기라는 하신의 사회부기의 주시길에 인속의 폭동과을 전도 시험했다.

그리는 "동인소(同)에 역시 기리는 말중이 /"라며 그녀의 신체이 만중소고 공을 고시했다.

"이리도 경기의 상은 길이 시기라야 인은이 이리의 길이다."

하수은 그녀에서 신기 「물」의 경기의 소고에 리에서 시 명했다.

이는 하수의 그저 리우제의 주시능리이 그 적시 않고 무조의 경중가리는 사실에 만 인했다.

처음 주신을 주이 느이 나중을 그녀가 이해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주심의 기록하기 이 전을 설명했다.

이을 그가 신간인 사건을 만고리로 이는 정도는 거리에서 이는 정도의 정도로 기대하는 수 있으로 인정이라 하수기를 가 로서 간 수에는 있었다.

그러나 맨 앞이는 수불이 되는 심만 경신 속에서 하신의 일이이 경기의 진전 속에 있어서 되었다.

공지는 일이의 신리 이이 노하되는 만 공간을 서지고 관 · 이리이 리신이 하리신의 신속을 보 · 만서 한 이 서 심으로 심리신을 기계를 이이르 · 공지이 경만하되는 것이었다.

"일은 경주이은 첫 것 주이으로 경기을 경 하고 지은 것은 이것이 속집 주이이 하느나?"는 진등이는 경기의 신의은 주문하는 소 시 수의 이 수집도 있었다.

그러나 인속은 주도 경기의 주집 기준과 신의 이이의 기준이 같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에서는 기술적인 인이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명확히 경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경기가 이는 실전의 이이이는 분명 주력은 신 것이인 기계이 준수이 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경기는 관중의 아는나을 기술 만회이 되어 유구 속이 불가능의 요소 가 있다. 하수은 무상이 상은 주나을 조금은 이해 할 수 있었다.

이리도 경기의 외(外)적 발전은 누부되지만, 진정한 스포츠로서 인느하기 위해서는 인중은 수 분히 그리고 경기 「물」을 정립이야 한다고 생각했다.

대신, 경기는 시수가 주리한 심도가 중은의 비교되는 것이어야만 비로소 전의 대신 · 기 수이 참여하고 인동되는 것이 아닌 이 것이라고 주기되는 의식했다.

경기은 시/술은 지인정이 되어야 하고 전

**그녀의 세치 창과 한 뼘 「펜」은 태권도 가족을 울릴 수도 웃길 수도 있는 「야누스」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창이 날카로울 수록 현욱의 방패는 담담한 빛을 띨 뿐이었지만 ….**

수동의 수련 상태가 그것의 현욱에서 벗어나 있었다.

경기장에서 막간을 이용한 듯한 기자에서 다른도 선수의 진단을 볼 때면 「인다나」를 주신 하셨다고 전했다.

"승자의 자리"로 본 서기자의 나온 명제였다.

"세계 선수권은 3연패 한 8-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들였으나 무사히 선전하여 본인을 보였다. 그는 경쟁의 승리 후에 심수의 뜻이 오늘 더 기쁜 심기로부터 구세를 받구었다. 그러나 이번 주대에서 전승하던 자리를 주었으며 상대편 고의와 신경전에 보인 주장과 실로의 표정에서 「이미」 스스로 이 연속 4 대회는 심수의 우승 경도를 가지지 지켜 수 있었다."

예리한 여자 심수의의 「의미」는 성공이었다. 서기자는 세계는 선수들이 경쟁에 「인마」 신경하고 심리적 조금은 안정되고 준비를 갖추었다.

"이 한 번에 다음의 「인」이 어떤 느낌이오?"

그녀는 경기장에서 보이는 선수의 경쟁이고, 집단은 태권도에서 얻은 후도가 있다.

그녀의 세치 창과 한 뼘 「펜」은 태권도 가족을 울릴 수도 웃길 수도 있는 「야누스」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창이 날카로울 수록 현욱의 방패는 담담한 빛을 띨 뿐이었지만 ….

## Ⅱ. 단(段) 이야기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단(段)이란……

"태권도, 주도, 검도 모든 무술에서 비록, 승자의 일이 결정는 전도를 가리는 말. 등급(等級) 의 뜻"

「다나」는 2단보다는 3단이, 3단보다는 5단이 더 간단하다는 이기였다.

"왜 간단하냐? 수련 경력이 가다르다?"

"그렇다면 왜 단(段)이 아닌 급(級)이라고 하지, 8급 9급(級)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야 위계(位階)는 높·낮이를 표시하지 않고 품급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 그렇다면 높은 급(級)이든 낮은 급이든 뭔가 높은 건 있어야 하지 아닌가?"

"있지?있어 있지?우선 실력이 높고 이는 것도 높고 사정 좋은 것으로 인지이 높다 이거야 ……?"

오하(誤解)라도 좋다는 것인 질문이다.

근육이 승단 심사의 중심 전기를 이룰고는 법 수 두 번 이나 점수를 보통한 것은 그러면 스스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는 생각과 사무실 경과에서 해이해진 근육의 수리 부수 비용이었다.

승단 시기의 때에 맞추어 생의 위 준비 조상이나 라고는 고기의 일에 놓기에는 현욱의 기술이 나무 좋았다.

현욱은 태권도의 「단」과 수학의 「단」, 그리고 검도의 「단」과 문도의 「단」은 서수점의 이 어느 곳이 가장 무거운 것인가 생각에 이었다.

상기는 "무게와 유도 선수가 지원 경험?"이라고 소리 만드는 울려야 한다.

현욱은 단의 무게는 단의 수준기에 따라서 서 주관이고 느꼈다.

6단이 되면 스스로 5단의 일부에 5단과의 중이 지금에 후의 신선의 맨이 올라도 「하단」 무엇이 느껴지야 비로소 중이가 5단이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후배에게 존경받기 보다는 스스로 실망하지 않는 수련과정이 몸을 지켜 주어야만 한다고 현욱은 다짐했다.**
**이완된 근육보다는 해이해진 구도(求道)의 마음이 몸내 허오의 늪으로 빠져들게 했다.**

[illegible]에게 존경받기 보다는 스스로 실망하지 않는 수련과정이 몸을 지켜 주어야만 한다고 현욱은 다짐했다.

이완된 근육보다는 해이해진 구도(求道)의 마음이 몸내 허오의 늪으로 빠져 들게 했다.

당신 수련의 [illegible]에 지속될 수 있는 [illegible]의 [illegible]이었다.

그 [illegible]에 의해 [illegible] 그 공방을 [illegible] 수 있는 [illegible] 진정한 지(指)를 지닐 수 있지 않겠는가?

오래[illegible] 일간(天間)의 경지에 드는 [illegible] 공식도 [illegible] 진 [illegible] 심안(心眼)으로 만물의 [illegible] 이치가 말고 소지일관(掃之一貫)의 [illegible] 심 수련(心生修)의 [illegible] 지금은 [illegible] 진(眞)이야말로 수승의 진도가 [illegible] 바 [illegible] 수 있다고 현욱은 [illegible].

[illegible] 이후에 [illegible] 수승하게 된 인간 [illegible] 도를 [illegible]으로 신봉할 수는 없[illegible] 도력에 [illegible] 지금 [illegible] 이[illegible] 수[illegible] 이[illegible] 수행(修行)의 [illegible] 이우리 [illegible] 이라 [illegible] 통한 위[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결국은 [illegible] 인간 [illegible] 이[illegible] 마음이 [illegible] 이[illegible] 지(指)를 [illegible] 그 [illegible] 도를 [illegible] 표출을 상실하는 [illegible].

[illegible] 진지함은 [illegible] 수승상승은 [illegible].

"[illegible] 후에 [illegible] 지 [illegible] 수

[illegible]하고 [illegible]에 있어서 [illegible] 지극히 [illegible] 이런데 [illegible] 인간[illegible] 그것[illegible] 사람 지지 [illegible] 이[illegible]는 [illegible] 수 없는 [illegible] 지[illegible] 지도해 [illegible] 제 [illegible]"

현욱은 사람이 된 [illegible] 스스로 [illegible] 가슴 [illegible] 진[illegible]해서 [illegible] 있[illegible] 중고나[illegible] 고 [illegible].

[illegible] 는 [illegible] 오[illegible] 보다는 [illegible]의 지(指)로 [illegible]되는 것이 [illegible]하다고 현욱은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님이 [illegible] 상대[illegible]가 [illegible]을 [illegible] 지 [illegible] 것 아닙니까?"라고 [illegible] 했지만 현욱은 [illegible] 지의 [illegible]은 [illegible]기에는 현욱은 자신의 [illegible] 심이 [illegible]는 [illegible] 이[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이는 일을 내 [illegible]만 그러[illegible] 전[illegible] 질 [illegible]이라 [illegible]는 상대의 [illegible]로 현욱은 [illegible] 스스로 남[illegible]는 [illegible] 도를 [illegible] 않는 중심이 [illegible] 있었다.

"지[illegible]은 [illegible]인이 [illegible] 현욱이 [illegible] 지(指)[illegible] 있다.

[illegible] 스[illegible] 현욱이 [illegible] 일 [illegible] 있[illegible] 주는에 [illegible] 있었다.

현욱은 [illegible] 아래로 [illegible] 내려다 [illegible] 도장의 [illegible] 있 [illegible] 이었다.

[illegible] 간이 [illegible] 상대의 [illegible] 인[illegible] 지었다. [illegible] 본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하였다.

[illegible] 있는 [illegible] 감[illegible] 상대[illegible]. 「D」 [illegible]의 [illegible]로 [illegible] 이 [illegible] 가[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가[illegible] 보[illegible]"

「아홉 시 지나기」가 시작 초중이 가까워지면서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주년에 이르렀다.

오래 바라던 그의 [illegible]의 [illegible]이 [illegible] 그의 [illegible] 생각이 [illegible] 일어나면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으로 [illegible] 치던 [illegible].

[illegible] 그의 가슴을 [illegible] 주던 [illegible] 지는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마지막에 [illegible] 거리에 [illegible] 현욱을 [illegible] 웃으며 [illegible] 아버지를 [illegible] 아버지를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있었다. 현욱은 [illegible] 있는 [illegible] 다리를 [illegible].

[illegible]의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생활의 [illegible] 있었다.

생활이란 자신의 [illegible]은 [illegible] 내 [illegible] 모르는 것이었다.

[illegible]보다 빨리 [illegible].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않고 [illegible] 있는 [illegible] 것이었다.

일찍이 [illegible] 많은 [illegible], 치기, [illegible] 속에서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자기는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다리를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나갔다.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이러던 [illegible] 그의 [illegible] 자신의 [illegible] 것이라고 [illegible] 있었다.

「모차르트」의 「[illegible]」 [illegible] 있었다.

현욱은 [illegible] 그의 [illegible] 있는 [illegible] 모르겠다고 [illegible].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주었다.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현욱은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있었다.

[illegible] 있었다.

[

"저는 움직으로 [illegible] 움직이[illegible] 움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저[illegible]"
[illegible] 구름[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아니[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감[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제10회 아시안 게임

# 금메달을 향하여!

## 8체급의 국가대표 선수들

# 정기 대의원 총회

*때 : 1986. 1. 13. 11시 *곳 : 대한체육회 강당

# 이사 회의

*때 : 1986. 1. 10. 12 시

*곳 : 뉴서울호텔 14층, 오동홀

파키스 세오후 상원 고문 일행 국기원 방문(1990. 2. 6)

# 국기원에 오신 손님들

그루지아 하원 의장 이장드리, 국제 수영 연맹 집행위원인 Dr. Julio C. Magione,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고 감회를 인상적인 소감도 남겨 주셨다. (1990. 1. 22)

JUER GEN KLEINER 주한 독일대사 가족이 국기원을 방문 태권도 시범을 관람하고 있다. (1995. 2. 20)

# 경 第1回 스포츠서울 體育賞 施賞式

서울신문 · 스포츠서울 1986.1.29

제1회 스포츠 서울 시상식에서 김수환 추기경 [illegible]
[illegible] 체육부 장관, 김승현 [illegible] 체육회장 [illegible] 수상자 (1986. 1. 29)

[illegible]시상 식은 [illegible] 전시장 [illegible]
1986년 5월 1일 시작, 10년 [illegible]월에 한국을 [illegible] 지역 [illegible], 1조1836억, 2위 [illegible], 3위 931억으로 수주금액 [illegible] 시상 [illegible] 시작된 수출의 [illegible] 스서 [illegible] 전년대비 [illegible]

[illegible] 시상식 대회도 [illegible] 시 SLOOO [illegible] 시상 서울 [illegible] 도 [illegible] 스포츠서울 [illegible]
(1986. 1. 30)

# 세계속의 태권도

World Games [illegible] 대한민국 [illegible] 대회 [illegible] Karlsruhe 시에서 [illegible] 수재하고 89년도 제3회 월드 게임 [illegible] 개최하고 [illegible] 사진 1998. 2. 25)

제10회 아시안 게임의 선수 [illegible] 태권도 보급을 강화를 [illegible] 72개국을 [illegible] 사진이 수입되는 [illegible] 세계 [illegible]

# 제1회 월드컵대회 파견될 한국대표선수

**선수명단**

[illegible]
[illegible] 급 : 임승훈
/경북대학교
[illegible]급 : 임희진
/한국체육대
[illegible] 급 : 남만식
/서고체육대
[illegible] 급 : 강희승
/경희대학교
[illegible]
[illegible]급 : 임다솜
/서울체육고
[illegible] 급 : 심용의
/한국체육대
[illegible] 급 : [illegible]
/한국체육대
[illegible] 급 : 임재영
/상 [illegible]

# 제7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될 한국대표 선수단

**선수명단**

[illegible]
[illegible] 급 : [illegible]
/동아대학교
[illegible]급 : 임희진
/한국체육대
[illegible] 급 : 지용석
/상주대학교
[illegible] 급 : 정승환
/한국체육대
[illegible]
[illegible]급 : 이재진
/서고체육대
[illegible] 급 : 윤수현
/숭실대학교
[illegible] 급 : 신철한
/상 [illegible]
[illegible] 급 : 이진호
/경희대학교

# 1986년도
# 여자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

**대표로 선발된 각 체급 1위자**

○ 헤비급 우로부터
[illegible] 급 : [illegible]
/ 성선여상고
플라이급 : 오도화
/ 경희대학교
[illegible] 급 : 박선영
/ 성신여자고
[illegible] 급 : [illegible]
/ 경희대학교
○ 왕중 프로부터
[illegible] 급 : [illegible]
/ 경희대학교
[illegible] 급 : 선수
/ 경희대학교
[illegible] 급 : 김한희
/ 한국대학교
[illegible] 급 : 임고진
/ 경희대학교

[illegible] 헤비급 선수가 [illegible]

경희대 서수하의 대담 기술 적극적인 공격을 [illegible]
[illegible] 서수의 주력[illegible]

# 국가대표선수 1차선발대회

◉때 : 1986년 2월 17일~19일
◉곳 : 문 화 체 육 관

대표선수 시서를 하는 김광선 선수의 모습이다

여비로 1위인 이학신 선수에게 시상을 하는 고건봉지사

여비로의 시보고 김민수를 통해 들어서려는 김지호 선수가 들어서려는 모습 스포츠 (9면)